

2024년도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1단계 2차년도 국내학술대회  
〈일제강점기 한국 관련 팸플릿의 분석·번역·해제·이미지 DB 구축〉

# 팸플릿을 펼치다, 경성을 만나다

**일시** 2025년 5월 31일(토) 13:00~18:00

**장소**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국제관(B05) 0304호



2024년도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1단계 2차년도 국내학술대회  
<일제강점기 한국 관련 팸플릿의 분석·번역·해제·이미지 DB 구축>

일정표

시간	내용	
13:00~13:15	개회사	연구소장 신동규
13:15~14:05	<기조 강연> 조선총독부의 시정선전	발표: 조성운(동국대)
14:05~14:20	휴식	
제1부		사회: 배병옥
14:20~15:30	식민지기 박람회 홍보 이미지 자료 연구	발표: 김제정(경상국립대) 토론: 이승희(부산대)
	근대 시각문화사 연구의 사례 - 경성 사진엽서와 동아일보사 <경성백승>의 비교 연구 -	발표: 서유리(서울대) 토론: 황익구(동아대)
15:30~15:45	휴식	
제2부		사회: 허지애
15:45~16:55	1930년대 경성(京城) 팸플릿 표지 연구 - 시각언어 관점으로 -	발표: 박영희(동아대) 토론: 한현석(국립한국해양대)
	1920~30년대 관광팸플릿 경성지도 속 토포스 - 조선총독부 철도국 발행자료를 중심으로 -	발표: 최은경(동아대) 토론: 하지영(동아대)
16:55~17:10	휴식	
17:10~18:00	종합 토론	좌장: 장상언(국립부경대)





2024년도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1단계 2차년도 국내학술대회  
<일제강점기 한국 관련 팸플릿의 분석 · 번역 · 해제 · 이미지 DB 구축>

## 팸플릿을 펼치다, 경성을 만나다

### 목 차

<b>개회사</b> 신동규(역사인문이미지연구소 소장) .....	7
기조 강연 <b>조선총독부의 시정선전</b> .....	9
조성운(동국대)	
발표 1 <b>식민지기 박람회 홍보 이미지 자료 연구</b> .....	21
발표 김제정(경상국립대)   토론 이승희(부산대)	
발표 2 <b>근대 시각문화사 연구의 사례 - 경성 사진엽서와 동아일보사 &lt;경성백승&gt;의 비교 연구</b> ....	39
발표 서유리(서울대)   토론 황익구(동아대)	
발표 3 <b>1930년대 경성(京城) 팸플릿 표지 연구 - 시각언어 관점으로</b> .....	61
발표 박영희(동아대)   토론 : 한현석(국립한국해양대)	
발표 4 <b>1920~30년대 관광팸플릿 경성지도 속 토포스 - 조선총독부 철도국 발행자료를 중심으로</b> ....	81
발표 최은경(동아대)   토론 하지영(동아대)	



# 개 회 사

역사인문이미지연구소  
소장 신동규

안녕하세요. 한 학기가 어느덧 마무리되는 시점이 되어 바쁘신 와중에서 우리 역사인문이미지연구소의 제1회 국내학술대회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동아대학교 역사인문이미지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는 신동규입니다. 그리고 현재 수행하고 있는 한국연구재단의 2024년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과제명은 「일제강점기 한국 관련 팸플릿의 분석·번역·해제·이미지 DB 구축」이라는 연구 사업의 연구책임자를 담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선, 오늘 우리 연구소 입장에서는 이렇게 국내학술대회라는 첫걸음을 내딛게 되어 매우 뜻깊고, 그렇기에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더군다나 여러 선생님을 모시고 학술적인 토론과 함께 선생님들의 가르침과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기에 우리 연구소 구성원 모두는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역사·문화 이미지 자료의 수집과 분석, 나아가 DB 구축을 통해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역사관의 정립을 목표로 2019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연구소 설립을 위해 2016년에는 사진그림엽서를 주제로 개인 연구와 한국연구재단의 일반공동연구 2년, 그리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사진그림엽서 DB 구축 사업을 3년 간 수행해 왔습니다. 중간에 연구소 운영상의 위기도 잠시 있었지만, 2024년 작년 9월에 지금 수행하고 있는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앞으로 6년 간 의미 있는 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학술대회 주제가 「팸플릿을 펼치다, 경성을 만나다」라는 주제입니다. 팸플릿 DB 구축 사업과 연동된 주제이지만, 그간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팸플릿 관련 학술대회가 없었던 만큼 그 의미는 각별하기에 팸플릿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감히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기조 강연을 맡아 주신 동국대 조성운 선생님은 그간 일제에 대한 독립운동과 민족운동, 또 일제의 교육 및 식민정책, 나아가 조선물산공진회를 비롯한 식민지 지배의 선전과 프로파간다라는 측면에서 다대한 연구 성과를 발표하셨는데, 오늘 강연 주제가 「조선총독부의 시정선전」으로 팸플릿 연구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 더욱 학술대회의 의미를 깊이 있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제1부에서는 경상대 김제정 선생님께서 「식민지기 박람회 홍보 이미지 자료 연구」를 발표해 주시는데 팸플릿과 박람회는 필연적 관계인 만큼 저를 비롯해 참석하신 선생님들께 시사해 주는 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두 번째 발표는 서울대 서유리 선생님께서 「근대 시각문화사 연구의 사례-경성 사진엽서와 동아일보사 <경성백승>의 비교 연구」라는 주제를 발표해 주시는데, 이 역시 일제강점기의 시각자료와 일제의 선전 양상을 팸플릿과 비교해 보

는데 유효적절한 연구 시각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제2부의 발표는 우리 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이신 박영희 선생님과 최은경 선생님의 경성 팸플릿을 주제로 한 「1930년대 경성 팸플릿의 표지 연구」와 「1920~1930년대 관광팸플릿 경성 지도 속의 토포스」라는 주제입니다. 연구과제 1·2년차 DB 구축 자료가 경성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팸플릿의 DB 구축 만이 아니라, 이를 연구 분석하는 측면에서도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만, 여러 선생님들의 조언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토론의 장입니다. 좌장에는 부경대 명예교수님이신 장상언 선생님, 그리고 발표에 대한 토론으로 발표 순서대로 부산대 사학과와 이승희 선생님, 동아대 일본학과와 황익구 선생님, 해양대 동아시아학과 한현석 선생님, 동아대 사학과 하지영 선생님이 맡아 주시는데, 각기 전공하시는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시기에 활발한 논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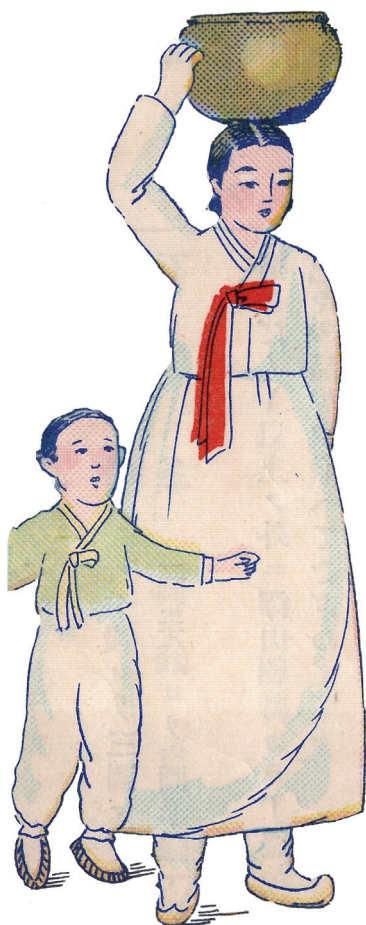
끝으로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가 근대 시기 한국과 일본 팸플릿 연구의 서장을 여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며 개회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31일(토)  
역사인문이미지연구소  
소장 신동규

기조강연

# 조선총독부의 시정선전

조성운(동국대)





# 조선총독부의 시정선전

일제 식민지배의 정당화와 동화정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선전 전략



## 목차

### 1. 서론

- 연구의 필요성
- 기존 연구의 한계
- 연구 목적 및 의의
- 연구 방법 및 구성

### 2. 시정선전정책의 배경

- 일제의 서구사회 콤플렉스
- 러일전쟁 이후 위상 변화
- 식민지 지배 정당화 필요성
  - 동화정책 추진

### 3. 근대관광을 통한 선전

- 독립협회의 근대관광 산업화
- 경인철도 개통 이후 본격화
  - 일본관광단 파견
- 만주 및 중국대륙 관광 확대

### 4. 박람회를 통한 선전

-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
- 1929년 조선박람회
- 협찬회 조직 및 활용
- 관람객 동원 전략

### 5. 기관지를 통한 선전

- 경성일보, 매일신보 발행
- The Seoul Press 영문 발행
- 조선총독부 관련 잡지 발간
  - 시기별 논조 차이

### 6. 정보기관을 통한 선전

- 조선정보위원회 설치
- 조선중앙정보위원회 설립
- 국가총동원정책 선전 역할
  - 시기별 활동 변화

# 서론



## 조선총독부 시정선전정책 연구의 필요성

- 조선총독부의 정책 특질과 변화를 파악하고 식민지 지배의 다층적 측면을 이해하고자 한다.
- 조선총독부의 시정선전정책 연구
  -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전략 이해에 중요하다.
  - 기존 연구는 언론통제에 집중해 종합적 시각이 부족했다.
- 연구의 목적
  - 다양한 선전 방식을 분석해 일제의 동화정책과 지배 정당화 전략을 밝힌다.
- 연구 방법
  - 1차 사료를 중심으로 근대관광, 박람회, 기관지, 정보기관 등을 통해 시정선전을 고찰한다.
- 연구의 목표

## 시정선전정책 배경



1

### 서구 콤플렉스



- 선진국 인정 욕구
- 문명국 이미지 구축
- 서구와 대등 희망
- 식민지 근대화 과시

2

### 위상 변화



- 러일전쟁 승리
- 제국주의 국가 부상
- 국제적 인정 추구
- 식민지 경영 자신감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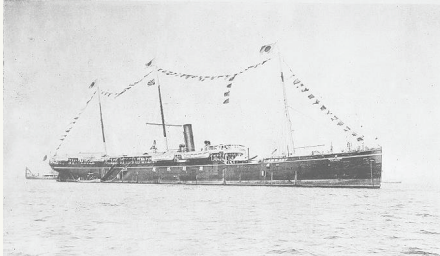
### 지배 정당화



- 식민 통치 합리화
- 문명화 사명 주장
- 동화정책 정당화
- 조선인 설득 필요



# 근대관광을 통한 시정선전



## 근대관광의 시작과 발전

- 역사적 사건
  - 1897년: 독립협회, 근대관광 산업화 주장
  - 1899년: 경인철도 개통으로 국내관광 활성화
  - 1904년: 한일합방 체결 후 일본관광 증가
  - 1905년: 부관연락선 개통
  - 1911년: 압록강철교 개통
  - 1912년: 일본여행협회 조선지부 설치

## 일제강점기 근대관광의 왜곡된 발전과 선전 활용

- 조선총독부의 역할
  - 근대관광을 통해 일제의 식민 통치 성과를 선전
  - 조선인의 동화를 추진
- 관광의 대상
  - 초기에는 조선 엘리트층을 대상으로 한 일본 관광이 주를 이룸
  - 1915 조선물산공진회를 준비하기 위한 국내(경성)관광단이 활성화
  - 점차 만주와 중국으로 범위를 확대
- 정당성 강조
  - 일제의 문명화 사업과 식민 지배의 정당성을 강조



## 근대관광을 통한 시정선전 (2)

경성일보사는 1909-1910년 일본관광단을 조직하여 조선 최상류층을 대상으로 일본 시찰을 진행했다. 이는 일제의 조선 강점을 앞두고 조선인 엘리트층을 설득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었다. 관광을 통해 일본의 선진 문물과 발전상을 보여줌으로써 식민 지배의 정당성을 주장하고자 했다.

### 1 1909-1910년 경성일보사 일본관광단



- 경성일보사 주최로 조직
- 조선 최상류층 대상
- 일본 문화와 발전상 소개
- 식민지화 필요성 설득 목적
- 관광을 통한 친일 세력 확대

1909년 제1차 일본관광단(『東京二六新聞』 1909년 4월 23일)

### 2 조선 최상류층 대상 식민지화 설득



人天氏龍發李 人夫氏九龍李 人夫氏龍發李 人夫氏龍發李 人夫氏龍發李

- 일본의 근대화된 모습 소개
- 조선과의 격차 강조
- 일제 통치의 필요성 주장
- 문화적 우월성 선전
- 친일 협력자 양성 목적

## 근대관광을 통한 시정선전 (3)



평화박람회 조선인 여자 간수

### 1920년대 초반 도쿄평화박람회

- 1922년 개최
- 전후 평화 강조
- 일본의 국제적 위상 과시
- 일본시찰단 파견

日本觀光團體數  
平和博覽會の開催を機として、日本各地を視察し、出立した団体は、計百九十二團、参加人員四千一百六十八名に達した。各道中最多は、慶尚南道の三十六團、八百三十三名、次いで京畿道、二十六團、六百十四名、平安北道、二十六團、五百九十一名、など이라더라

### 새로운 친일협력자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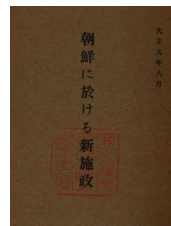
- 기존 친일파 영향력 감소
- 새로운 협력 세력 필요
- 중견 인물 대상 선정
- 일본 문화 체험 기회 제공



평화박람회 경성부시찰단

### 지방비로 관광 비용 보조

- 사회교과비 활용
- 사회교육비에서 지원
- 공적 자금으로 관광 추진
- 선전 효과 극대화 목적



### 3·1운동 이후 정책 변화

- 문화정치 표방
- 유화책 일환으로 관광 활용
- 조선인 엘리트 포섭 시도
- 식민 지배 정당화 노력

## 근대관광을 통한 시정선전 (4)

### 1920년대 중반 이후 만주 시찰 확대

- 만주 지역 관심 증가
- 관광 목적지로 부상
- 식민 지배 영역 확장 의도
- 만주 개발 선전 목적

### 1930년대 초반 중국대륙으로 확대

- 중국 본토로 관광 범위 확대
- 대륙 진출 야욕 반영
- 식민 지배 정당화 노력
- 아시아 패권 추구 표현

### 경제시찰단 구성과 연관

- 경제인 중심 시찰단 구성
- 산업 시설 방문 증가
- 경제 협력 가능성 모색
- 식민 지배의 경제적 이점 강조

### 만주 관광의 정보수집 성격

- 만주 지역 정보 수집 목적
- 군사적, 경제적 가치 평가
- 향후 침략 계획 수립 위한 자료 확보
- 관광을 통한 정보 활동 은폐

### 식민지배 시선의 대륙 확장

- 식민 지배 관점의 대륙 인식
- 계국주의적 팽창 욕구 반영
- 아시아에 대한 우월의식 표출
- 대동아공영권 사상의萌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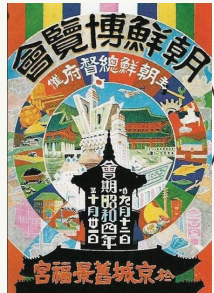
## 박람회를 통한 시정선전 (1)

조선총독부는 대규모 박람회를 통해 식민 통치의 성과를 과시하고 선전하였다. 1915년과 1929년의 박람회는 각각 시정 5주년과 20주년을 기념하는 대표적인 행사였으며, 이를 통해 조선의 산업 발전과 일제의 통치 업적을 홍보하고자 하였다.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

- 시정 5주년 기념
- 조선 산업 발전 과시
- 식민 통치 정당화



1929년 조선박람회

- 시정 20주년 기념
- 대규모 산업 전시
- 문화 통치 선전



협찬회 조직 및 활용

- 도·군 단위 조직
- 관람객 동원 역할
- 지역 홍보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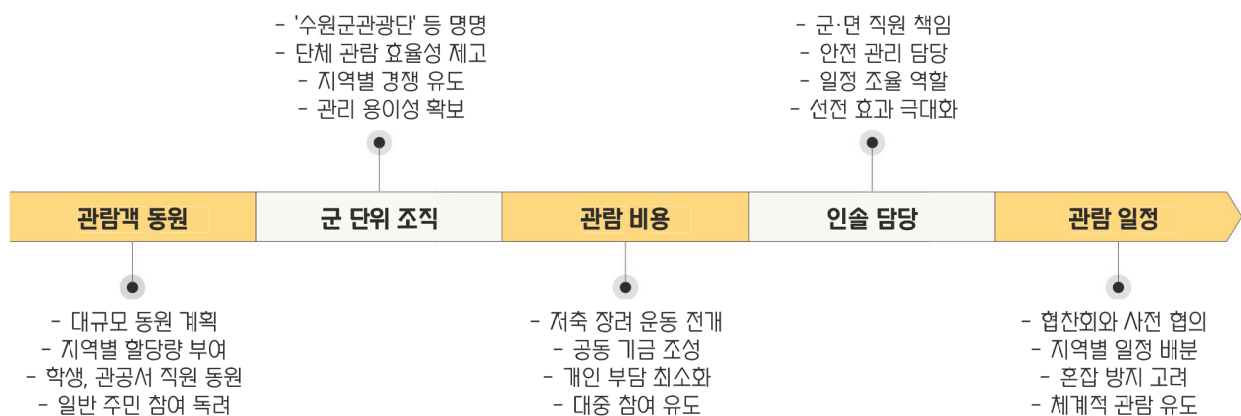


지방민 관람 장려

- 단체 관람 유도
- 근대화 성과 홍보
- 식민 지배 인식 확산

## 박람회를 통한 시정선전 (2)

박람회의 성공을 위해 조선총독부는 체계적인 관람객 동원 전략을 수립하였다. 지역별로 관람객 수를 할당하고, 군 단위로 관광단을 조직하여 단체 관람을 유도하였다. 관람 비용 마련을 위한 저축을 장려하고, 관람 일정과 숙박을 사전에 조율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대규모 동원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 박람회를 통한 시정선전 (3)



1

### 지방 중견인물 활용



- 지방의 중견인물 선별 참여
- 박람회 관람 기회 제공
- 지역사회 영향력 활용
- 조선총독부 정책 지지 유도

2

### 박람회 관람 소감 전파



- 관람 후 지역사회에 경험 공유
- 박람회의 규모와 성과 전달
  - 근대화 진전 강조
- 일제 통치 정당화 도구화

3

### 일본시찰단과 유사한 역할



- 일본 문화와 기술 소개 역할
- 지방민에게 선진 문물 전파
- 식민 통치 합리화 수단
- 친일 협력 기반 확대

## 기관지를 통한 시정선전 (1)



### 조선총독부의 주요 기관지 발행

- 조선총독부의 활동
  - 기관지를 통해 시정선전을 펼쳤다.
  - 식민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정책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 주요 기관지
  - 신문과 잡지가 있었다.
  - 이를 통해 국내외에 조선총독부의 정책과 업적을 알리고자 했다.

### 신문과 잡지를 통한 시정선전 전략

- 신문: 경성일보, 매일신보, The Seoul Press
- 잡지: 조선총독부월보, 조선위보, 조선
- 목적: 국내외 시정 선전, 식민 통치 정당화

# 朝鮮日報

大正四年三月一日

## 기관지의 특성

조선총독부 기관지는 식민 통치를 위한 중요한 선전 도구였다. 시기와 대상에 따라 논조를 달리하며, 때로는 조선총독부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식민 지배의 정당화와 조선인의 일본인화를 추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 1 기관지의 역할과 특징

- 조선총독부 정책 홍보
- 식민 통치 정당화 논리 제공
- 조선인 대상 동화 정책 선전
- 재조 일본인 이해 대변
- 국제사회 대상 선전 도구

### 2 조선총독부와의 관계

- 기본적으로 협력 관계 유지
- 재조 일본인 이해 대변 시 갈등
- 정책 비판 시 제한적 허용
- 시기별 총독 정책에 따른 변화
- 언론 통제와 활용의 이중성

## 정보기관을 통한 시정선전 (1)

大正十二年三月  
情報彙纂 第四  
朝鮮評論(KOREA REVIEW)  
布哇米國新聞刊行物及通信  
記事摘要  
朝鮮情報委員會

### 조선정보위원회 설치 배경

- 3·1운동 이후 선전 필요성 증대
- 식민 통치 정당화 요구 증가
- 대내외 여론 관리 목적
- 체계적 정보 관리 필요성 인식

### 임시기구로서의 특성

- 한시적 운영 계획
- 유연한 조직 구조
- 실험적 성격의 활동
- 정규 기관으로 전환 가능성

### 주요 활동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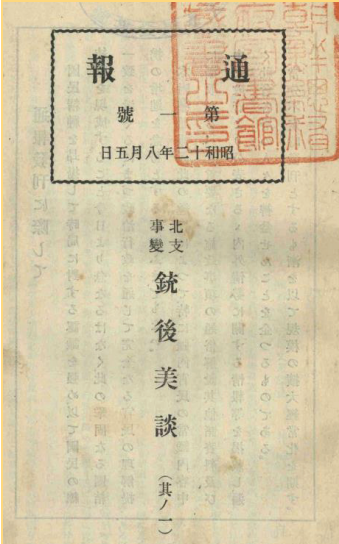
- 일본 및 외국에 조선 사정 소개
- 조선에 일본 사정 소개
- 시정의 진상 조사 및 소개
- 시정방침의 주지·보급

### 조선정보위원회의 영향

- 체계적 정보 선전 기반 마련
- 조선총독부 정책 홍보 강화
- 국내외 여론 형성에 기여
- 후속 정보기관 설립의 토대



## 정보기관을 통한 시정선전 (2)



### 조선중앙정보위원회 설치

-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직후 설치
- 조선인 대상 전쟁 협조 유도
- 내선융화 정책 강화 목적
- 조선정보위원회 기능 확대

### 내각정보위원회와의 관련성

- 일본 내각정보위원회 설치에 따른 대응
- 중앙과 지방 정보 네트워크 구축
- 정보 수집 및 분석 체계화
- 대일본 정보 전달 창구 역할

### 국가총동원정책 선전 역할

- 국가총동원법 관련 선전 주도
- 전시 동원 정당화 논리 개발
- 물적·인적 자원 동원 홍보
- 전쟁 협조 분위기 조성

### 전시 체제하 정보 통제 및 선전

- 언론 및 출판물 검열 강화
- 전쟁 관련 정보 통제 및 왜곡
- 애국심 고취 프로파간다 제작
- 반전 여론 차단 및 친일 여론 형성

### 조선중앙정보위원회의 유산과 영향

- 전시 선전·선동의 모델 제시
- 식민지 정보 통제 체계 확립
- 해방 후 한국 정보기관에 영향
- 전쟁 협력 강요의 역사적 교훈

## 시정선전정책의 특징



### 조선총독부 시정선전정책의 주요 특징과 변화

- 동화정책 추진
  - 조선인의 일본인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
- 시기별 선전 방법 변화
  - 관공, 박람회, 기관지, 정보기관 활용
- 대상별 차별화된 전략
  - 조선인, 재조일본인, 일본, 서구 대상
- 근대화 선전
  - 일제의 식민 지배가 조선의 발전을 가져왔다는 주장
- 다양한 매체 활용
  - 신문, 잡지, 그림엽서 등을 통한 광범위한 선전
- 대규모 행사 개최
  - 조선물산공진회, 조선박람회 등을 통한 시정 홍보
- 정보기관 설립
  - 조선정보위원회, 조선중앙정보위원회를 통한 체계적 선전



## 결론

- 조선총독부의 시정선전정책

-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고 조선인의 일본인화를 추진했다.
- 다양한 방법으로 일제의 '문명화' 사업을 선전하며 조선의 근대화가 일제 덕분이라는 인식을 심으려 했다.

- 왜곡된 선전

- 이는 조선인의 실제 삶과 괴리된 왜곡된 선전이였다.

- 향후 연구

- 이러한 선전정책의 실제적 영향과 저항 양상을 깊이 있게 살펴봐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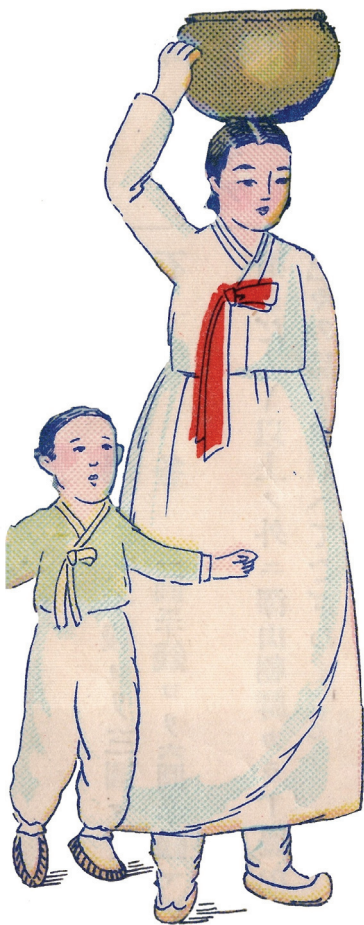


제1부 - 발표 1

# 식민지기 박람회 홍보 이미지 자료 연구

발표: 김제정(경상국립대)

토론: 이승희(부산대)





## 식민지기 박람회 홍보 이미지 자료 연구

김제정(경상국립대학교)

### 【 목 차 】

1. 머리말
2. 조선박람회 홍보 이미지의 제작과 내용
  - 1) 포스터의 현상 모집과 당선자
  - 2) 홍보 이미지의 내용 : 경복궁과 경관을 중심으로
3. 일본의 1928년 大禮記念博覽會와의 비교

### 1. 머리말

박람회는 근대 자본주의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시작되었다. 곧이어 제국주의 정책과도 연결되어 나갔지만, 산업의 발전을 과시하고 그 진흥을 도모한다는 목적은 기본적으로 내포하고 있었으며, 이는 식민지 조선에서 개최된 박람회도 마찬가지였다.

1929년 조선박람회는 9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50일 동안 始政 2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한 큰 규모의 박람회였다.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와 1940년 조선대박람회와 함께 식민지기 조선총독부가 주최한 대규모 박람회 중 하나였다. 조선총독부가 조선박람회를 개최한 목적은, 식민통치 20년간 자신들이 발전시킨 식민지 조선의 모습을 내외에 선전하고, 경제불황기인 당시 이를 타개하고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박람회 개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외에서 최대한 많은 관람객을 끌어모아야 했고, 이를 위해 활발한 홍보선전 활동을 펼쳤다. 조선박람회의 홍보선전 활동에는 두 주체가 있었는데, 하나는 주최자인 조선총독부, 다른 하나는 경성협찬회였다. 경성협찬회는 조선총독부를 충실하게 보조하며 박람회장 안팎에서 전반적인 실제 운영을 담당한 조직이었고, 당연히 홍보선전 활동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sup>1)</sup>

### 2. 조선박람회 홍보 이미지의 제작과 내용

#### 1) 포스터의 현상 모집과 당선자

1929년 조선박람회는 조선총독부 주최로 개최되었다. 총독부는 조선박람회 관련 사무를 진행하기 위해, 1929년 5월 25일 조선박람회사무국을 설치하고,<sup>2)</sup> 고다마 히데오(児玉秀雄) 정무

1) 경성협찬회의 활동 전반에 관해서는 朝鮮博覽會京城協贊會, 『朝鮮博覽會京城協贊會報告書』 1930을 참고할 수 있다.

2) 「朝鮮總督府告示第207號」 『官報』 제733호, 1929년 6월 13일. 조선박람회사무국은 1930년 1월 31일 폐쇄하였다. 「朝鮮總督府告示第41號」 『官報』 제922호, 1930년 1월 31일

총감이 事務總長를 맡은 것을 비롯하여, 관련 국과장들로 사무국을 구성하였다. 홍보선전을 포함한 조선박람회 준비 활동은 이 사무국에서 시행하였다.

조선총독부는 박람회를 전국적으로 선전하기 위하여 포스터를 제작하기로 하고, 포스터 도안을 현상 모집하였다. 개최하기 1년도 더 전인 1928년 7월에 모집 공고를 냈는데, 조선총독부가 제시한 포스터의 도안 조건은 “朝鮮 文化의 向上 及 宣傳을 主體로 한 朝鮮에 關聯한 것을 加味”할 것이었다. “포스타의 意匠은 朝鮮의 事情을 中外에 展示하며 此를 宣傳함에 適切한 것, 意匠 資料는 任意이나 그 全部 又は 一部에는 반드시 朝鮮에 因緣이 있는 것을 採用할 일”이라는 것이었다.<sup>3)</sup> 즉 포스터의 디자인에 조선과 관련된 것을 반드시 넣도록 하여 조선과의 연관성을 중시하였고, 식민통치의 결과로 발달한 조선의 모습을 적절하게 선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다.

자세한 포스터 규정은 7월 12일에 발표되었는데, 도안 속에 조선박람회라는 명칭, 會期가 昭和4年(1929년) 9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라는 것과 조선총독부가 주최한다는 것, 그리고 개최 장소가 ‘京城舊景福宮’이라는 것을 기입하도록 하였다.<sup>4)</sup> 그 외에 도안 용지는 紙質이 강한 것으로 하며, 크기는 세로 3尺 5寸, 가로 2尺 5寸으로 규정하였고,<sup>5)</sup> 色刷度數는 10색 이내로 하였다. 응모 매수는 제한이 없었다. 또 도안에 관한 모든 권리는 조선총독부에 귀속되는 것으로 하였다.

응모작은 1928년 11월 15일까지 경성에 있는 조선총독부 상품진열관으로 보내야 했다. 응모작 가운데 심사를 거쳐 1928년 12월에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심사위원은 東京美術學校 교수 오카다 사부로스케(岡田三郎助),<sup>6)</sup> 시마다 요시나리(島田佳矣),<sup>7)</sup> 마쓰오카 테루오(松岡輝夫)<sup>8)</sup>로 구성하였다. 상금은 1등 1명에 5백 원, 2등 1명에 3백 원, 3등은 2명으로 각 백 원이었다. 일체의 관련 사무는 조선총독부 殖産局 商工課에서 처리하였다.<sup>9)</sup>

조선박람회 포스터 도안의 현상 모집에는 많은 작품이 응모하였다. 마감일인 11월 15일까지 250매가 응모하였다. 심사는 조선이 아닌 도쿄에 있는 조선총독부 출장사무소에서 진행되었다. 11월 25일 식산국장 및 상공과장이 입회한 가운데 세 명의 심사위원이 논의한 결과 4점이 당선작으로 선정되었다. 1등에는 시로 벤이치로(城勉一郎), 2등에는 도바야마 치에코(外波山知繪子), 3등에는 오쿠마 기요시(大隈潔)와 와타세 요시히사(渡瀬義久)가 선정되었다. 그리고 이 외에 選外佳作으로서 4점을 더 선정하여 이들에 대해서는 각각 30원의 상금을 수여

3) 「大賞金をかけて朝鮮博ポスター、總督府で募集する」『朝鮮新聞』1928년 7월 6일 ; 「朝鮮博의 『포스타』圖案」『中外日報』1928년 7월 9일

4) ‘구경복궁’이라는 표현을 두고 동아일보에서는 그렇다면 ‘신경복궁’은 어디에 있는가라며 비판하였다. 「橫說豎說」『東亞日報』1928년 12월 16일

5) 현재 도량형으로 환산하면 세로 약 115cm, 가로 약 83cm로 상당히 큰 것이었다.

6) 오카다 사부로스케(岡田三郎助)는 1869년생으로 프랑스에 유학했던 서양화가였다. 당시로서는 50대 후반의 중견 화가였다. 版畫家이기도 하여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1937년 제1회 문화훈장을 수상하였다. <https://www.ndl.go.jp/portrait/datas/6348/> ; <https://ja.wikipedia.org/wiki/岡田三郎助>

7) 시마다 요시나리(島田佳矣)는 1868년생으로 역시 당시 60세의 중견화가였다. 시마다는 독창성이나 예술성보다는 圖案意匠, 즉 디자인을 중시하는 ‘工藝未來派’로 분류된다. 따라서 그는 東京美術學校에 오기 전 東京高等工業學校 교수를 역임하기도 하였다. 『人事興信錄』 第8版, 1928, シ60쪽 ; <https://ameblo.jp/kanazawa-saihakken/entry-11264279168.html>

8) 마쓰오카 테루오(松岡輝夫)는 1881년생으로 당시 40대 중반으로 세 심사위원 중 가장 젊었다. 마쓰오카 에이큐(松岡映丘)라는 예명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그는 일본화가로 1920년대 新興大和繪會를 창설하여 야마토에(大和繪)의 부흥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https://ja.wikipedia.org/wiki/松岡映丘>

9) 「朝鮮博覽會ポスター、諸規程發表」『朝鮮新聞』1928년 7월 13일 ; 「포스타圖案 懸賞募集 총독부에서」『毎日申報』1928년 8월 10일

하였다. 이들 네 명은 핫토리 다케코(服部武子), 나카야마 슈조(中山修三), 나카지마 고로(中島五郎), 그리고 鹽濱路舟意匠部였다. 당선자 총 8명 가운데 조선인은 없었다. 모두 일본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京城府 本町5丁目 印刷局工場の 시로와, 京城府 御成町27로 주소가 기입되어 있는 鹽濱路舟意匠部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교토, 나고야, 오사카, 가나자와 등 일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었다.<sup>10)</sup>

1등으로 당선된 시로 벤이치로(城勉一郎)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이 없다. 1928년 말 당선 당시 주소가 '京城府 本町5丁目 印刷局工場'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곳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데,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에는 1933년부터 1935년까지 조선총독부 專賣局 製造課의 월수당 60원의 囑託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sup>11)</sup> 시로는 메이지미술학교(明治美術学校)에서 1년간 공부한 후, 구로다 세이키(黒田清輝)의 문하에 들어가 도쿄미술학교(東京美術学校) 서양화과 選科를 졸업하였다. 1903년 3월부터 1905년 2월까지 노자와중학(野沢中学)의 圖畫 교원으로 근무하였다.<sup>12)</sup> 이후 언젠가 조선으로 건너온 것으로 보이는데, 1922년 조선미술전람회에서 '經板閣'이라는 작품으로 입선하였고, 1927년 제6회 조선미술전람회에서는 '經學院經判閣'이라는 작품으로 입선하였는데, 두 번 모두 주소지가 경성으로 기재되어 있었다.<sup>13)</sup>

포스터를 제작한 조선총독부는 부산, 광주 등 각지에서 조선박람회 포스터 전람회를 개최하였다. 부산에서는 4월 13일부터 19일까지 경상남도 물산진열관에서 포스터 전람회를 개최하였는데, 매일 수천 명의 관람객이 왔다고 한다. 응모한 270점 가운데 당선작뿐만 아니라 우수한 150점의 原圖를 진열하였고, 이를 대상으로 인기투표를 해서 입선자에게 상품을 주었다. 광주 물품진열소 옥상에서 개최한 조선박람회 포스터전에는 일주일간 관람객이 무려 5천 명이나 다녀가는 성황을 이뤘다.<sup>14)</sup>

조선박람회 사무국에서는 1929년 여름 우선 1등작 포스터를 10만 매 인쇄하여 배포하였고, 다시 2등작 포스터는 5만 매를 제작하여 각지에 배송하였다. 조선과 일본을 비롯하여 대만, 樺太, 만주 방면에도 발송하였다.<sup>15)</sup>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조선총독부는 조선박람회를 홍보하기 위한 포스터를 제작하기로 하고, 그 도안을 현상 모집하였다. 이때 제시된 포스터의 디자인 조건은 조선과의 연관성을 중시하고, 식민통치의 결과로 발달한 조선의 모습을 선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었다. 1928년 12월에 당선작을 발표하였는데, 심사위원이 모두 일본의 대학교수였을 뿐만 아니라 심사 과정도 일본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선외가작까지 포함한 총 8명의 당선자는 모두 일본인이었으며 재조일본인 두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본인이었다.

<그림1>이 1등으로 선정된 시로의 조선박람회 포스터이다. 선정 이유로는 “경희루, 근정전

10) 「朝博ポスター一等は京城方印刷局の城氏」『朝鮮新聞』 1928년 12월 11일

11)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 1933·1934·1935년판

12) 金子一夫, 「明治期中等学校図画教員の研究(7)-東京府・中部地方-」, 『茨城大学教育学部紀要(人文・社会科学, 芸術)』 40, 1991, 26쪽

13) 「美展入選」『毎日申報』 1922년 5월 31일 ; 「第六回朝鮮美術展覽會 入選作品發表」『毎日申報』 1927년 5월 21일

14) 「조선박람회 포스타전과 점두 장식 경기회」『부산일보』 1929년 3월 23일 ; 「釜山で開催の朝博ポスター展百五十點を陳列, 一般觀衆の審査を乞ふ」『朝鮮新聞』 1929년 4월 14일 ; 「釜山で開催の朝博ポスター, 展覽會賑ふ」『朝鮮新聞』 1929년 4월 20일 ; 「光州で開いた朝博ポスター展, 觀覽者多數盛況を極む」『朝鮮新聞』 1929년 7월 11일 ; 「朝博포스타展 盛況裡에 閉會」『毎日申報』 1929년 7월 11일

15) 「朝博ポスター五萬枚を, 各地に配送」『朝鮮新聞』 1929년 7월 10일 ; 「ポスター五萬部發送」『朝鮮新聞』 1929년 8월 7일

을 중앙에 두고 조선의 산업을 교묘히 배치해 너무 복잡한 모습은 있지만, 구도와 색채 모두 훌륭하게 되었다.”라고 하였다.<sup>16)</sup>

전체적인 구도는 동심원 구조이다. 동심원의 가운데에는 경회루와 근정전이 원경으로 배치되어 있고, 근경으로는 근대 건축양식의 전시관이 일장기와 함께 도드라지게 그려져 있다. 바깥쪽 원에는 각종 전시 내용이 나타나 있는데, 오른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보면 공업, 축산, 교육, 어업, 전기·채신, 금융, 공장, 회사, 광업, 교통, 농업, 임업 등을 그림으로 표시하였다. 그리고 도안의 필수 요소였던 행사 명칭, 주최, 회기, 장소 등이 위에서부터 차례로 표기되어 있다. 회기와 장소는 전통 건축물의 실루엣 위에 쓰여 있는데, 가운데 회기 부분의 실루엣은 어떤 건물인지 불분명하나, 하단의 장소가 적혀 있는 실루엣은 광화문으로 보인다. 광화문은 조선총독부 청사 건립으로 경복궁 동편으로 이전했으나, 여전히 조선박람회의 주출입문으로 사용되었다.

동심원의 가운데 있는 근대식 건축물은 1928년 일본에서 개최된 大禮記念博覽會 당시 주요 전시관의 건축양식이었던 아르 데코(Art Déco) 양식으로 보인다. 아직 조선박람회 전시관이 만들어지기 전이었으므로, 포스터 제작 당시 일본의 박람회 건축양식을 참고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실제 조선박람회 주요 전시관의 ‘조선식’ 건축양식과는 차이가 있었다.<sup>17)</sup>

1등으로 입상한 시로의 도안과는 달리, 2등으로 당선된 <그림2>의 도바야마 도안은 사용된 흔적을 찾기 어렵다. 당시 신문에 “緋色이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받으며 이미지가 게재되기는 하였으나,<sup>18)</sup> 실제 포스터뿐만 아니라 팸플릿 혹은 그림엽서의 봉투에도 사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신문에 실린 흑백의 모습으로만 볼 수 있을 뿐이다. 내용상 특기할 만한 부분도 없다.

## 2) 홍보 이미지의 내용 : 경복궁과 경관을 중심으로

박람회 홍보 이미지에서는 개최 장소인 경복궁을 상징하는 경회루와 근정전, 광화문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박람회장인 경복궁과 주변 경관, 특히 전통 건축물에 대한 조선총독부를 비롯한 당시의 일반적인 인식은 부정적이지 않았으며, 새로 지어진 서구식 전시관에 비해 낙후된 것이라는 인식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총독부가 경복궁을 박람회장으로 선택한 것은 ‘공공공간화’이자 ‘탈권위화’라고 평가할 수 있다. 나중에 조선총독부 청사가 들어섰다는 것을 떼어놓고 박람회장만 생각하면, 탈권위화이지 권력 공간으로의 재소환은 아니었다. 오히려 공원화에 가까운 것이었다.

아주 똑같은 않지만 도쿠가와 막부의 사원지였다가 박람회장을 거쳐 공원화된 도쿄의 우에노공원의 사례가 비교될 수 있다. 대한제국 황실의 공간이었다가 온실과 동물원이 들어서 공원화된 창경궁의 사례도 들 수 있다. 더구나 조선물산공진회가 준비되는 1910년대 초반이 이전 정치권력의 공간을 파괴하였던 메이지 전반을 지나, 보존의 필요성을 느끼고 문화재로 지정하여 공원화로 방향을 전환했던 메이지 후반이었다는 것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sup>19)</sup> 따라서

16) 「朝博ポスター」『朝鮮新聞』1928년 12월 14일

17) 조선박람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전시관이 ‘朝鮮式’으로 건립되는 등 전반적으로 ‘朝鮮色’이 강조되었다는 것이다. ‘조선식’ 전시관은 조선박람회 건축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다. 당시 조선총독부 고위 관리들이 지역적 정체성을 갖게 되고, 조선의 지역적 이해관계를 나타내는 정책이 나타난 것이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김제정, 「식민지기 박람회 연구 시각과 지역성」『도시연구』9, 도시사학회, 2013, 11~17쪽

18) 「朝博ポスター」『朝鮮新聞』1928년 12월 14일

19) 공원화로의 방향 전환도 자국의 경우에 그러한 것이었지, 식민지에서는 흔치 않았다.

기존의 권력 공간인 경복궁을 박람회장으로 이용한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의 사례는 일반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조선총독부는 경복궁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탈권위화하되 그 가치는 부정하지 않으며 재전유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일본은 조선물산공진회를 개최하면서 경복궁 많은 전각을 훼손하였지만, 광화문과 근정전 등 경복궁의 중심 라인, 그리고 경회루 등은 온존시켜 박람회 전시관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에 포스터 등 홍보 이미지 자료에 궁궐 등 전통 건축물이 많이 등장하였다.

궁궐 건축물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것은 경회루였다. 박람회의 포스터에 가장 많이 등장할 뿐만 아니라, 입장권, 그림엽서, 기념품 등에도 빠짐없이 그려져 있다. 조선박람회의 경우가 특히 그러했다.<sup>20)</sup> <그림4>와 <그림5>의 1929년 조선박람회 입장권에도 동일한 경회루의 그림이 보이고, <그림7>, <그림8>, <그림9>, <그림11>의 경성협찬회 발행 그림엽서에도 경회루가 빠짐없이 등장하였다. <그림13>의 요시다 하사부로가 그린 팸플릿에도 경회루가 보인다. <그림16>은 1929년 조선박람회의 기념성냥인데 여기에도 경회루가 그려져 있다.<sup>21)22)</sup> 심지어 <그림19>의 황해도 안내 팸플릿에도 경회루가 등장하였다.<sup>23)24)</sup>

또 <그림18>과 같이 1929년 조선박람회 때 경회루에 전등을 달아 야경을 연출하기도 하였는데, 야경을 위한 점등을 경회루만 한 것은 아니었지만 가장 많은 전등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박람회장 안에 모두 3,902개의 전등이 있었는데 그중 1,290개가 경회루에 장식되어 있었다. 박람회가 끝나갈 즈음에는 경회루 연못에서 불꽃놀이도 하였다.<sup>25)</sup> 이처럼 1910년대부터 경회루를 가장 전면에 부각한 것은, 연못과 같이 있는 미적으로 가장 수준 높은 건물이었었던 데다가, 근정전 등 다른 주요 건물에 비해 정치색이 강하지 않았다는 것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sup>26)</sup>

경회루는 식민지기 각종 행사의 개최 장소를 활용되었고, ‘유회’와 ‘명랑’,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는 문화소비 공간으로 기능하였다. 경회루는 가장 인기 있고 잘 팔리는 랜드마크로서, 엽서를 비롯한 다양한 시각 자료에 활용되었다.<sup>27)</sup> 이처럼 경회루를 가장 전면에 부각한

20)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 때는 포스터와는 달리 다른 이미지 자료에는 궁궐 건축물이 등장하지 않는다. <그림3>의 관람권·야간입장권에는 서구식 전시관 그림이 있고, <그림6>의 엽서에는 서구식 전시관 뒤로 지붕만 보일 뿐이다.

21) 참고로 이 성냥 역시 조선총독부 조선박람회 사무국에서 만든 것이다. 박람회 그림이 들어간 성냥 약 5만 개를 만들어, 조선은 물론 일본, 대만의 담배판매점, 식당, 열차 등에 무상으로 배포하였다. 성냥은 성냥과 은단 등을 만드는 회사로 부산에 소재하고 있었던 東洋燐寸(주)에서 제조하였다. 「朝博繪入マッチ 五十萬箱を全國に配布」『釜山日報』1929년 3월 30일

22) 박람회 홍보용으로 성냥을 만드는 것은 조선박람회뿐만 아니라 이 시기 일본의 박람회에 흔히 있는 일이었다. 뒤에서 살펴볼 1928년 大禮記念京都大博覽會와 1935년 臺灣博覽會 때에도 포스터 도안을 이용하여 성냥 라벨을 만들었고, 이를 홍보용으로 활용하였다. 昭和 초기에 포스터와 함께 성냥이 중요한 선전 미디어로서 인식되고 있던 것이다. 並木誠士, 「大禮記念京都大博覽會 ポスター」『KIT NEWS』31, 京都工芸繊維大学広報センター, 2012.11, 11쪽

23) 물론 경회루만 등장한 것은 아니어서 <그림17>의 1929년 조선박람회 기념 목재엽서에는 경회루가 아닌 남대문이 그려져 있었고, <그림12>의 1929년 조선박람회 엽서 봉투에는 광화문 그림이 보인다.

24) 원래 각도의 홍보물에는 각 도의 관광지나 특산물을 내세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평남협찬회가 발행한 <그림10>의 1929년 조선박람회 그림엽서(평안남도)에 대동문을 형상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평남관을 그려 넣은 것이 전형적인 사례이다.

25) 이각규, 『한국의 근대박람회』, 커뮤니케이션북스, 271쪽

26) 다만 많은 전각이 훼손되어 경복궁이 궁궐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황에서 경회루를 포함한 궁궐의 구성 요소들은, 궁궐의 유기적 구성요소라기보다 ‘해체된 궁궐’로부터 분리되어 궁궐의 구성요소라는 맥락을 상실한 유적으로 위치했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27) 김경리, 「경성의 시대가 만든 사진그림엽서 경회루의 서사와 표상-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까지-

것은, 연못과 같이 있는 미적으로 수준 높은 건물이었던 데다가, 다른 주요 건물에 비해 정치적 의미가 강하지 않았다는 점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한편,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팸플릿의 도안이 <그림13>이다. 팸플릿 도안의 새는 봉황으로 천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그림에도 경희루가 나온다. 이것은 현상 모집에서 당선된 도안이 아닌 요시다 하츠사부로(吉田初三郎)의 작품이다. 조선총독부 상공과에서 요시다에게 아래 <그림20>의 朝鮮博覽會圖繪 제작을 의뢰하였는데, 그때 이 도안도 같이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요시다의 지도제작자이자 예술가로, 평생 3,000점 이상의 조감도를 그렸고, ‘初三郎式繪圖’라고 불리는 독자적인 作風을 확립하였다. 1913년 京板電車案内圖를 시작으로 파노라마와 같이 가로가 넓어진 화면에 어안렌즈의 개념을 도입하고 철도 등 교통망을 화면 구성의 근간으로 삼아 전통적인 지도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공간 이미지를 창출해 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생긴 변용과 왜곡의 가능성은 조감도를 제작하는 목적과 그 용도에 따라 대상을 자유롭게 변모시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냈고, 그 가능성을 제국의 시선으로 채워 넣었다.<sup>28)</sup>

한편 요시다의 우리에게도 낯익은 지도를 여러 차례 그렸는데, <그림20>의 朝鮮博覽會圖繪도 그의 작품이다. 이 지도도 총독부의 박람회 선전 활동에 활용되었는데, 총독부는 조선뿐만 아니라 일본과 대만 등지에 큰 광고판을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요시다에게 경성안내도 제작을 의뢰하였다. 이 결과물이 위의 조선박람회도회로, 각 지역 100여 곳의 광고판에 이용되었다.<sup>29)</sup>

이와 같이 조선박람회 포스터는 비롯한 홍보 이미지에는 경희루와 광화문 등 경복궁의 전통 건축물이 많이 사용되고, 조선의 각종 산업과 문화가 표시되는 등 조선총독부가 제시한 도안 조건에 비교적 충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희루는 가장 대표적인 상징물로서 다양한 홍보물에 사용되었다. 다만 조선총독부에서 별도로 의뢰한 요시다 하츠사부로의 팸플릿에는 경희루가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천황의 상징인 봉황이 그려져 있는 등 포스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 3. 일본의 1928년 大禮記念博覽會와의 비교

1929년 조선박람회의 홍보 포스터를, 비슷한 시기에 열린 대규모 박람회인 일본의 1928년 大禮記念博覽會와 비교해보고자 한다. 일본에서는 1928년 11월 10일 거행된 昭和天皇의 즉위식을 기념하여 주요 도시에서 大禮記念国産振興東京博覽會, 御大典奉祝名古屋博覽會, 大禮記念京都大博覽會가 개최되었다.

우선 세 박람회의 개요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개최된 것은 大禮記念国産振興東京博覽會였다. 東京商工会議所에서 주최하였고, 명칭에 ‘국산 진흥’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국산품의 진흥과 보급을 위한’ 박람회였다.<sup>30)</sup> 회기는 1928년 3월 24일부터 5월 27일

」『서울과 역사』 109, 서울역사편찬원, 2021

28) 정보샘, 「1929년 조선박람회와 요시다 하츠사부로의 조선 조감도」 『미술사연구』 37, 미술사연구회, 2019

29) 「各地에 宣傳板 총수가 씩여개」 『毎日申報』 1929년 3월 17일 ; 「各地에 案内板 新安선단」 『毎日申報』 1929년 4월 3일. 기사에서 광고판의 크기를 길이가 4間, 넓이가 1間半이라고 하였는데, 약 730cm, 270cm에 달하는 크기였다.

30) 1920년대 후반부터 일본에서는 경제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산애용운동이 전개되었다. 이 운동을 두 시기로 구분하여, 제1기는 國産振興運動, 즉 ‘국산진흥운동’의 일부로서의 국산애용장려의 시기로, 제2기는 國産愛用運動, 즉 금해금 당시의 대책으로서 唱導된 산업합리화 정책의 일환으로서의 국산애



까지였고, 우에노공원(上野公園)에서 열렸으며, 총 관람객 수는 약 223만명이었다. 大禮記念館 등 주요시설은 아르데코(Art Déco) 양식을 채용하였다. 건축양식은 다른 도시에서 개최된 박람회에서도 유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御大典奉祝名古屋博覽會이다. 이 역시 천황 즉위식 축하 행사로서 개최되었으나, 실질적인 내용은 당시 부진에 빠진 나고야의 산업진흥을 도모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회기는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였으며, 관람객은 194만명이었다.<sup>31)</sup>

마지막으로 大禮記念京都大博覽會이다. 교토는 천황의 즉위식이 열린 장소로, 박람회 또한 가장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교토부(京都府)가 주최하였고, 그 일정도 9월 20일부터 12월 25일 까지로 다른 도시의 박람회보다 길었다. 회장은 종래 박람회가 열리던 오카자키공원(岡崎公園) 외에 구 교토형무소 터를 西會場으로, 교토은사박물관을 南會場으로 하여 세 군데에서 개최되었다. 총 관람객 수는 약 318만명이었다.

이제 일본 大禮記念博覽會의 포스터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大禮記念國產振興東京博覽會의 경우, 박람회 폐회 후 발간된 『大禮記念國產振興東京博覽會事務報告』에 포스터 제작 및 배포 과정이 설명되어 있다. 포스터는 두 차례 제작되었는데, 먼저 국산 진흥의 의미를 가진 박람회 선전을 위해 포스터의 도안을 현상모집하는 것으로 하여, 1926년 11월 3일부터 9일까지 여러 신문에 광고하였고 응모자는 모두 123명이었다. 심사위원으로는 도쿄미술학교장 마사키 나오히코(正木直彦), 도쿄고등공예학교장 마쓰오카 히사시(松岡壽), 도쿄실업조합연합회 회장 호시노 사쿠(星野錫)의 세 명을 위촉하였다. 심사 결과 상금 300원의 1등에는 도바야마도 안소(外波山圖案所, 교토시)가,<sup>32)</sup> 상금 100원의 2등에는 모모카와 고지(百川高次, 나고야시)가, 상금 50원의 3등에는 나가이 요시로(永井義郎, 도쿄고등공예학교 학생)가 각각 당선되었다. 주최 측에서는 1등 당선자의 것을 채용하되 다소의 수정을 가하여, 1927년 11월 약 3만 매를 제작하였다. 이를 전국 각 상공회의소, 각 역, 공공단체, 시내 浴場, 여관, 백화점 등은 물론 멀리 식민지 방면에도 배포하였다. 1차 포스터 배포 후, 1928년 2월에는 도쿄고등공예학교 교수 미야시타 다카오(宮下孝雄)에게 특별히 도안을 依頼하였고, 새로운 포스터를 제작하여 이를 전국에 배포하였다.<sup>33)</sup>

이처럼 당시 공식적인 자료에 포스터를 현상모집하여 제작, 배포하였다는 기록은 있으나, 포스터 이미지를 찾을 수 없었다. 다른 박람회 포스터의 이미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으로 御大典奉祝名古屋博覽會 포스터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림21>과 <그림22>는 유사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 천황 즉위식을 기념하는 박람회인 만큼 천황의 상징인 봉황이 크게 나타나 있고, 높고 뾰족한 奉祝塔과 본관 등 박람회 전시관, 그리고 나고야성(名古屋城)이 그려져 있다. 이 박람회는 몇 개의 포스터가 더 있는데, 대부분 위의 세 요소, 즉 봉황과 봉축탑, 나고야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23>은 철도국에서 발행한 포스터로 앞의 두 개와 내용에 차이가 있다. 당시 박람회를 위해 임시역인 츠루마공원역(鶴舞公園驛)을 설치하였는데, 이

용운동으로 파악하였다. 日本商工會議所, 『世界各國に於ける最近の國產愛用運動』附錄 日本に於ける最近の國產愛用運動, 1930. 이 시기는 제1기에 해당하는 시기였고, 제2기는 대공황 이후인 1930년부터이다. 김제정, 『대공황 전후 조선총독부 산업정책과 조선인 언론의 지역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31) [http://www.museum.city.nagoya.jp/exhibition/owari\\_joyubi\\_news/emperor\\_showa/index.html](http://www.museum.city.nagoya.jp/exhibition/owari_joyubi_news/emperor_showa/index.html)

32) 도바야마도안소(外波山圖案所)는 조선박람회 포스터 현상 모집에서 2등으로 당선한 도바야마 치에코(外波山知繪子)와 주소가 '京都市 上京區 小山堀町 2-2'로 동일하다.

33) 『東京商工会議所主催 大禮記念國產振興東京博覽會事務報告』, 1929, 477~478쪽

를 이용해 박람회장으로 쉽게 갈 수 있음을 홍보하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大禮記念京都大博覽會의 포스터이다. 이 박람회의 포스터는 주최한 京都府에서 현상 모집하였고, <그림24>, <그림25>, <그림26>이 각각 1, 2, 3등 당선작이다.

1등작인 <그림24>의 포스터는 한눈에 보아도 <그림1>의 1929년 조선박람회의 포스터와 매우 흡사하다. 가운데 건축물을 배치하고 그 주위로 원형의 띠를 만들어 박람회 명칭을 쓰고 그림을 그려 넣은 전체적인 구성과 적색 계열의 색채가 거의 유사하다. 뿐만 아니라, 가운데 會期の 글자는 그 서체와 배색까지 동일하다. 하단과 중앙 부분에 검정색 건축물 실루엣을 두고 글자를 배치한 것도 같다.

그러나 같은 작가의 작품은 아니다. <그림1>의 작가는 앞에서 보았듯이 경성의 시로 벤이치로이고, <그림24>는 교토의 나카지마 고로(中島五郎)의 작품이다. 시기의 순서로 볼 때 시로가 1년 전의 나카지마 작품을 참고로 한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그런데 나카지마 역시 1929년 조선박람회 포스터 현상 모집에 응모하였고, 選外佳作로 추가 선정되었다.

<그림24> 포스터의 내용을 살펴보자. 전체적으로 보면, 大禮記念京都大博覽會가 천황의 즉위를 기념한 박람회였고, 개최 장소 또한 일본의 대표적인 전통 도시 교토였음에도 불구하고, 포스터에 일본의 전통적인 모습이 별로 나타나지 않은 것이 특이하다. 둥근 고리 부분의 전통 문양을 제외하면 일본적이라고 볼 수 있는 요소는 없다.

구체적으로 보면, 아르 데코(Art Déco)의 전성기였던 이 시기의 특징을 유감없이 발휘한 파빌리온이 숲과 같은 형태로 중앙에 배치되어 있고, 여기에서 빛을 상공으로 쏘아 올리는 모습을 나타내 상승감을 강조하고 있다. 배색은 차가운 색 계열과 따뜻한 색 계열을 조합하였고, 빛과 중앙의 글자에 핑크색을 사용한 것은 박람회가 가진 축제적 기분을 나타낸다고 평가받는다. 원형 띠에 박람회 명칭과 함께, 조선박람회의 포스터와는 달리, 四神이나 京都風の 문양이 있으나, 전체적 이미지는 어디까지나 전통적이기보다는 새로움을 강조하는 것이었다.<sup>34)</sup>

<그림25>, <그림26>의 2, 3등작은 1등작과는 대조적인 분위기였다. 두 작품 모두 대레가 열리는 공간,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습 등 전통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한 공통점이 있다. 2등 포스터는 우에노 쇼노스케(上野正之助)의 작품이다.<sup>35)</sup> 舞樂을 모티브로 한 비교적 단순한 분위기로, 기념성냥 라벨의 도안으로 사용되었다. 3등 포스터는 오츠키 코지(大槻孝二)의 작품이다. 밝은색의 조합이지만, 전체적으로는 黄色에서 茶色の 톤으로 통일되어 있다. 중앙에 赤茶色으로 크게 박람회 명칭이 배치되었고, 그 위에 紫宸殿<sup>36)</sup>이 그려져 있다. 포스터 주위로는 박람회의 第1, 2, 3會場과 교토역, 그리고 교토의 거리가 묘사되어 있다. 즉 전체적으로 교토 지도처럼 되어 있으며, 그 중앙에 紫宸殿이 있는 구도였다.<sup>37)</sup>

이상으로 1928년 일본의 주요 도시에서 개최된 大禮記念博覽會의 포스터를 살펴보았다. 이때에도 현상 모집으로 포스터 도안을 마련하였는데, 이 시기 일반화된 방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大禮記念京都大博覽會의 1등작은 조선박람회의 1등작과 작가는 다르나 전체적인 구성이 매우 흡사하였다. 두 작품 모두 일본인의 것으로, 일본 디자인계 내부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大禮記念京都大博覽會가 천황의 즉위를 기념한 박람회였고, 개최 장소 또한 일본의 대표적인 전통 도시 교토였음에도 불구하고, 포스터에 일본의 전통적인 모습이

34) 並木誠士, 「大禮記念京都大博覽會 ポスター」 『KIT NEWS』 31, 京都工芸繊維大学広報センター, 2012.11, 11~12쪽

35) <https://www.biosmonthly.com/article/9878>

36) 紫宸殿은 京都御所の 正殿으로, 天皇의 即位礼, 元服나 立太子礼 등의 의식이 거행되던 곳이다.

37) 並木誠士, 「大禮記念京都大博覽會 ポスター」 『KIT NEWS』 31, 京都工芸繊維大学広報センター, 2012.11, 11~12쪽

별로 나타나지 않은 것이 조선의 경우와 차이가 있다. 과거의 전통보다는 근대적인 새로움을 보여주는 박람회의 기본 성격을 고려하면, 일본의 경우가 더 일반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p>&lt;그림1&gt; 1929년 조선박람회 포스터1</p> <p>출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근현대사디지털아카이브</p>	<p>&lt;그림2&gt; 1929년 조선박람회 포스터2</p> <p>출처 : 『朝鮮新聞』 1928년 12월 14일</p>
	
<p>&lt;그림3&gt;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 관람권·야간입장권</p> <p>출처 : 서울역사박물관, 『광화문 年歌』</p>	
	
<p>&lt;그림4&gt; 1929년 조선박람회 입장권1</p> <p>출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근현대사디지털아카이브</p>	<p>&lt;그림5&gt; 1929년 조선박람회 입장권2</p> <p>출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근현대사디지털아카이브</p>



	
<p>&lt;그림6&gt;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 그림엽서 출처 : 서울역사아카이브(H-TRNS-103052-829)</p>	
	
<p>&lt;그림7&gt; 1929년 조선박람회 그림엽서(경성협찬회) 1 출처 : 서울역사아카이브(H-TRNS-103154-829)</p>	<p>&lt;그림8&gt; 1929년 조선박람회 그림엽서(경성협찬회) 2 출처 : 서울역사박물관, 『광화문 年歌』</p>
	
<p>&lt;그림9&gt; 1929년 조선박람회 그림엽서(경성협찬회) 3 출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근현대사디지털아카이브</p>	<p>&lt;그림10&gt; 1929년 조선박람회 그림엽서(평안남도) 출처 : <a href="https://blog.naver.com/quixcha/2223587865">https://blog.naver.com/quixcha/2223587865</a> 07</p>

팸플릿을 펼치다, 경성을 만나다

	
<p>&lt;그림11&gt; 1929년 조선박람회 엽서 봉투 1 출처 : 서울역사아카이브(H-TRNS-103211-829)</p>	<p>&lt;그림12&gt; 1929년 조선박람회 엽서 봉투 2 출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근현대사디지털아카이브</p>
	
<p>&lt;그림13&gt; 1929년 조선박람회 팸플릿 출처 : <a href="https://blog.naver.com/quixcha/2223564187">https://blog.naver.com/quixcha/2223564187</a> 31</p>	<p>&lt;그림14&gt; 1935년 조선산업박람회 그림엽서 봉투 출처 : 서울역사아카이브(H-TRNS-103168-829)</p>
	
<p>&lt;그림15&gt; 1940년 조선대박람회 그림엽서 봉투 출처 : 이각규, 『한국의 근대박람회』, 커뮤니케이션북스, 524쪽</p>	



	
<p>&lt;그림16&gt; 1929년 조선박람회 기념성냥 출처 : 이각규, 『한국의 근대박람회』, 커뮤니케이션북스, 334쪽</p>	<p>&lt;그림17&gt; 1929년 조선박람회 기념 목재엽서 출처 : 이각규, 『한국의 근대박람회』, 커뮤니케이션북스, 334쪽</p>
	
<p>&lt;그림18&gt;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 경회루 야경 출처 : 이각규, 『한국의 근대박람회』, 커뮤니케이션북스, 251쪽</p>	<p>&lt;그림19&gt; 1929년 조선박람회 황해도 안내 팸플렛 출처 : 이각규, 『한국의 근대박람회』, 커뮤니케이션북스, 402쪽</p>
	
<p>&lt;그림20&gt; 1929년 朝鮮博覽會圖繪_吉田初三郎</p>	



		
<p>&lt;그림21&gt; 1928년 御大典奉祝名古屋博覽會 포스터1</p> <p>출처 : <a href="https://www.kosho.or.jp/products/detail.php?product_id=211937690">https://www.kosho.or.jp/products/detail.php?product_id=211937690</a></p>	<p>&lt;그림22&gt; 1928년 御大典奉祝名古屋博覽會 포스터2</p> <p>출처 : <a href="https://www.museum.city.nagoya.jp/collection/memories/album/contents_03/index.html">https://www.museum.city.nagoya.jp/collection/memories/album/contents_03/index.html</a></p>	<p>&lt;그림23&gt; 1928년 御大典奉祝名古屋博覽會 포스터3</p> <p>출처 : <a href="https://ameblo.jp/haganoitch/entry-12650772212.html">https://ameblo.jp/haganoitch/entry-12650772212.html</a></p>
		
<p>&lt;그림24&gt; 1928년大禮記念京都大博覽會 포스터1</p> <p>출처 : <a href="https://www.pinterest.ch/pospag/poster-japan-vintage/">https://www.pinterest.ch/pospag/poster-japan-vintage/</a></p>	<p>&lt;그림25&gt; 1928년 大禮記念京都大博覽會 포스터2</p> <p>출처 : <a href="https://kyoto-gotairei.com/">https://kyoto-gotairei.com/</a></p>	<p>&lt;그림26&gt; 1928년 大禮記念京都大博覽會 포스터3</p> <p>출처 : <a href="http://looksroom.blog.jp/archives/36676645.html">http://looksroom.blog.jp/archives/36676645.html</a></p>



## 「식민지기 박람회 홍보 이미지 자료 연구」에 대한 토론문

이승희(부산대)

김제정 교수님의 발표문은 1929년 조선박람회를 중심으로 한 식민지기 박람회 이미지 자료의 제작 배경, 구성 원리, 시각적 상징성, 나아가 일본 본토 박람회와의 비교를 통해 총독부 주도의 ‘시각 권력’ 행사를 분석한 연구입니다. 특히 식민지기 박람회 포스터 제작 과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검토하여 포스터 공모 당선작이 모두 일본인이었으며 그것도 재조일본인보다 본토 일본인의 비율이 높았다는 점은 박람회 포스터의 제작이 철저히 ‘제국의 시선’에 입각해 이루어졌음을 밝혔습니다. 발표자께서는 현재까지 식민지기 박람회 관련 이미지 자료 연구 분석을 계속해 오신 선구적인 연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론자는 일본 근대 군사사 분야를 전공하고 있어 발표 주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식견을 갖추지 못했습니다만, 발표문에서 제시된 이미지 자료와 분석은 매우 흥미로웠고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질문과 의견을 말씀드리으로써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1) 먼저 조선박람회 전시관 및 포스터 도안에서 나타나는 ‘조선과의 연관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발표자께서는 조선박람회 전시관이 ‘조선식’ 양식으로 지어졌고, 포스터 도안 역시 ‘조선과의 연관성’을 중시했다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선색’의 강조가 ‘식민지화된 조선의 수용 가능한 이미지’로서의 범위 안에서 기획된 것인지, 아니면 일종의 ‘제국 안의 지방색’으로서 체계화된 것이었는지 궁금합니다.

2) 다음으로 전통 건축의 시각화와 ‘탈권위화’의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발표문에서는 경복궁, 특히 경회루의 활용을 ‘탈권위화’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광화문, 근정전 등 전통 권력의 대표적 상징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탈권위화’보다는 ‘제국이 재배치한 권위’의 시각적 구조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발표자의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 포스터 디자인 현상공모 수상자 중에 조선인의 작품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단순한 결과인지 아니면 제도적 배제로 인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조선총독부가 요구한 도안의 성격이 ‘제국적 시선’에 맞춰져 있었다면, ‘조선인의 시각’은 처음부터 배제되었을 수 있습니다만, 아예 조선인은 응모 자체가 제한되어 있었는지, 응모할 수 있었다면 그 응모자 수는 어느 정도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마지막으로 일본이 시각 매체를 통해 식민지 통치를 정당화하려고 했음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본 본토에서 열린 1928년 대례기념박람회와의 비교도 중요하지만, 식민지와의 비교가 선행되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1933년 ‘국내 식민지’였던 오키나와에서 류큐(琉球) 왕국의 슈리성(首里城)을 일부 복원하여 관광지로 활용한 사례, 그리고 1935년 일본의 대만 통치 40주년을 기념해 열린 대만박람회(臺灣博覽會)의 사례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제1부 - 발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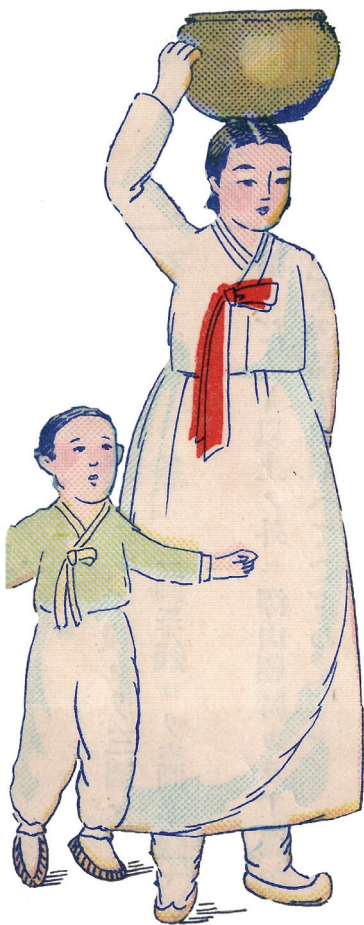
# 근대 시각문화사 연구의 사례

경성 사진엽서와 동아일보사

<경성백승>의 비교 연구

발표: 서유리(서울대)

토론: 황익구(동아대)





## 근대 시각문화사 연구의 사례

### - 경성 사진엽서와 동아일보사 『경성백승(京城百勝)』의 비교연구<sup>1)</sup> -

서유리(서울대학교)\*

#### 【 목 차 】

1. 서론
2. 미관의 형성 - 일본인이 만든 경성 사진엽서
3. 동아일보사의 『경성백승』과 반미학적 경성 사진
  - 1) 동아일보사의 민족주의적 사진 기획과 <경성소경>(1921)
  - 2) 「내동리 명물」의 기획: 역사로 미관을 괄호치기
    - (1) 식민지 통치성의 비판
    - (2) 장소의 역사화, 역사의 장소화: 장소에 숨은 조선인의 역사를 가시화하기
4. 결론: 역사의 눈과 경성 장소성의 새로운 발견

### 1. 서론

이 글에서는 경성의 도시 미관의 형성과 그에 대한 조선인의 태도를 일본인 제작의 경성 사진엽서와 동아일보사의 『경성백승』을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근대기에 지속된 경성의 도시계획과 건설은 일본인의 지배와 통치기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sup>2)</sup> 이 기간에 도시경관의 물질적 구성은 온전히 조선인들이 결정할 수 없었다.

경성이 근대적인 도시로 변모되는 과정은 도시개발과 건설의 과정이면서 동시에 도시가 미적인 이미지를 획득하는 과정, 즉 미관(美觀)의 형성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근대 도시의 건설과정에는 미학(美學)적 시선의 형성이 맞물린다. 미학적 시선이라는 것은, 대상의 외적 형태와 색채 등이 적절한 감각적 가치(예컨대 아름다움)를 가졌는지의 문제를 두고 형성된다. 이것은 대상을 엿어내고 관통하는 정치, 경제, 윤리적 문맥들을 분리하여 괄호치고, 무관심적(disinterested)인 태도 속에서 대상의 형상을 고려할 때 획득할 수 있는 시선이다.<sup>3)</sup>

\*인문학연구원 책임연구원

- 1) 이 논문은 「경성의 미관 형성과 조선인의 대안적 이미지-경성 사진엽서와 동아일보사의 「경성백승」을 중심으로」(『서울학연구』92,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28)을 발췌, 요약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 2) 경성의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염복규, 2016, 『서울의 기원 경성의 탄생』, 이데아를 참조하였다. 이 책은 경성의 도시계획을 “식민통치의 여러 국면에 조응하여 그 일환으로 시행되었거나 또는 식민통치라는 제약 속에서 굴절을 거듭한 역사적 과정”(p.7)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연구는 경성의 도시계획이 최종적으로는 식민지 통치기구의 정책 결정에 따름을 밝히면서도 그 양상의 다면성을 섬세하게 드러내고 있다. 예컨대, 식민지 통치기구가 수행한 도시계획은 본정통 개발이 늦었던 예에서 보듯, 식민자 민간인들의 이해를 즉각 반영한 것도 아니었으며, 종로의 시구개정과 수익세 논란에서 보듯, 피식민자 조선인의 여론을 고려하며 통치 기구 내부의 권력이 상호 경합하는 과정에서 정책이 결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최종적 결정과 진행은 식민 통치기구에 의한 것이었다.
- 3) ‘무관심성’은 근대 미학(Aesthetics)을 정초한 칸트(E. Kant)의 『판단력 비판』에서 제안한 개념으로서, 여타의 가치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며 보편적인 미적 판단의 고유한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태도를 말한다. 이후 프리드리히 쉴러(Friedrich Schiller)가 미적교육을 근대 시민교육으로 제창했던 것

어떤 형상이 미적 쾌감을 주는가, 어떤 미적 가치를 드러내는가를 질문으로 구성하고, 이것을 사물 외에도 얼굴, 몸, 자연에 던진 뒤, 그에 대한 답을 구하여 형태를 조정하고 규율하는 과정은 미학적 시선이 형성되는 과정이었다. 이것은 미학을 둘러싼 제도가 형성되는 과정, 즉 미술 개념이 도입되고 예술담론이 형성되며, 경성제국대학에 미학·미술사 강좌가 개설되는 제도적 장치가 이루어지는 과정과 긴밀하게 연관된다.

근대 도시도 예외가 아니어서, 미학적 시선을 통해 도시 공간을 재구성하는 과정이 진행되었다. 이 과정은 도시에 통치 권력이 구현되면서 동시에 관람의 대상으로 관광지화되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과정과 연계되었다. 아름다운 경관이라는 의미의 ‘미관’은 식민지 통치에 의한 경성의 건설 초기부터 언론에 등장했다. 경성의 미관 형성 과정을 보여주는 주요한 시각 미디어 가운데 하나는 이 시기에 제작된 사진엽서(寫眞 繪葉書)이다.<sup>4)</sup> 일본인이 자신들의 경성 건설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의 상품화, 즉 관광을 위해 만든 사진엽서는 ‘명승’, ‘명소’라는 전통적 이름 외에도 ‘미경’, ‘미관’, ‘근대미관’, ‘근대미’라는 말을 결합시켜 경성의 사진을 소개하고 규정했다.<sup>5)</sup> 아름다운 건축물과 풍경이 선택되어, 명암과 구도를 고려한 사진으로 찍혀 관람을 요청하는 이미지로 만들어지는 과정은, 식민권력에 의해서 경성이 건설되는 과정과 맞물렸다. 경성의 ‘근대미’ 사진엽서를 구입하고 도시를 관람하는 과정은, 외국인에게는 미학적 시선으로 경성을 향유하는 과정이지만, 원주민에게는 식민지 통치성을 내면화하는 과정이 될 수 있었다.

경성의 사진엽서가 도시에 구현된 식민지 통치성 및 관광산업과 결합된 미학적 시선을 드러내는 매체였다고 한다면, 이 이미지를 조선인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 논문에서는 경성의 미관형성에 대한 조선인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민족의 표현기관을 자임했던 언론 『동아일보』에 실린 경성 사진과 기사에 주목했다. 그 가운데서도 『동아일보』가 1924년에 연재한 사진기사 ‘내동리 명물’과 이를 단행본으로 묶어 조선박람회가 열렸던 1929년에 출간한 『경성백승』을 경성의 사진엽서와 비교하려고 한다.

『경성백승』이라는 제목은 일본인이 제작한 경성 사진엽서 세트의 상품명으로 사용되었던 ‘경성명승’, ‘경성백경’과 유사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관광용 서적으로 오해하도록 만든다. 그러나 『경성백승』의 이미지의 구성과 서술되는 내용은 관광용 사진엽서와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이미지와 내용을 검토한 결과, 『경성백승』은 통치가 건설한 경성 미관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밝히고, 대안적인 경성 이미지를 창안한 예로 볼 수 있었다. 『경성백승』은 관광용 사진엽서에서 배제되었던 북촌의 여러 장소를 선정하여, 식민지 지배 이전의 조선의 역

과 같이, 미적 영역을 설립하고 미술 및 예술을 제도화시켜 교육하는 것은 근대사회의 핵심적인 과제가 되었다. 미학은 대상의 형상이 주는 감각적 효과를 다른 영역에서 분리, 독립시켜 철학적으로 담론화, 체계화한 분과학문이지만, 동시에 추상적, 철학적 담론을 기반으로 하여 미적인 것을 시각예술과 디자인의 제도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상품생산과 결합하여 상품미학으로 구현하는 과정과 병행된다. 미학적 독립성, 자율성은 다른 영역과의 긴밀한 연관 속에 감각 영역을 발전시켜 이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근대 미학은 인간의 감각적 영역을 효율적인 물질적 생산과정 즉 자본주의적 상품생산 과정 및 통치성과 관련시키면서 분과 제도화되었다.

- 4) 경성의 이미지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종합 정리한 성효진, 2020, 「서울의 도시 이미지 형성(1987년-1939년)에 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21-222쪽에서는 1930년대에 이르러 경성을 미적 감상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 5) 경성의 사진엽서는 8~16매가 한조를 이루어 엽서봉투 안에 넣어 판매되었다. 1920년대 후반부터 판매된 경성사진엽서세트의 상품명에는 ‘명승’이라는 전통적인 명칭 보다는 ‘미’를 포함하는 단어들이 자주 사용되었다. <京城의近代美>와 <京城의近代美觀>이 대표적이다. 그 외에 ‘명승’, ‘명소’, ‘백경’ 등 전통적 어휘를 사용한 <京城名勝繪葉書>, <京城名所> <京城名所百景>, <京城百景> 등이 사용되었다. 성효진, 앞의 논문을 참조하여 확인했다.

사와 결합시켜 장소를 역사화하고, 역사를 장소화하면서 식민지 도시건설을 비판하는 언설을 드러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성백승』은 조선인 언론이자 대중미디어인 동아일보의 민족주의적 대중정치적 사례로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일본인 제작의 경성 사진엽서에 드러난 미관의 양상을 확인하고, 이와 비교하여 『경성백승』이 장소를 역사화하는 기획을 통해 미관을 해체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 논문은 식민지기의 경성의 사진을 복합적인 맥락에서 분석하려 한다. 즉, 경성 이미지를 그 생산의 주체, 결합되는 매체, 이미지를 둘러싼 담론화 방식의 차이에 따라 분석하여, 역사적 기록자원으로서만 바라보는 시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미지가 창출했던 사회적, 정치적 작용을 보다 다층적, 역동적으로 독해하려 한다.

## 2. 미관의 형성-일본인이 만든 경성 사진엽서

1912년 시구개수(市區改修)로 시작하여 1926년 경성부 신청사와 총독부 신청사의 건설로 일단 마무리된 경성의 정비 과정은 근대 도시로의 변화과정이었다. 이 과정은 일본인들이 식민지 조선에 서구적 ‘문명(文明)’을 구현하면서 ‘미관(美觀)’을 형성해가는 과정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근대 초기 도시계획과 건축에 있어서 도시건설은 미관을 증진시키는 것이라는 ‘미관사상’이 팽배했던 사실도 주목된다.<sup>6)</sup>

근대 도시는 격자형 도로망, 차마와 전차의 통행을 위해 폭을 넓힌 대로, 건축선을 맞추어 세워진 서양식 건물이 만들어내는 수직과 수평의 기하학적 형태로 구성된다. 사람이 다니면서 서서히 만들어진 좁은 도로와 느슨한 곡선이 연속되는 전통적 가옥과 대조를 이루는 근대적 건물과 도로의 형태는 일본인에 의해 ‘미관’으로 평가되었다. 예를 들어, 시구개수가 시작되고 2년이 지난 1914년, 매일신보사의 신축사옥이 완공되자, 이것은 조선은행, 조선호텔, 동양척식회사 사옥의 건립에 이어서 ‘시가(市街)의 미관상’ 뜻깊은 사건으로 대대적으로 축하되었다.

매일신보사는 1914년에 대화정(大和町) 1정목(丁目)에 있다가 새로이 신사옥을 태평통 1정목에 세워 이전했다. 『매일신보』는 신축사옥의 사진을 1면 전면에 싣고, 1913년에 막 끝마친 시구개수 공사로 넓혀진 황금정통(黃金町通)과 태평통(太平通)을 신사옥에서 바라보는 사진을 큼직하게 실어서 경관의 변화를 증거했다. 보도에서 매일신보는 “총독정치의 대방침(大方針)을 즉(則)하고 천황폐하의 일시동인(一視同仁)하시는 성지(聖旨)를 봉재(奉載)”하는 것을 성스러운 본령으로 삼는 기관지로서, “신정(新政) 개시 후 불과 4개년”만에 사통오달(四通五達)의 네거리(通衢)에 “동양유수의 대건축”으로서 고전과 근대 양식이 절충된 신축 사옥의 건립을 보게 된 것을 축하하고, 식민지 통치의 성공과 약진하는 경성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자평했다.<sup>7)</sup>

조선은행 총재 이치하라 모리히로(市原盛宏)는 축하의 글인 「경성시가의 미관」을 매일신보에 보냈다.<sup>8)</sup> 이 글에서 그는 도시의 미관이 다름아닌 ‘부력(富力)’을 따른다고 전제한 뒤, 십

6) 일본에 도시계획법이나 시가지건축물법이 공포, 시행될 당시(1919년)에 건축가들이 도시건설을 르네상스적인 ‘미관의 증진’으로 보는 이른바 ‘미관사상’이 팽배했다는 언급은 伊東孝, 1978, 「昭和戰前記における美觀思潮その機能」, 『都市計画論文集』13, 日本都市計画学会, 296쪽. 1910년에 발행된 미술잡지 『美術新報』에서는 「都市の美觀」이라는 제하의 연속기사에서 ‘도시미위원회’가 제안되었다고 한다. 中島直人·西村幸夫, 2002, 「1930年代前半における都市美協会による「都市美委員会」設置の提案に関する研究」, 『日本建築学会計画系論文集』557, 242쪽, 日本建築学会.

7) 「新築發展記念」 1면 기사, 『매일신보』, 1914. 10. 22.

8) 市原 鮮銀總載 談, 「경성시가(京城市街)의 미관(美觀)」, 『매일신보』, 1914. 10. 22.

년 전과 비교할 때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이나 크게 변화한 경성을 언급했다. 도로폭이 넓혀지고 인도와 차도가 구분된 것, 그리고 유럽 시가지에 견주어도 손색없을 매일신보사, 조선은행, 조선호텔, 동척회사, 준공될 우체국 등의 건물이 생겨나게 된 것을 자랑할 만한 ‘미관’으로 칭찬했다.<sup>9)</sup> 그는 “서양의 우수한 도회처럼 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공원의 건설, 고궁의 공원화, 고적의 보수유지, 문화시설의 건축 등도 언급했다. 이러한 언급은 직접적으로 도시계획을 주도하지는 않더라도 통치계층에 공유된 경성의 미관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그는 남산에 대공원을 만들고, 일주도로를 개설할 것을 요청했고, 이어서 “북방에도” 이왕가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까지 창덕궁의 비원을 개방하고 성벽 등도 정리하여 “경성의 장식(裝飾)”으로 내놓을 것을 요청했다.<sup>10)</sup> 또한 도서관, 극장 등의 ‘대건축’을 지어 세계의 우수한 도시로 만들자고 격려했다. 그는 도시의 경제적 자본이 곧 미관을 형성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서양의 도시를 모델로 삼아 근대적 시설과 더불어 고궁, 고적 등 전근대적 유산들까지 ‘장식’으로 정비하여 ‘미관’을 완성할 것을 기대했다.

이치하라의 언급과 더불어 주목되는 것은 매일신보사의 신축을 축하하는 순종의 휘호 ‘문명(文明)’ 두 글자가 실린 것이다.<sup>11)</sup> 요컨대, 근대적 건축물은 곧 문명으로 가는 길이다. 또한 이왕직 차관 고미야 미호마츠(小宮三保松)의 언급도 주목되는데, 유럽의 대도회처럼 형태가 승한 것(形勝), 즉 인공적인 건축물들이 장대하게 건설되어 만들어내는 ‘윤회(輪奐)의 미(美)’(장대한 건축의 미)가 “미관 중 제1요소”라 말했다.<sup>12)</sup> ‘린칸노비(輪奐の美)’는 일본에서 발행한 사진엽서에서 사용하던 말로 장대한 건축물의 아름다움을 지칭하는 용어였다.<sup>13)</sup>

매일신보사 신축을 축하하는 이들의 글에서 확인되는 것은 경성의 시가 개조에서 건축물의 설립이 중요하게 여겨졌던 점이다. 도시 건설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위생이나 안전, 경제적 이익도 있지만 무엇보다 ‘미관’의 성취였다.<sup>14)</sup> 그것은 구미의 도시를 모범으로 삼아 장대한 서양식 건축물을 건립함으로써 일차로 가능할 수 있었다. 『매일신보』에서는 경성우편국, 경성역, 한일은행, 총독부 신청사 등 주요 건축물들이 건설될 때마다 ‘미관’으로 소개했다.<sup>15)</sup> ‘미관’에

9) “인도 차도의 구별이던지 또는 도로 수축(修築)에 지(至)하여도 자못 선량한 방법이 실시된 결과 확실히 면목을 일신(一新)함에 지(至)하였고 이에 더해 양측에 대하(大廈), 고루(高樓)가 연장(連牆)한지라. 그중에는 일본 내지는 물론 구미 시가에 지왕(持往)하여도 손색(遜色)이 무(無)한 건물 등도 견(見)함에 이르렀다. 진실로 경성의 미관이라 칭(稱)하기 족(足)할자 유(有)하니 목하(目下) 남산시가를 감하(瞰下)면 조선은행, 조선 호텔루, 금번 낙성한 경성일보사요 또 동척회사와 근근(近近) 준공(竣工)의 운(運)에 지(至)할 우편국과 여(如)함은 일면 각자 업무에 필요한 건물이 되는 동시에 저대(著大)히 경성의 장식(裝飾)으로 과장(誇張)하기에 족(足)할지라.” 위의 글.

10) “경성의 성벽도 일종의 위관(偉觀)을 첨(添)하며 차(且) 고대의 유물인 고로 실용상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거든 비록 일 부분이라도 차(此)를 파괴(破壞)치 말고 반(反)혀 보존방법을 강(講)하면 역시 경성을 장식(裝飾)하기 족(足)할지라.” 위의 글.

11) 「매일신보사 신축 이왕전하 친필」, 『매일신보』, 1914.10.24.

12) 李王職次官 小宮三保松氏 談, 「京城美觀中 第1位置」, 『매일신보』, 1914.10.24. 그는 장대한 건물이 처한 위치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경성의 하천순류(順流)문제를 지적했다.

13) 중국 따에렌(大連)시의 사진에 덧붙인 글 “큰 집이 나란히 거대한 건축의미를 더하는 대련시 중앙대광장의 미관(巨厦竝立 輪奐の美を添ふる 大連市 中央大廣場の美觀)이나 일본 후쿠오카(福岡)현청 사진엽서에 덧붙인 글 “장대한 건축의 미 당당한 후쿠오카 현청(輪奐の美 堂堂たる福岡県庁)”에서처럼 장대한 건축의미를 뜻하는 ‘린칸노비’는 당시 건물사진을 설명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었다. 일본의 인터넷 엽서 판매 사이트에서 확인한 쇼와시대 사진 엽서를 참조하였다.  
<https://store.shopping.yahoo.co.jp/pocketbooks/xyw1725.html>.

14) 이치하라 모리히로는 앞의 글에서, 건축에 있어서 1은 위생, 2는 화재 예방, 3은 “경성의 장식으로 경성의 변영과 시가의 미관을 드러내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15) 「낙성되는 경성우편국의 미관」, 『매일신보』, 1915.8.26; 「도시의 미관이 될 경성역」, 『매일신보』, 1919.5.15; 「시내에 광고탑, 밤에는 휘황한 전등에 광장할 미관」, 『매일신보』, 1921.11.10; 「신건축한 한일은행의 미관과 웅자」, 『매일신보』, 1921.11.13; 「단장이 새로워가는 총독부 신청사 미관」, 『매일



는 공원 외에 광고탑과 박람회 조형물도 포함되었다. 현대의 것만이 아니라, 과거에 설립된 장대한 건축물인 조선왕조의 궁궐들도 도시의 미관을 구성했다. 궁궐은 통치권력을 상실하고 공원으로 전환되어 경성의 주변적인 ‘장식’을 이루게 되었다. 궁궐은 근본적으로 감상 대상이자 미적 공간으로 전환되며, 근대적 건물들과 더불어 경성의 미관을 보완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경성의 미관은 이를 유지하기 위한 규제와 방해하는 요소에 대한 단속으로 가능한 것이었다. 1920년대의 종로의 시구개수 시에는 도로폭을 넓히면서 “도시의 미관을 위하여” 단층 집을 금지하고 이층집을 짓도록 했다.<sup>16)</sup> 1930년대에는 ‘도시미관’을 위해 토막민을 철거하거나 ‘시가미(市街美)’를 위해 걸인, 룸펜, 행상을 단속하고 불량주택을 퇴치했다.<sup>17)</sup> 실행되지는 않았으나, 경성에 ‘미관지구’가 논의된 것은 1930년대 중반이었다.<sup>18)</sup> 일본에서처럼 ‘도시미위원회’가 설치되지는 않았지만,<sup>19)</sup> 경성의 ‘미관’은 이처럼 지속적으로 고려되었다.

경성의 사진엽서는 미관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들을 담았다. 이것은 시구개정을 필두로 경성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기 시작한 1914년, 조선은행 총재나 이왕직 차관이 언급한 요소들과 일치한다. 장대한 근대식 건축물들과 고궁, 공원 등 관람용 장소들이 그것이다. 우체국, 은행, 역사(驛舍), 학교, 병원과 같은 공공기관들, 척식회사와 백화점, 총독부청사와 경성부청사 등 통치기구와 같은 건축들이 경성을 대표하는 요소였다. 또한 개방된 조선 궁궐의 누각, 정원, 궁문과 성문이 선정되었다. 이렇게 과거의 지배기구와 현재의 통치기구가 신과 구, 전통과 근대로 대조되면서, 경성의 미관으로 통합, 전시되는 경성사진엽서의 구성은 1920년대 후반~1930년대 전반에 경성 히노데(日之出)상점에서 발행한 사진엽서 『경성명승(京城名勝)』에서 뚜렷이 확인된다.

경성의 사진엽서에 찍힌 경물을 전수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자연요소는 희귀했다.<sup>20)</sup> 건축적 요소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궁궐과 성문과 같이 과거로부터 남아있는 조선의 건축물이 36퍼센트, 새로 지어진 서양식 건축물과 시가 경관이 64퍼센트를 차지하여, 신식 건물들이 사진엽서의 주요 구성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단일 요소로서는 조선신궁(6.3%), 총독부청사(3.4%)가 1, 2위를 차지하며 우체국(2.1%)과 은행(1.8%), 박문사(1.8%), 경성부청(1.5%), 경성역(1.3%)이 그 뒤를 따랐다. 경성부청보다 조선신궁과 총독부청사가 압도적이었던 것은 경성의 장소성이 조선에 대한 일본인의 통치를 환유했기 때문이다. 조선인의 건축물로 뛰어난 것은 단연 궁궐이어서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만으로 25.9 퍼센트를 차지했다. 단일 항목으로는 경희루(4.7%)와 남대문(4.7%)이 1위를 다투었으며, 창경원 식물원이 2.6%로 2위였다. 경복궁의 근정전(2.3%)과 창덕궁의 후원(2.2%)이 경합했고, 향원정(1.7%)이 뒤를 이었다. 공원으로는 파고다 공원(3.5%)이 1위였다.

요컨대, 경성의 사진엽서가 담은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과거에 건축한 조선왕조의 유물들

신보』, 1915.9.8; 「복악 아래 미관-총독신관저 준성」, 『매일신보』, 1939.8.16.

16) 「종로도 개수와 일본인의 복진」, 『조선일보』, 1925.6.18; 「도시의 미관과 가로체제를 손망하는 건축은 금제한다 지정된 지역에 주의하라」, 『매일신보』 1934.1.23

17) 「상가 룸펜 군과 행상인 단속 도시의 미관을 손상한다고 서문서서 일제검속」, 『매일신보』 1935.3.24; 「경암산록 토막민에 금월내 철거엄명 도시미관상 부득이한 처치」, 『매일신보』 1935.4.19; 「도시미관과 보건상으로 불량 주택의 퇴치 긴절 시가지건축 취체령으로써 금후엔 엄밀히 단속」, 『매일신보』, 1936.3.1; 「걸인구축비로 이만원을 청구」, 『동아일보』, 1929.8.31.

18) 미관지구, 풍치지구 등 경성의 ‘지구제’ 논의와 그 귀결에 대해서는 염복규, 앞의 책, 154-157쪽.

19) 경성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되어 도시건축위생미관 등을 연구할 것이라는 보도가 1921년에 있었지만, 이 단체는 ‘일종의 로비조직’이었다. 염복규, 앞의 책, 91쪽. 일본의 경우 1925년에 도시미연구회가 동경에 결성되었고 도시미협회로 발전했으며 1930년대에 도시미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게 된다. 伊東 孝, 앞의 논문; 中島直人·西村幸夫, 앞의 논문 참조.

20) 김선희, 2018, 「사진그림엽서를 통해 본 근대 서울의 관광 이미지와 표상」, 『대한지리학회지』 53-4.

과 현재를 지배하는 일본인들이 건축한 새로운 근대식 건물이다. 양자의 가운데서 조선인 자신이 생활하며 건축해나가고 있는 현재의 경성은 극히 드물게 재현된다. 종로의 거리 사진, 초가집의 ‘선인(鮮人)마을’, 결빙된 한강에서 낚시하는 모습 정도가 편성되어 있을 뿐이다.

엽서의 사진은 경성의 근대 건축물과 궁궐의 전각을 시각적 쾌감을 줄 수 있는 미적 감상물로 최선을 다해 포착했다. 사진 이미지는 건물을 다만 그것의 형태적 요소에 집중하도록 만든다. 가로로 긴 서양화식 프레임 안에 적절한 여백을 두고 배치된 건물은 마치 초상사진처럼, 자신의 인상을 가장 잘 드러내는 자세로 찍혔다. 얼굴에 해당하는 전면과 측면을 3:1 혹은 4:1의 비율로 잡은 결과, 화면 내에 건물의 수평축이 만들어낸 사선구도는 역동감과 날렵한 입체감에 더하여 위엄을 부여한다. 경희루나 근정전 같은 전통건축은 여백을 두고 원경에서 포착하여 지붕의 용마루와 내림마루, 처마의 선이 그려지도록 했다. 경희루의 석주와 근정전 행각은 마치 고대 그리스 신전의 열주랑(colonnade)처럼 부각시켰다. 사진은 건축의 외곽선들이 만들어내는 조화에 세심하게 집중했다.

이렇게 고정된 건축물의 이미지는 실제로 건물을 몸으로 접할 때 겪게 되는 다양한 시각각적 정보들의 유동적이고 분산적인 흐름과는 다르다. 고유한 개성적 형태를 쾌적하게 드러내는 지점의 인상이 건물을 대표하고, 부분적이고 불완전하며 파편적인 이미지는 배제된다. 이 배제의 과정은 미학적 시선이 다른 관계들을 괄호치는 과정과 병행된다. 대상기관의 역할과 작용,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관계는 이미지 뒤로 접히고, 남는 것은 미학적 감상 대상으로서의 형태이다. 시각적 미를 선사할 수 있다면 대상은 자체로 합목적적인 것, 정당한 것이다. 이른바 무목적적 합목적성의 개념에 따르면 형태의 감각적 요소가 창출하는 미는 이성적, 윤리적인 가치판단과 독립하여 그 자체로 고유한 목적성을 가지는 영역이기 때문이다.<sup>21)</sup> 그렇지만 동시에, 사진엽서에 포착된 건축물의 아름다움은 그 외부의 경제와 통치의 구조와 결합된다. 우선 관광사업과 연결되어 경제적 이윤을 창출하고, 식민지 통치권력과 연결됨으로써 그 작용을 정당화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미적 이미지를 창출한 통치력은 그 능력 자체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진엽서는 단순한 현상과 실제의 재현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학적 시선으로 대상을 이미지화하여 이것을 다시 경제적 순환과 통치의 성취물로 연결시키는 미디어였다.

### 3. 동아일보사의 『경성백승』과 반미학적 경성사진

#### 1) 동아일보사의 민족주의적 사진 기획과 <경성소경>(1921)

근대 언론에 있어서 사진은 사건의 보도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사진과 대중미디어의 확산은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다. 사진은 사실을 믿음만한 정보가 되도록 증명하고, 시각을 통해 빠르게 전달하여, 독자를 계몽하고 지적, 감정적으로 정향(定向)시키는 미디어 정치의 수단이

21) 칸트가 내린 미의 정의는 ‘목적없는 합목적성’이다. 예술작품이나 자연의 아름다운 대상은 그 자신 바깥에 어떤 목적도 갖지 않고 관람자에게 쾌감을 주는 것도 목적이 아니며, 오로지 그 자신의 아름다움 자체가 목적이 된다는 논리이다. 미적 가치와 미술의 자율성을 설립하는 논리라 할 수 있다. 신혜경 옮김(카이 함머마이스터 지음), 2013, 『독일 미학 전통』, 이학사, 69-71쪽.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미와 예술이 함의하는 자율성과 보편성의 논리는 20세기에 맑스주의적 관점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는 미적 취미판단이 교육을 포함한 문화적 자본에 의해 분할되는 양상을 고찰함으로써 자율성과 보편성의 미학적 기초를 해체하는 역사적 연구를 시도했다.

었다. 동아일보는 ‘2천만 민중의 표현기관’을 자임한 언론기관으로서 1920년대의 조선인 공동체의 여론을 주도, 형성, 발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문화운동의 차원에서 민족의 공통적 감성을 만들어내려 했다. 동아일보가 민족주의적 감성을 구성하는 과정은 정치적 구심점으로 자신의 위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기도 했다. 민족주의적 감정의 유대를 형성하는 작업은 문화적, 감각적 차원의 정치라 할 수 있다. 감각적 차원의 민족주의적 정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동아일보는 사진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했다. 동아일보는 “기사가 밥이라면 사진은 반찬”이라고 비유하여 사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sup>22)</sup> 요컨대 사진은 문자의 보조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찬이 없다면 밥이 맛없는 것처럼, 그 효과는 언어보다 더 강할 수 있었다.

초기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민족의 기원이자 역사적 성지인 백두산 사진을 촬영, 탐방한 기사가 있다. 창간 일 년이 지난 1921년에 동아일보는 백두산을 단군 탄생지이자 민족사의 발원지로 의미화하면서, 특파원을 파견하여 찍은 사진과 기사를 연재했다. 백두산 특집기사에는 사진반의 일본인 야마하나 요시기요(山崎芳潔)가 ‘고심촬영한’ 사진과 민태원(閔泰瑗)의 기행담이 10회에 걸쳐 연재되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탐험단이 귀경한 후에는 종로의 중앙청년회관에서 <조선역사와 백두산>, <백두산 순례담> 등을 강연하고, 현지 실사한 20여 장의 사진을 환등영사하여 대중에게 관람시켰다. “조선민족에게 무한한 감흥을 일으키는 강연회”장이 “정결한 흰옷을 입은 사람으로 만원”이라는 보도문구는 사진을 매개로 민족적 정서를 공유, 환기시키려는 언론의 의도를 드러낸다.

『동아일보』는 홍수 피해를 알리고 의연금을 모아 전달하는 재난구호 운동에도 사진을 사용했다. 1922년 9월에 황해도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피해의 현장 사진을 가져와 ‘수해화보(水害畵報)’로 연속보도한 것은 초기의 사례이다. 화보에 덧붙인 걱정적인 논설에는 사진을 활용하는 동아일보의 의도가 잘 드러난다.<sup>23)</sup> 동아일보는 독자에게 그 “참적(慘跡)을 견(見)하고 진상을 관(觀)”할 것을 요구하면서, 사진이 전달한 진실이 독자에게 “정서와 충동”을 부여하고, “동정(同情)의 뜨거운 눈물(熱淚)”이 나도록 하리라 확신했다.

3회에 걸쳐서 연속으로 실린 현장 사진에는 폐허와 같이 남겨진 건축물의 잔해와 흙더미가 가득 찼다. 냉정하게 재난을 포착한 사진과 달리, 논설은 사경에 빠진 수재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질 것을 형제와 민족의 이름으로 요청하였다. 황야에서 참담함에 울고 있는 형제들에게, 단결하여 “서로 정(情)을 발(發)하고 사랑을 경(傾)하여 서로를 구함이 어찌 아름답지 아니하며 송고하지 아니한가”라는 외침이 그것이다. 동아일보는 극단 ‘혁신단(革新團)’과 더불어 이들 동안 ‘광주좌’에서 수해참사를 알리는 사진을 환등영사하여 ‘기부홍행’을 했다.<sup>24)</sup> 이것은 재난 스펙타클과 민족주의적 윤리의식을 결합시켜 대중계몽을 수행한 언론 정치의 사례이다.

이러한 『동아일보』가 경성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할 수는 없었다. 『동아일보』의 경성사진은

22) 독자들이 요청한 사진을 실어 주겠다는 「보고싶은 사진」 기획을 시작하면서, 동아일보는 “시시각각으로 일어나는 일반사회의 대소사건을 일반독자에게 충실히 알리기 위하여 신문은 글씨로 사진으로 여러 가지 형식을 취합니다만, 일 글씨로 나타난 기사를 신문의 밥이라 하면 사진은 그 밥에 없지 못할 반찬이요.”라고 사진기사를 기획하는 의미를 말했다. 「보고싶은 사진」, 『동아일보』 1925.10.8.

23) “황해도 일대의 참혹한 수재를 보라. 오인의 필(筆)은 그 실상을 묘출하기에 능(能)이 부족하고 오인의 문(文)은 그 참상을 사출(寫出)하기에 력(力)이 핏절(乏絶)하다. 제군은 본보의 수해화보에 의하여 그 참적(慘跡)을 견하고 그 진상을 관하라. 오인의 천만언 보다는 차 일장의 사진이 진(眞)을 사(寫)한 그 화보가 제군에게 제군의 흉리(胸裡)와 정서(情緒)에 충동(衝動)을 여(與)하고 진상(眞相)을 전(傳)해야 아마 제군의 안공(眼孔)으로부터 무한한 동정의 열누(熱淚)를 조출(造出)케 할까 하노라”, 「我 各地 청년 단체에 고하노라」, 『동아일보』 1922.9.6.

24) 「수해동정금속보」, 『동아일보』, 1922.9.23.

사건의 보도를 위한 것과 계절감이나 정취를 드러낸 이른바 ‘스케치 사진’으로 나눌 수 있다.<sup>25)</sup> 그 외에 집중적으로 경성의 변화와 장소성에 주목한 특집 기사들이 주목된다. 그 초기 사례가 1921년의 연속기사인 <경성소경(京城小景)-말하는 사진>이다. 이 기사는 비판적인 눈조와 생생한 현장의 건축사진들을 결합하여 식민통치가 만들어낸 경성의 미관 건설을 조롱하고 있었다.

흥미로운 1회의 기사 제목은 <엽서의 재료>이다 사진은 경성부의 학교 신축 현장을 찍은 것으로서, 가로세로 얹힌 건축용 비계들과 바닥에 놓인 목재들이 어수선하기 짝이없는 공사현장을 그대로 포착했다. 기사는 학교가 없어 배우질 못하는 조선학생이 넘쳐나는 상황 즉, “움속에서라도 선생만 있으면 배우려고 머리를 싸고 덤비는 이 세상”에 21만원이나 들여 사치스러운 학교를 신축하는 저의를 비난한 뒤, “낙성한 후에 사진엽서나 만들어서” “총독부 광고국에서 외국 사람에게 광고하는 자료로는 훌륭하겠지”라고 조롱하고 있었다.<sup>26)</sup> 학교신축이 문제인 것은 21만원짜리 사치스러운 하나의 학교보다는 7만원에 그보다 설비가 좋지 않은 세 학교를 짓는 것이 조선인의 학구열을 만족시키는데 더 효율적이라는 경제적 판단과 교육행정에 대한 실질적인 성의는 없다는 윤리적 판단에 근거한다. 무엇보다도, 『동아일보』는 일본인 제작의 사진엽서들이 담아낸 ‘미관’의 건축 사진이 통치를 선전하는 광고에 불과하다는, 사진엽서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또렷이 보여주고 있었다. 엽서의 사진은 비경제적이고 불평등한 통치를 위장하는 선전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신축되는 건축물들은 『동아일보』의 미학적 시선에서도 볼 때에도 문제가 있었다. <경성소경>에서는 새롭게 지어지는 건축물들의 부조화를 지적했다. 예를 들어 신축되는 총독부 청사의 난방을 위한 굴뚝이 대표적이다. 기사는 “북악산 앞에 혈을 질러” 근정전 앞에 세워질, “조선제일” 총독부 청사의 난방을 위해 세워지는 150척 굴뚝을 일컬어 “하늘에 대하여 주먹질 하는 듯”한 “충천(衝天)의 괴물”로 조롱했다.<sup>27)</sup> 기사는 난방용 굴뚝을 죽음의 연기를 내뿜는 ‘화장터’의 굴뚝에 비유하여, 전통적 궁궐 단청의 화려함 및 담장 위 푸른 이끼의 생기(生氣)와 대조시키고 있었다.

통치가 창출한 미관이 일방적인 것이며 실은 추한 것이라는 분별의 시선은 이어서, 남대문 앞에 세워진 파출소로 향한다. 기사는 전통건축과 어울리지 않는 “눈 서투른” 그러나 “동양제일이라고 자랑거리로 여기는” 경찰관 파출소 건물을 ‘재등(齎藤)총독의 기념탑’으로 조롱하고 있었다. 이 신식 건물은 ‘문화정치’를 표방하면서도 부임 직후 경찰력을 확장한 총독통치의 이중성을 상징한다.<sup>28)</sup>

요컨대, <경성소경>에서 볼 때, 총독정치가 신축하는 건물들이 창출하는 경성의 미관은, 전래의 조선 고유의 건축물과 부조화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민족적 가치에 대한 급격한 단절과 충돌을 가져오는 것이었다. 또한 이를 선전하는 엽서의 사진은, 근본적으로 조선인의 ‘혈을 질러’ 상징적으로 조선의 기세를 누르거나, 조선인을 차별하는 불합리한 식민통치의 현실을 숨기는 이미지로서, 사이토(齋藤) 총독 부임 이후 선전되는 ‘문화정치’의 포장지로 비판되었다. 이러한 <경성소경>의 태도는 식민 통치가 건설하고 있는 ‘경성미관’에 대한 비판과 거부로 읽힐 수 있다. 이러한 비판과 거부는 동아일보가 창간 이후 수행해온 바, 시각 이미지를

25) 스케치 사진으로는 특정한 장소를 명시하지 않고 사계절의 정취를 포착한 풍경사진이 자주 실렸다. 특정한 장소의 스케치 풍경사진으로는 경성교외 청량리의 한적한 풍경, 배가 띄워진 한강 풍경이 자주 등장했다.

26) 「경성소경, 말하는 사진 (1)-엽서의 재료」, 『동아일보』 1921.7.23.

27) 「경성소경, 말하는 사진 (6)-충천의 괴물」, 『동아일보』 1921.7.28.

28) 「경성소경, 말하는 사진 (2)-재등총독의 기념탑」, 『동아일보』 1921.7.24.

통한 민족적 감성의 정치를 수행하는 측면에서 볼 때, 타당한 것이었다. 총독부의 경성 미관 건설과 엮서 이미지에 대한 비판을 발화함으로써 동아일보는 피식민자 공동체의 입장과 관점을 가시화하고 있었다.

## 2) 「내동리 명물」의 기획: 역사로 미관을 궤호치기

동아일보사가 발행한 『경성백승』은 1929년에 발행된 책으로 경성의 100곳을 담은 사진과 그에 대한 짧은 글이 실린 책이다. 이 책은 본래 1924년에 50일간 연재되어 “독자의 대환영”을 받았던 ‘사진기사’ 「내동리 명물」을 전부 수록하여 1929년에 발행한 것이다.<sup>29)</sup> ‘명물’을 다시 5년 뒤에 『경성백승』이라는 엽서상품명을 상기시키는 이름의 책으로 발행한 배경으로는 1929년의 조선박람회의 개최가 있다. 조선박람회는 총독부가 대대적인 선전을 하면서 관광붐을 불러일으키려했던 중요한 통치 이벤트였다. 이해 9월에 개벽사의 『별건곤』은 이를 겨냥해 경성특집호를 발행하면서 요란한 광고를 냈다. 10월에 발행한 동아일보사의 『경성백승』도 이러한 상황에 보조를 맞춘 것이다.

말하자면, 조선인을 대표하는 언론사에서 발행한 『경성백승』은 총독부 관련 기관들이 후원하고 일본인이 제작하는 경성 관광엽서와 경쟁하는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경성백승』은 사진엽서의 전형적 미관들을 배제한 채 구성되었고, 통치가 주도하고 관광업이 창출하는 ‘명승’의 관람 시선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으로 경성의 장소들을 선정, 수집하고 설명했다. 요컨대, 『경성백승』이 담아낸 경성의 장소성은 통치가 만들어낸 미학적 시선이 아니라, 반미학적 시선으로 포착된 것이었다.

『경성백승』에서 선정한 장소들은 황금정통 아래의 남촌을 제외한 북촌의 조선인 거주지(85개의 洞 전부와 비교적 조선인 중심지인 15町)가 중심이 되었다.<sup>30)</sup> 따라서 선정 대상은 경성 사진엽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장소들과 경물들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사진엽서에 단골로 들어갔던 조선총독부 청사, 총독관저, 경성부청사, 척식회사, 경성우체국, 조선은행, 백화점과 같은 경성 미관을 대표하는 근대 건축물은 없었다. 또한 조선왕조의 궁궐이지만 총독부 행사가 개최되거나 공원화되어 식민지통치의 행사 장소나 관람물, 기념물이 되었던 경복궁, 창덕궁 후원, 창경원, 덕수궁도 제외되었다. 동대문과 남대문처럼 그 기능을 잃고 일찍부터 사진엽서에 등장하여 경성의 얼굴이 된 건축물도 제외되었다. 늘 포함되는 한강철교도 없었다. 명동 천주교당은 일본인 중심지역이므로 제외되었다. 사진엽서의 선택과 일치하는 요소로는 독립문과 파고다 공원이 확인될 뿐이었다.<sup>31)</sup>

이러한 장소의 선택은, 『경성백승』이 일차적으로 실제로 조선인 독자들을 상대로 개최한 미

29) 2개의 사진기사가 변경되었다. <주교정 보름우물>이 <미근동 초리우물>로, <봉익동의 정문>이 <예지동의 동문시장>으로 변경되었다. 그 외에는 모든 사진과 내용이 똑같다.

30) “100동리로 제한한 까닭은...부내 전체의 186동리를 다하기는 너무 지루할 뿐만 아니라 101군데의 町은 일본인 중심인 까닭으로 여든 다섯 洞 전부와 조선인 중심지인 15 町을 고른 것”, 「내동리 명물과 독자의 궁금풀이」, 『동아일보』 1924.7.23.

31) 일본인 사진엽서에서 독립문 사진은 대부분 영은문 주초를 포함시켜 포착했고, 중국의 속박을 벗어남을 의미한다는 설명을 드물게 덧붙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경성백승』에서는 영은문 주초가 보이지 않는 정면각도에서 사진을 찍고, 삼일운동 때 독립문 위에 태극기가 뚜렷이 솟아나서 경찰서에서 펄프를 사용해 씻어버렸다는 사건을 소개했다. 파고다 공원의 납석탑(원각사탑)에 대해서 『경성백승』은 탑 상단의 세 개 층이 분리된 이유가 임진난 때 일본 병정이 가져가려 했고 또 갑오년 이후 일본인이 훔쳐가려 했기 때문이라는 탑 훼손과 관련된 일화를 전하고, 자매탑인 경천사탑은 궁내대신 다나카(田中)가 집어갔으니 그의 집 뜰구석에 서있을 것이라며 탑도난 사실도 알렸다. 또, 명동 성당 대신 북촌에 위치한 중림동 약현성당이 선택되었다. 『경성백승』, pp. 81-82, pp. 201-202.

디어 이벤트인 「내동리 명물」의 기사(연재기간: 1924.6.25~8.16)였기 때문에 가능했다.<sup>32)</sup> 『동아일보』가 미디어 정치를 펼칠 독자는 경성 내에서 언어와 지역으로 분리된 상태에 있었던 조선인이었다. 조선인의 북촌과 일본인의 남촌으로 실질적으로 거주지가 분할된 경성에서, 상대 장소로의 이동이나 시설의 이용이 가능하다고 해도, 심리적으로 수용하는 지역은 분명히 구획되어 경계지어져 있었다.

경물의 선택과 사진과 기사내용은 독자들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편집진이 미리 선정하고 작성한 것이었다.<sup>33)</sup> 편집진은 대상을 공개하지 않은 채 엽서를 받고, 선정해둔 각 동의 ‘명물’을 맞춘 이들을 ‘정해자’로 선정하여 이름을 게재하고 1개월간 신문 구독권을 주는 방식으로 ‘명물’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려 했다. 실제 글을 쓴 이들은 사회부 기자들이었는데, 글의 주요 재료는 홍명희와 정인보가 제공한 것으로 밝혔다.<sup>34)</sup> 특히, 홍명희는 1924년 5월에 동아일보 주필과 편집국장으로 취임했고 정인보와 사회주의자들을 사원으로 영입했다.<sup>35)</sup> 「내동리 명물」은 바로 이 시기 새로운 편집진의 기획이었다. 기획은 편집진이 미리 선정한 동네의 명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독자들의 관심을 최대한 유도하면서 전달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독자들의 엽서가 팔백장 이상이나 당도한 가운데, 본래 정한 것을 버리고 독자들이 선정한 명물들을 적극 따랐다고 밝혀서 애초의 기획을 그대로 진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sup>36)</sup> ‘원동 모기’나 ‘창신동 먼지’와 같이 친근감 넘치는 명물들은 독자들이 선정한 것이었다.

『경성백승』에 실린 사진은 사진엽서들의 화면구성과는 차이가 컸다. 사진은 대략 10:7의 비율로 세로가 긴 프레임이었다. 이것은 사진엽서의 17:12의 비율과 유사하지만, 가로로 길게 경물을 배치한 엽서와 달리 세로로 긴 점이 차이가 있다. 건축의 수평선이나 도로선을 화면에 사선으로 포착는 구도를 선택한 것은 엽서와 유사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세로로 긴 프레임 때문에 시원한 공간감을 확보하기 힘들었고, 가로로 긴 건물들의 좌우가 잘려나가게 되었다. 요컨대, 『경성백승』은 건물과 경관을 사진 찍으면서 최대한의 시각적 쾌감을 주도록 프레임을 구성하고 경물을 배치하는 점에는 그다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말하자면, 『경성백승』은 프레임 구성에서 사진엽서들이 선호했던 소위 ‘린칸노비(輪奐の美)’를 담아내는 구도를 고의적으로 훼손하는 구성을, 즉 반미학(反美學)적 구성을 선택했다.

『경성백승』에서 중요한 것은, 미관이 아니라, 건물과 장소에 얽힌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 즉 역사였다. 이야기는 병합 이전 ‘한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역사적 기원을 말하고, 현재는 크게 변화한 장소와 건물의 성격을 짚어내려 했다. 선정된 건축물 54개 가운데 전통 양식의 건

32) 내동리명물을 미디어 이벤트로 보는 연구는, 김해경, 유주은, 앞의 논문; 『경성백승』을 『부세일반』의 건축물과 비교하여 항일의식을 담고 있다고 보는 연구로는 유춘동, 오영식, 앞의 논문.

33) “사진이나 기사 전부는 물론 어느 동리에 무엇이라는 것까지도 본사에서 미리 작성한 것임으로 (중략) 정해자는 다만 알아맞힌 사람이니 정해자가 없어도 사진과 기사가 여전히 나는 것”, 「내 동리 명물과 독자의 궁금풀이」, 『동아일보』 1924.7.23.

34) 「緒言」, 『경성백승』, 동아일보사 출판부, 1929, P.2. 사회부 기자들이 글을 쓰고 홍명희와 정인보가 소재를 제공했다는 사실은 선행연구에서는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35) 1924년 4월 경영진 퇴진요구로 개혁이 시작되면서 홍명희가 편집국장을 맡았으나 1925년 4월에 『시대일보』로 자리를 옮기고 송진우가 복귀했다. 1924년까지 동아일보의 사상적 스펙트럼은 사회주의를 포괄했다. 장신, 『조선-동아일보의 탄생-언론에서 기업으로』, 역사비평사, pp. 91-94.

36) 「내동리 명물 투고 답지」, 『동아일보』, 1924.6.14. “내동리 명물은 발표된 이후 독자 제씨는 물론 일반사회의 환영이 비상”하다고 언급하고, 들어온 엽서가 팔백장 이상이며, “더욱 개중에는 기발하고 훌륭한 것이 적지 아니하여 본사에서 미리 작성한 바와는 다른 것이 많으나 원래 본사는, 더욱 이번 계획은 순전히 일반의 뜻을 본위로 하는 것임에 이러한 경우에도 조금도 꺼림없이 본사의 의견을 버리고 일반의 뜻을 좇아 출중한 것을 선발 게재 하려합니다. (중략) 들어온 투고 중에 몇가지 전례를 들면 창신동 먼지, 원동 모기 같은 것이라도 그 동리 일반사람의 이야기 거리가 되고 입위에 항상 오르는 것이면 두말없이 명물이외다.”

물이 37개소인 것은 근대 건축이 적었던 북촌 지역인 이유도 있지만,<sup>37)</sup> 애초에 장소의 내력, 즉 역사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경성백승』은 일본인의 미관 건축과 유사한 조선인의 근대 건축물들을 명물로 제시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이 주도하는 미관과 유사하거나 이에 도달한 것으로 제시할 만한 조선인의 건축물들을 애써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것은 근대 건축물을 표준 삼는 미학적 시선의 시각적 격자(格子)를 버리고, 현존하고 있는 조선인들의 경성을 있는 그대로 가시화하려는 기획이었다. 요컨대, 사진엽서류의 ‘미관’의 시선은 접어두는 것이었다. 그러한 뒤에 사진과 기사는 경성의 장소들을 새롭게 선택하고 경성을 재의미화했다. 이를 통해서 경성은 (1) 식민지 통치성에 대한 비판을 가시화하고 (2) 조선인의 숨겨진 역사, 삭제되고 있는 역사를 가시화하는 장소로 재규정되었다. 그것은 일본인이 구축한 경성미관을 해체하고, 조선인의 경성을 발견하여 가시화하는 과정, 대안적 장소성의 이미지와 이야기를 발굴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 (1) 식민지 통치성에 대한 비판

『경성백승』에서 가시화한 것은 일차로는 식민지 통치의 폭력과 불평등이었다. 이것은 이른바 “한국시대”(대한제국기)에 건설되어 이후 급변하는 장소성을 겪어낸 건물의 역사를 확인하면서, 또는 신설된 일본인의 통치용 건축물을 제시하면서 지적되었다. 여기에는 통상적으로 관관용 사진엽서에서는 선택되지 않는 통치기구들이 선택되었다.

예를 들어 3회의 명물인 <공평동 재판소>는 공평동에 있는 경성지방법원 건물을 멀찍이 포착한 사진을 실었다. 이것은 서양식 건축물로서 ‘한국시대 융희(隆熙) 2년’에 평리원(平里院) 건물로 지은 것이나, ‘대정원년 사월에’ 총독부 재판소령에 의거하여 경성지방법원이자 복심(覆審)법원으로 변경된 건물이다.

사진에 덧붙인 설명들은 모두 근과거의 사실들이다. 글은 조선인의 굴곡진 현대사를 재판소 사진을 경유하여 제시하고 있었다. 설명에 따르면 ‘공평동 재판소’는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는 조선인들을 법적 제도로 제압하는 공간이었다. 저항했던 조선인들의 재판이 역사적 사실로 제시되었다. 의병대장으로 유명한 허위(許蔭)와 이강년(李康年)이 사형선고를 받고 “가슴을 찢으며”, 사내(寺內) 총독 시대에는 그 유명한 “105인 사건”으로 민족인사들을 구속하여 재판하던 곳, “조선 천하를 진동하든 00운동사건”(삼일운동)의 판결을 내린 곳, 재등(齎藤) 총독에게 폭탄을 던진 후, “힌 수염을 뺏치고 강개히 재판장을 논박하든 강우규(姜宇奎)”가 재판을 받은 곳도 이곳이었다. 재판소는 역사의 눈을 통해 다시 정의되어, 반일 조선인들을 응징하고 그 운명을 좌우하던 곳이자 제국 통치의 근본적인 부정의함과 균열을 드러내는 곳으로 규정되고 있었다.<sup>38)</sup> 또한, 무엇보다도 건물 설립의 기원이 되는 시기를 지금은 사라진 ‘한국시대’, 대한제국기로 명명함으로써 식민지 전략 이전에 존재했던 조선인 주권 국가의 존재를 기억에서 소환하여 분명하게 상기시켰다.

실질적 폭력의 기구인 ‘기마경찰’을 소개하는 <수송동 기마대> 편에서는 좌우로 담장이 절단된 기마대 입구의 사진을 제시했다. 시멘트로 지은 정문과 멀리 마사(馬舍)로 보이는 건물을

37) 숫자는 김해경, 유주은, 앞의 논문.

38) 이 기사는 “이런 간조한 법정에도 때때로 꽃같은 미인이 신세 한탄을 하며 어여쁜 얼굴에 눈물을 흘리고 아무래도 저는 살수 없어요하는 리혼재판도 근년에는 많습니다”라고 마무리하여 이혼재판이 일어나는 최근의 상황도 소개했다.

포착한 사진은 삭막하기 짝이 없지만, 덧붙인 설명은 1907년의 기마경찰 창설의 기원과 지금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기마대, 정확히는 기마순사혈소(騎馬巡查詰所)는 정미(丁未)년 군대해산(1907) 이후 “물끓듯 하는 경성을 진정키 위해,” “당시 한국경찰의 고문이던 환산중준(丸山重俊)”이 창안했다. 기마대는 경기근처 의병의 토벌까지 했었다가 기미년 “00운동”이 일어나자 그 수를 크게 늘렸다는 경과도 소개되었다. 과거의 기원은 지금의 폭력적 현실을 초래했다. 경성의 기마대는 ‘명물’로 동아일보에 기사가 실리기 9일 전인 1924년 6월 18일에 조선인 단체들이 결속하여 기획한 ‘언론집회압박탄핵회’를 막기 위해 출동하여 이를 사전 봉쇄했다. ‘내동리 명물’의 기사는 최근의 이 사건까지 언급하면서 “언론압박에 분개하여 일어난 민중의 진정한 불온짓음까지 이 기마순사대의 말굽으로 짓밟았습니다”라고 고발했다.

『경성백승』에서는 <서린동 구치감>과 <현저동 형무소>(서대문형무소)의 두 항목을 통하여 과거와 현재의 감옥건물을 제시했다. 감옥은 사진엽서의 미관에서는 언제나 삭제되는 건물이지만, 통치와 미관을 유지시키는 핵심적인 기구이다. 기사는 비어버린 구 감옥(서린동 구치감)과 신설된 감옥(현저동 형무소)를 건물을 절단하는 프레임을 통해서 포착했다. 서대문 형무소로 그 기능을 이전한 서린동 구치감은 “옛날 전옥(典獄)”이 기원이었으나,<sup>39)</sup> 현재 그 모양은 처량한 대문으로 남았고, 그마저 X자로 폐쇄되었으며 옆에는 폐물들이 버려졌다. 기사는 감옥에 꼭 죄지는 사람만 있겠냐며 “세상이 이렇게 된 뒤로 더욱이 죄지는 사람만 가두는 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라고 되묻는다. 또한 감옥이 폐쇄된 이유가 “원체 엄청나게 큰 감옥이 담 안 쌓고 낙성되었으니 이까지 감옥은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인지”라며 조롱섞인 반문을 던진다. 이 말은 조선 반도야말로 “담 안쌓고 낙성된 엄청나게 큰 감옥”이 아니냐는 풍자적 은유로 독해된다.<sup>40)</sup>

<현저동 형무소>에서, 사진은 ‘무서운 명물’의 위압적인 근대적 외관을 그대로 전달하고, 글은 감옥에 갇혀 고생하는 “불행한” 이들을 동정과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봤다. 감옥이 부당하니 갇힌 이들에게 잘못이 있을 리 없다. 태생부터의 불평등으로 인해 “먹고 입을 것이 없어 목구멍이 원수라 맘을 잠깐 이상히 먹고 무엇을 어쩔다가는 감옥소 밥에 머리가 세게 되”는 것이다. 두 기사는 조선을 거대한 담없는 감옥으로 은유하면서 거기 갇힌 조선인 자신을 동정하며 연민하는 감정을 드러냈다. 감옥이 부당하다면, 죄인을 만들어 분리, 감금하는 통치의 질서는 그 정당성을 잃게 된다.

한편으로, 일본인 거주시설에 대한 사진 기사에서는, 경제적 불평등을 가시화하는 것으로 보고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식민지 통치 정책을 비판했다. 동양척식회사와 조선식산은행의 직원들의 주택은 각각 <통의동 동척사택>과 <송현동 식은촌>으로 소개되었다. 척식회사와 식산은행의 두 기관은 식민지 통치의 경제적 중심기관이며, 이에 거주하는 이들은 일본인 가운데서도 최상층에 속할 것이다. 동양척식회사의 건물은 경성의 관광엽서에 등장했던 건물이지만, 직원의 사택은 엽서사진용 소재는 아니었다. 기사는 사택의 사진을 제시하고, “동척인지 도

39) 전옥은 조선시대에 감옥 명칭인데, 사진의 건물은 근대식이다. 이 건물은 ‘종로구치감’으로 불렸고, 명치 삼십년 경(1897년경)에 조선의 모범감옥으로 건설되었다가 이후 미결감으로 사용되고 1921년에 서대문 형무소로 이전하였다는 기사가 보인다. 『종로구치감 이전』, 『조선일보』 1921.3.14; 이 건물의 부지에는 1925년에 신탄소채시장(薪炭蔬菜市場)을 설치하기로 결정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부영신탄장 또하나 생긴다 전구치감터에』, 『조선일보』 1925.7.8.

40) “이 옥속에서 죄로 죽은 사람도 많겠지요마는 이름은 세상에 높고 몸은 이속에 빠졌든 명신의사인들 적겠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된 뒤로 더욱이 죄지는 사람만 가두는 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중략) 원체 엄청나게 큰 옥이 담 아니싸고 낙성되었으니 이까지 옥은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인지 어찌하였는지 이 옥은 없어졌습니다. 이것저것 이야기 하여야 무엇합니까. 담도 없는 이 큰 옥이야 말로 생왕방(生旺方)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성백경』, 85-86쪽.



척”인지가 “어떤 의미로 조선의 명물”이라 하면, 그 회사 사람들이 들어있는 동척사택은 “좀 창피하지만” 명물인 건 당연하다고 운을 떼고 나서는, “이 집들 때문에”, “이 집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살리노라고” 남부여대하고 고국을 떠난 사람이 얼마인지 아느냐, 거리로 방황하는 형제가 얼마인지 아느냐고 호통쳤다. 또한 이들을 속히 물리쳐 통의동이라는 동네 이름인 “義의 동”처럼 이치에 맞게 세상이 고쳐질 날이 언제일지도 자문했다.

<통의동 동척사택>의 사진은 높은 담장이 사선으로 이어지는 근대적 주택단지를 포착했는데, 이러한 사진의 각도는 <송현동 식은촌> 사진에도 사용되었다. 송현동 식은촌은 순종의 장인이자 귀족인 윤택영(尹澤榮)의 저택이 있었던 곳이었다. 기사는 송현동 일대가 식은 사택이 된 것만으로도 “조선인 경성”의 몰락을 알 것이라고 한탄하면서, 미국식 고급스런 문화주택은 누구의 돈으로 지었는지 질문하고 있었다. 그나마 식산은행 사택 덕택에 인근 안국동 전차가 일찍 들어왔으니 “전차타는 맛에 견딜까”라고 자조하면서 맺는 마지막 문구에는 함축적인 은유도 담았다. 일본인의 근대적 시설을 이용하는 조선인이 마치 양반이 아니되 양반의 장신구를 두르고 허세부리는 모양이라는 것이다.<sup>41)</sup>

전체적으로 볼 때, 통치기구와 일본인 건물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드러낸 『경성백승』의 사진기사의 수는 많지 않다. 또한, 근대적 시설물 전체가 비판의 대상으로 간주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의동 연초공장>에 대한 사진기사는 뚜렷한 비판적인 시선을 보여주었다. 이곳이 “니코틴 중독자를 길러내는” 곳이며, 연 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어 “가난한 조선사람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곳이라는 사실이 지적되었다. 특히 15세 미만의 직공들 오백 명이 하루 열 시간의 저임금의 노동을 하는 곳으로 소개하면서, 이 공장을 “참말 가엽고 가슴 두드릴 명물”이라고 한 언설은 주목된다. 이 사진기사는 반향이 있었는지, 『동아일보』는 후속 기사로 경성의 세 곳 연초공장에서 일하는 소년직공의 숫자를 밝혔다. 또 8월에는 인의동 연초공장의 소년공들이 개성 수재민들을 돕기 위한 의연금을 보내온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sup>42)</sup>

## (2) 장소에 숨은 조선인의 역사를 가시화하기: 장소의 역사화, 역사의 장소화

『경성백승』의 35퍼센트 가량의 기사들은 조선인 자신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역사가 깃든 장소와 건물을 사진으로 가시화한 것이었다. 이 기획은 조선과 대한제국기의 역사를 가시화하는 시도였다. 『경성백승』의 광고에서 동아일보는 “경성은 근대 조선문화의 발원지요, 조선역사의 축소도(縮小圖)입니다. 경성을 아는 것은 조선을 아는 것입니다. 노방(路傍)에 구르는 돌 한 개, 폐허(廢墟)에 꽃힌 나무 한 개라도 역사적으로 의의를 가지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라고 규정하고, “조선 역사를 알고자 하는 이는 이 책을 읽으시오”라고 하면서 책이 역사를 경유하여 경성의 장소성을 ‘근대조선문화의 발원지’로 새롭게 의미화하는 의도임을 분명히 했다.<sup>43)</sup>

41) “쓰러져 가는 초가 집 앞에서 경비를 절약하느라고 하급 행원을 도태하면서도 정원들 앞에는 괴석과 화초가 하나씩 둘씩 늘어감도 이상하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택으로 덕본 것은 안국동 전차가 속히 된 것이라 합니다. 성은 피가라도 관자맛에 산다고 전차타는 맛에 견딜까요.” 『송현동 식은촌』, 『경성백승』, 22쪽. “성은 피가라도 관자맛에 산다”는 것은 양반 성씨가 아님에도 양반의 의복인 관자장식을 두르는 맛에 산다는 뜻으로 진짜 양반이 아님에도 가짜 치레로 허세를 부리는 모습을 풍자한 속담이다.

42) 7월 6일의 명물 기사로 나갔던 인의동 연초공장의 직공들은 8월 9일에 “푼푼히 모은 돈으로 십원을 거두어서” 개성의 수재민들을 위한 의연금을 송달하기도 했다. 당시 연초공장은 전매국의 분공장이라는 이름으로 서울 세 곳, 평양, 전주, 대구, 한 곳씩 설립되었다. 전매국이 분공장은 지역의 보통학교 졸업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몇 안되는 귀한 직장이었다.

『경성백승』의 기획은 장소의 역사화이자, 역사의 장소화였다. 이것은 사진엽서에 포착된 경성, 통치에 의해 미관으로 포장된 경성의 장소성을, 역사를 관통시킴으로써 해체시키고 재구성하는 작업이었다. 무엇보다도, 경성백승이 찾아간 장소는 사진엽서가 선택한 미관이 아닌 장소, 통치의 시선이 배제한 장소였다. 숨겨진 장소, 미관의 시선에서는 포착되지 않는 비(非)장소들을 찾아 그것을 가시화하는 시선은 조선인이 쓰는 과거의 역사를 경유함으로써, 다시 말해서 ‘역사의 눈’을 통과함으로써 생성될 수 있었다. 다시 말하자면, 과거를 기억하기와 숨겨진 장소를 드러내기라는 두 작업을 결합시킨 『경성명승』의 사진기사는, 과거의 역사를 지워가며 장소를 미관으로 전환시키는 식민지 통치 작용 아래서는 보일 수 없었던 것들을 대대적으로 가시화했다.

말해지지 않는다면 그 장소를 알아볼 수도 없는 <송사동 월사구기(月沙舊基)>가 대표적이다. 사진은 아무런 건축물도 없는 빈 터를 제시한다. 이곳은 사진엽서에 등장하기도 했던 건물인 ‘총독부 의원’의 뒤편에 있는 일본인 채마밭(채소밭)으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장소이다. 이곳은 조선시대 최립(崔笠)과 더불어 문장으로 이름이 높았던 월사 이정구(月沙, 李廷龜)의 옛집터(舊基)이다. 기사는 그가 명나라에서 단엽홍매화를 들여와 여기에 심었다는 내력을 전했다. 한편, 현재는 변소를 청소하는 마차들이 오가는 황량한 근대 건축물 <계동 위생소>는 놀랍게도 과거에 경우궁(慶祐宮)이 있었던 곳이다. 경우궁은 순조 모친의 사당이였으며, 갑신정변이 일어난 3일간 고종과 민비가 임시 거처로 머물렀던 역사적인 장소이다. 궁에서 위생소로의 급격한 변화는, 거슬러 올라간다면 갑신정변의 실패한 개혁의 결과물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숨겨진 허름한 가옥들은 조선시대의 흥미로운 역사를 담은 장소로 재발견된다. <안국동 감고당(感古堂)>은 “지금은 빈민굴 같이” 되었지만, 숙종의 비인 인현왕후가 장희빈의 참소로 인해서 6년간 머물렀던 친정, 즉 려양부원군(驪陽府院君) 민유중의 저택이었다고 전한다. 소나무가 담장을 넘어가 인현왕후에게 그늘을 지어주었다는 고사를 따온 듯, 사진은 담장을 넘어간 나뭇가지를 포착했다. <권농동 경판각(經板閣)>도 낡아빠진 고건축에 지금은 일본사람이 주인이지만, 말 한마디에 팔도가 떨어졌다는 세도가 흥국영의 사랑채였다. 이야기들은 교훈을 전달하기 보다는 흥미를 자극하면서, 현재는 낡고 누추한 건물에 담긴 조선시대의 재미있는 역사를 제시하여 지금과는 다른 통치의 질서가 과거에 존재했음을 상기시킨다. 그것은 조선인들의 과거이며 미관으로 포장된 식민지의 현재가 숨기고 있는 민족의 역사이다.

한편으로, 『경성백승』은 건물을 매개로 과거와 현재를 대조하여 조선의 왕실과 양반들의 크게 변화한 현재의 상태를 대조하여 보여준다. 그것은 슬프게도 영락하고 변질한 현재이다. 영락에는 세월의 무상(無常)함의 정서가, 변질에는 조롱과 비난이 덧붙여졌다. 예를 들어 그 기능이 이왕직(李王職)으로 이관되거나 그 역할이 아예 없어져 성격이 다른 건물이 되어버린 <소격동 종친부>나 <와룡동 종부사>가 대표적이다. 이 두 건물은 종실과 왕족을 엄격히 관리했던 세종의 현명한 통치를 기억하도록 한다. 그러나 동시에 과거 조선의 왕족과 양반들이 현재는 후작, 백작과 같은 총독부가 만든 ‘조선귀족’이 되어 버린 현재를 깊이 탄식하도록 만든다.<sup>44)</sup> 현재 종친청년회로 사용되는 <종부사> 건물에 붙은 황금색 이화(요약꽃)표는 “풍우 속에 떨어진 꽃송이”처럼 영락한 모습일 뿐이다.

또한, 역사적 건물들은 현재 의심스러운 친일 단체의 활동장소로 변질되었다. <관훈동 충훈부(忠勳府)>는 조선시대 훈신을 예우하던 기관이지만, 지금은 중추원에서 활동하는 친총독부

43) 경성백승 광고, 『동아일보』 1929.11.29.

44) 소격동 종친부는 총독부 서고로, 종부시는 전주이씨 종약소, 종친청년회 건물로 사용되고 있었다.

유림 단체 ‘대동사문회’의 기관이 되었으며, <수은동 포도청>은 조선시대 경찰서였던 건물이지만 현재는 ‘신일본주의’를 내세운 ‘국민협회’의 건물로 변질되었다. 국민협회라는 단체는 “그전 같으면 포도청에서 학치(정강이)를 끊어도 죄가 남을 것인데 세상이 세상이라 포도청 집에서 제멋대로” 노는 세상이라는 것이다. 친일 조선인에 대한 비판적 발언은 여과없이 신랄하게 표현되었다.

이처럼, 과거의 기능을 잃고 영락하거나 변질된 건물들은 조선왕조에서 대한제국을 거쳐 총독통치의 세상이 된 현재의 급격한 역사적 변화를 실감하게 한다. 이 변화의 인식은 여전히 곳곳에 남아 목숨을 이어가고 있는 많은 건축물의 과거를 이야기함으로써만 가능하다. 역사가 아니라면 변화는 인식되기 힘들며, 영락과 변질의 현재만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경성백승』의 기사는 미관을 구축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경성의 현재를 멈춰세우고, 장소에 감추어진 과거의 역사를 경유하여, 은유의 방식으로 현재 이루어져야 할 정의(正義)를 암시하고 있었다.

#### 4. 결론: 역사의 눈과 경성 장소성의 새로운 발견

일본인이 제작한 경성의 사진엽서는 식민지 통치가 건설한 근대적 도시경관을 미학적 시선으로 포착하여 제시한 시각 미디어였다. 경성의 미관을 건설하려는 식민지 지배층의 담론은, 1910년대 경성의 시구개수가 이루어지던 무렵 매일신보사의 신축을 축하하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경성의 미관은 이후의 경성 도시개발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고려되었다. 경성의 미관은 ‘근대미’, ‘근대미관’, ‘경성명승’ 등의 제목 하에 발행된 사진엽서에서 제시되었다. 경성에 설립된 통치기구의 근대적 건물과 관람용 장식으로 변화한 조선 왕조의 고궁이 미학적으로 정련된 사진 구도 안에 포착되었다. 가로로 넓은 프레임에 건물의 외곽선의 아름다움을 음영의 대조를 통해 포착하고, 정면과 측면을 3:1 내지 4:1의 비율로 하여 건물의 안면성을 부각시키는 구도가 선호되었다. 경성의 미관을 담은 사진엽서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성공을 홍보하며 관광업과 연계되는 경성의 장소성을 구축했다.

『경성백승』은 통치가 만들어낸 미관을 배제하고 조선인의 유사 미관도 배제하면서, 통치의 폭력과 불평등을 가시화하여 비판하고, 급변하는 현재에 묻혀 사라져가는 조선인의 역사를 회복하여 이를 통해 경성의 장소성을 새롭게 발견하려 했다. 『경성백승』은 사진엽서의 미학적 시선을 접어두고, 조선인이 경성을 소유했던 과거의 역사와 충돌시켜 현재를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불의한 통치의 결과물로 전환시키려 했다. 이때 불러내어지는 역사는 현재적 질서의 타자이며, 낯선 것이며, 없어진 건물처럼 좀처럼 가시화되지 못하는 것이다.

『경성백승』의 사진은 반미학적이었다. 사진은 일본인이 선호했던 장대한 건축미, ‘린칸노비(輪奐の美)’를 훼손하고 절단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경성백승』이 보기에 식민지 통치가 만든 미관은 ‘양반도 아니면서 양반인 척하게 만드는 가짜 장신구’과도 같았다. 그 장신구를 벗으며 『경성백승』이 가시화한 경성의 이미지는 통치를 정당화하는 미학을 괭호치면서, 과거를 불러내어 현재의 감각적 질서를 뚫어내려 했다. 이 과정은 좀처럼 가시화될 수 없었던, 일본인이 제작한 경성의 사진엽서에는 부재한 장소와 건물들을 사진 찍어 제시하면서, 식민지 통치의 폭력과 불평등을 비판하고, 무엇보다도 조선왕조와 대한제국의 역사를 대중적이고 친근한 이야기 형식으로 드러내어 지금과 다른 통치성이 있었던, 다시 말해, 민족이 소유했던 경성이 존재했음을 기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역사의 눈’을 경유하자 숨겨진 장소들이 의미를 획득했고, 지금은 변질된 것들의 원래의 자리와 기능이 드러나면서 현재와 다른 과거가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역사가 장소를 재규정하여, 그 장소에 현재까지 누적된 조

선인의 삶을 불러냄으로써 통치의 현재적 질서를 해체할 수 있었다.

『경성백승』은 일본인의 경성미관을 비판하면서 대안적 이미지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차원에서 미관이 삭제하려 한 경성의 다양한 장소성을 가시화하려 했다. 특히, 왕실과 양반의 역사가 담겨져 조선인에게 의미있는 장소 이외에도, 그 어떤 의미로도 구획될 수 없는 현재적 삶의 건물과 장소, 인물에도 주목했다. 근대적 수도 설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선인에게 인기있는 마을 곳곳의 우물, 활기 넘치는 조선인 시장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어리석지만 힘이 넘치는 조선인, 노동자 ‘와다시’(술만 마시면 일본어 와다시를 외쳐서 붙은 별명)는 위태롭지만 가능성이 넘치는 조선인의 현재로 제시되었으며, 어제와 오늘이 다른 기생의 생활과 일본인 빈민촌 안의 삶도 들여다보았다. 요컨대, 『경성백승』이 포착한 것은 비판되어야 할 통치나 붙잡아야 할 조선인의 민족적 역사만은 아니었다. 역사와 통치로 포획되지 않는 장소, 명성이라곤 없지만 고유하게 지속하는 유기물적, 무기물적 존재, 그러한 것들의 평범성 자체가 경성을 이루는 중요한 원소로 제시되었다.

▶ 『경성백승』의 수록물 일람

	동리	명물	구분		동리	명물	구분
1	종로	종각	고건물	51	창신동	창신궁(昌信宮)	고건물
2	안국동	감고당(感古堂)	고건물	52	옥인동	송석원(松石園)	신건물
3	공평동	재판소	신건물	53	죽첩정	굴	터널
4	원동	모기	곤충	54	청엽정	효창원(孝昌園)	묘원
5	수송동	기마대	신건물	55	통의동	사재감(司宰監)	고건물
6	계동	위생소	신건물	56	청운동	청풍계(淸風溪)	자연, 고건물
7	소격동	종친부(宗親府)	고건물	57	무교정	장전(穢塵)	상점, 고가구
8	가회동	취운정(翠雲亭)	고건물	58	서대문정	흥화문(興化門)	경희궁 정문
9	화동	복주우물	우물	59	혜화동	풍차	신건물
10	송현동	식은촌(殖銀村)	신건물	60	평동	망건방(網巾房)	고건물
11	삼청동	절제우물	우물	61	이촌동	수해	자연재해
12	수은동	포도청	고건물	62	창선동	썩은 다리	다리
13	운니동	쫄쫄우물	우물	63	송일동	앵도밭	꽃
14	재동	백송(白松)	식물	64	신교동	선희궁(宣禧宮)	고건물
15	돈의동	나무장	시장, 고건물	65	옥천동	연적교	돌다리
16	견지동	민공구택(閔公舊宅)	고건물	66	마포동	마포	강변포구
17	팔판동	청기와집	고건물	67	사직동	사직단	고건물
18	경운동	민자작저(閔子爵邸)	고건물	68	누상동	백호정지(白虎亭址)	고건물터
19	관훈동	충훈부(忠勳府)	고건물	69	현저동	형무소	신건물
20	낙원동	측후소(測候所)	신건물	70	필운동	돌거북	바위, 석물
21	인사동	태화관(泰和館)	고건물	71	수창동	내수사(內需司)	고건물
22	다옥정	기생	인물	72	정동	서양인촌	신건물
23	와룡동	종부사(宗簿寺)	고건물	73	간동	궁인가(宮人家)	고건물
24	인의동	연초공장	신건물	74	수하정	일인 빈민굴	판자집
25	삼각정	굽은다리	다리	75	송이동	자동차수선공장	신건물
26	수표정	수표교	다리	76	중림동	천주교당	신건물
27	익선동	줄행랑	고건물	77	송사동	월사구기	공터, 채소밭
28	도염동	모형탑	신건물	78	통의동	동척사택	신건물
29	관수동	관수교	다리	79	이화동	장생전(長生殿)	고건물
30	청진동	내외주점	고건물	80	서계동	편쌈터	강변
31	훈정동	어수우물	우물	81	원남동	권초각(捲草閣)	고건물
32	병목정	갈보	인물	82	충신동	백채포(白菜圃)	배추밭
33	미근동	초리우물	우물	83	내자동	내자시(內資寺)	고건물
34	예지동	동문시장	시장	84	누하동	쌈지	쌈지제작노인
35	권농동	경판각(經板閣)	고건물	85	중학동	구중학(舊中學)	고건물
36	장교정	설령탕	음식, 음식점	86	도화동	연와공장	직공, 가마
37	효제동	해나무	식물	87	연지동	개구리소리	생물
38	행촌동	은행나무	식물	88	의주통	독갓이골(도깨비골)	귀신, 지역
39	관동	독립관	고건물	89	효자동	내시	인물, 고건물
40	교북동	독립문	신건물	90	송월동	월암(月巖)	바위
41	동송동	낙산	산	91	광희정	파리	생물
42	서린동	구치감	신건물	92	합동	춘향	걸인, 초가집
43	승인동	관왕묘(關王廟)	고건물	93	교남동	대장간	노인, 고건물
44	천연동	천연지(天然池)	연못	94	냉동	휴지도가(休紙都家)	고건물
45	궁정동	육상궁(毓祥宮)	고건물	95	관철동	동상전(東床廬)	고건물, 상점
46	연건동	갯바치	토담집	96	장사동	묘심사(妙心寺)	고건물
47	봉래정	빈민굴	사람, 판자집	97	홍파동	면내집	고건물
48	체부동	돌함집	고건물	98	당주동	와다시	인물
49	송이동	성균관	고건물	99	통동	임금원	사과밭
50	적선동	종침교(琮琛橋)	다리	100	종로	납석탑	원각사지탑

## 근대 시각문화사 연구의 사례

### - 경성 사진엽서와 동아일보사 『경성백승(京城百勝)』의 비교연구 - 에 대한 토론문

황익구(동아대)

이 발표는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제작한 경성 사진엽서와 동아일보사가 1929년에 발행한 일종의 사진첩『경성백승(京城百勝)』을 비교함으로써 당시 식민권력이 경성의 도시 미관을 구축해 가는 과정에서 보여준 이미지와 그에 대한 조선인의 태도를 고찰하고 있다.

경성이 근대적인 도시로 변모되어 가는 과정, 즉 도시계획과 개발, 공간의 재구성과 미적 이미지(미관)를 구축하는 과정을 당시에 주로 식민권력 측이 대량으로 제작 유포한 사진엽서에 착안하여 도출하고자 한 점은 사진엽서가 동시대의 식민권력의 시선과 욕망을 재현하는 주요한 시각 미디어였다는 점에서 유효하고 타당한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또 다른 비교 대상인 동아일보사의 『경성백승(京城百勝)』에 대해서는 ‘통치가 건설한 경성 미관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밝히고, 대안적인 경성 이미지를 창안한 예’라고 제시하며 동아일보사의 민족적 사진 기획과 발행 의도라고 할 수 있는 ‘통치가 만들어낸 미학적 시선이 아니라, 반미학적 시선으로 포착된’ 점을 강조하고 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매체가 사용한 경성 이미지를 대립적인 것으로 보고 대조적으로 분석하여 식민자와 피식민자의 시선의 차이를 도출’한다고 하는 연구 목적에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양자의 비교 대조는 충분히 학술적 가치가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자의 비교 대조라는 전략이 지배와 피지배, 문명과 비문명, 미학과 반미학, 제국적 감성과 민족적 감성, 반역사와 역사 등과 같은 이항대립적 구도가 다소 도식적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독자로 하여금 논의의 결론이 이미 예견되어버릴 수 있다는 점은 과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과제에도 불구하고 동시대의 주류처럼 구축되고 확산된 경성 혹은 조선의 이미지와는 다른 대안적 이미지를 발굴하고 제시함으로써 식민권력이 구축하고 확산하려고 했던 이미지에 균열과 재인식의 필요성을 제기한 점은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사료된다. 이상의 내용으로 발표문에 대한 토론자의 소회를 밝히면서 몇 가지 토론자의 소박한 질의를 제시하는 것으로 토론을 마치고자 한다.

#### 【질의 내용】

1. 일제강점기 식민권력이 제작하고 유포한 조선 관련 사진엽서(혹은 사진)는 제작 시기와 제작 주체(관제, 사제) 등에 따라 그 이미지에 대한 해석과 의미 부여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식민지 초기에 제작된 관제(조선총독부 등) 사진엽서는 조선의 전근대성, 비문명, 비위생의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써 식민 지배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한편 1920년대 30년대에는 조선의 변천, 예컨대 근대성, 문명, 위생 등의 이미지를 조명함으로써 소위 시정(施政)의 선전과 홍보를 강조하는 프로파간다의 목적이 강하게 표출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사진엽서(혹은 사진)의 이미지를 간단히 일반화하기보다는 비교 대상의 시기, 제작 주체, 목적 등을 보다 세밀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은지?

2. 비교 대상의 설정에 있어서 그림엽서와 사진첩(혹은 신문 연재 수록 사진)은 제작목적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선총독부 발행의 팸플릿(경성, 경성 안내)이나 경성일보 발행의 팸플릿(1923년 포켓 경성안내) 등에 수록된 사진 이미지와의 비교 대조가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

3. 동아일보사의 『경성백승(京城百勝)』이 1929년 조선박람회 개최 시기에 맞추어 발행되었다면 사진첩 서두에 「序」, 「緒言」 등에 발행 관련 목적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소개를 부탁한다. 아울러 이 사진첩의 발행 부수 혹은 판매 부수, 독자층, 동아일보사 편집국장 송진우의 역할과 편집방침(『巨人的 숨결 : 古下宋鎮禹關係資料文集』동아일보사, 1990 에 후반부에 약 70여 페이지로 경성백승을 수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문) 등에 대해서도 소개를 부탁한다.

\* 보충 질의: 논문에서 「조선인 사진가나 사업자가 경성 사진엽서를 제작한 사례는 현재까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혹시 이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확인된 사실이 있는지 문의에 추가한다.





제2부 - 발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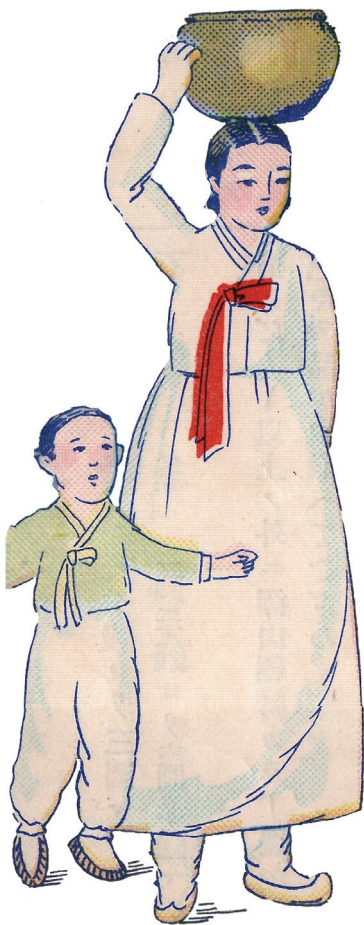
# 1930년대 경성(京城) 팸플릿

## 표지 연구

시각언어 관점으로

발표: 박영희(동아대)

토론: 한현석(국립한국해양대)





## 1930년대 경성(京城) 팸플릿 표지 연구 : 시각언어 관점으로

박영희(동아대학교)\*

### 【 목 차 】

- |                   |                                 |
|-------------------|---------------------------------|
| 1. 들어가며           | 3) 타이포그래피(Typography)의<br>표현 기법 |
| 1) 연구 목적과 배경      | 3. 발행주체별 표지 이미지 특성              |
| 2) 연구 범위와 방법      | 1) 조선철도부 산하 철도국                 |
| 2. 경성 팸플릿 표지의 특성  | 2) 경성관광협회                       |
| 1) 시각언어의 개념과 특성   | 3) 민간 상업 업체                     |
| 2) 이미지의 시각적 표현 기법 | 4. 나오며                          |

### 1. 들어가며

#### 1) 연구 목적과 배경

경성<sup>1)</sup>은 1910년 일본의 강제 병합 이후 식민지 지방도시로서, 식민지 행정과 근대화 전략이 교차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기능하였다. 한반도 교통망의 중심지이자 조선에서 가장 발달한 도시로 부상한 경성은, 일제 식민지 관광의 주요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단순한 도시적 공간을 넘어 일본 제국의 식민 통치와 근대화 정책, 그리고 그에 따른 문화적·사회적 변동이 집약적으로 반영된 공간으로 전환되었다. 특히 철도 교통의 발달은 경성을 식민지 조선 내 관광 붐의 중심으로 부각시키며, 제국 권력이 집중되는 핵심 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였다.

일본에서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승리를 계기로, 만주, 중국, 조선 등 대륙 관광이 유행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해당 지역들이 일본의 근대 국가 형성과 제국주의적 확장 과정에서 결정적인 전장(戰場)의 무대로 기능했다는 상징성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일본 정부는 1901년 경부철도의 개통과 1906년 남만주철도주식회사의 설립을 통해 조선과 만주의 철도 운영권을 확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대륙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장거리 외지 여행이 장려되었고, 이에 부응한 다양한 여행 안내서와 관광 관련 출판물이 대거 간행되

\*역사인문이미지연구소 선임연구원.

1) 경성은 조선시대와 대한제국기에도 사용하던 수도의 명칭으로, 조선시대에는 경성, 왕성, 도성, 왕경(王京), 서울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게 된다. 일본인들이 호칭하던 경성은 일제가 한국을 강제 병합한 이후 한반도를 '조선'이라고는 지역적인 명칭으로 부르면서 만든 용어이다. 기존의 한국인들이 부르던 경성의 의미라기보다는 조선의 총독이 거쳐하는 식민지 중심이라는 인상을 풍기는 용어였다. 실제로 일제시기에 많은 일본인들은 한국인들이 주로 호칭하던 '서울'이라는 용어보다 경성을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사용하였다. 원종혜(2016) 「일제시대 觀光地圖에 조명된 京城 관광의 이미지」 『역사와 경계』, 부산경남사학회, p.146.

었다.<sup>2)</sup>

관광 팸플릿<sup>3)</sup>(이하 ‘팸플릿’)과 관광 그림엽서, 지도 등 다양한 형태의 관광 안내물이 활발히 제작될 수 있었던 데에는 1900년대 초반부터 사진술 및 인쇄·출판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 뒷받침되었다. 이러한 기술적 발전은 경성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다양하게 재현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제공하였고, 발행된 안내물은 단순히 경성의 명소나 관광지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광객들의 경성에 대한 인식과 체험 방식을 구성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즉, 이러한 시각 자료들은 경성을 근대 도시로 재현함과 동시에 식민지 조선을 일본 제국의 문화적·공간적 질서 내로 편입·동화시키는 과정의 일환으로 기능하였다.

특히 팸플릿의 경우, 제작자의 의도, 발행 시기, 발행 주체의 성격 등에 따라 정보와 이미지가 선택·배제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일정한 방향으로 내용이 왜곡되거나 편향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sup>4)</sup> 이러한 현상은 일제강점기라는 특수한 시대 상황이기에 더욱 두드러졌는데, 당시 경성의 관광 사업은 조선총독부를 중심으로 남만주철도주식회사, 경성관광협회, 일본여행협회 등 여러 기관의 협력 하에 추진되었다. 이들 기관은 주요 관광지와 명소의 개발은 물론,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1930년대에 접어들며 경성은 일본 제국의 문화정책에 따라 대규모 관광지로 재편되는 흐름 속에서 관광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1933년 5월 9일 경성관광협회(이하 ‘협회’)가 조직되었다. 협회는 관광객 유치 및 안내, 관광 시설의 정비, 시각 자료를 포함한 홍보물의 제작과 배포의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상업 광고와 관광 홍보 활동 또한 본격화되었다. 아울러 1930년대 경성은 행정구역 확장으로 인한 도시가 거대화되는<sup>5)</sup> 과정을 겪으며 일본인 관광객의 방문이 급증하였다. 당시 경성을 관광할 수 있었던 주요 계층은 본국(内地) 일본인이 중심을 이루었고, 일부 재조(在朝) 일본인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조선인 계층도 포함되었다.<sup>6)</sup> 이러한 계층적 특성은 당시 제작·배포된 팸플릿의 표지와 구성 전반에 적극 반영되었으며, 수용자<sup>7)</sup>를 고려한 시각 이미지와 편집 방식은 일제강점기 경성의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고 식민지적 시각을 재현하고 유포하는 구체적 매개로서 기능하였다.

일제강점기 경성의 시각 이미지를 다룬 연구는 2000년대 이후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사진, 그림엽서, 지도, 관광안내도 등의 시각 자료를 중심으로 경성의 도시 이미지와 그 형성 과정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당시 식민지적 시각의 유포 방식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sup>8)</sup> 기존 연구들은 주로 사진, 그림엽서, 관광지도

2) 김선정(2017) 「관광 안내도로 본 근대도시 경성-1920~30년대 도해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pp.37~39.

3) 팸플릿(pamphlet)은 일반적으로 제본되지 않은 소책자를 의미하며, 하드커버 없이 간단하게 철하거나 접은 형태로 제작된다. 보통 양면 인쇄된 단일 장을 접은 형태(리플릿)부터, 몇 장의 인쇄물을 반으로 접거나 간단히 제본한 형태까지 다양하게 포함된다. 유네스코(UNESCO)의 정의에 따르면, 팸플릿은 최소 5페이지 이상, 48페이지 이하의 분량을 갖는 출판물을 일컫는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팸플릿을 리플릿, 브로셔(brochure), 소책자 등의 인쇄 홍보물을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4) 김선정(2017) 위의 논문, p.35.

5) 1936년 행정구역 확장으로 인한 도시의 거대화가 이루어졌고 경성 관광은 경성의 도시화와 궤적을 같이 했다. 원종혜(2016) 위의 논문, p.147.

6) 김경리(2017A) 「경성관광협회의 관광문화산업과 관광지도의 연구」 『외국학연구』 제42집, 중앙대학교 외국학연구소, pp.480~481.

7) 본고에서는 팸플릿의 주소비자이자 관광의 주체를 시각언어의 개념에서 사용하는 ‘수용자’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며, 이에 따라 ‘수용자’로 표기한다.

8) 원종혜 (2016) 「일제시대 觀光地圖에 조명된 京城 관광의 이미지」 『역사와경계』, 부산경남사학회, 김경리(2017A) 「경성관광협회의 관광문화산업과 관광지도의 연구」 『외국학연구』 제42집 중앙대학교 외국학연구소, 김경리(2017B) 「그림엽서 봉투 도안으로 보는 관광의 상품성과 경성」 『한국일본학회』,

등의 시각 자료를 중심으로 시각적 선전 전략과 재현 방식에 주목해 왔으며, 이를 통해 이러한 시각 자료들이 단순한 기록물을 넘어, 당시 사회의 이데올로기와 지배 담론을 반영하는 핵심적인 매체로 기능했음을 규명해 왔다. 본고 역시 식민지 시기 경성을 대상으로 한 시각문화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팸플릿 자료에 초점을 맞춘다.

팸플릿은 단순한 정보 전달의 수단을 넘어서, 경성의 도시 이미지 형성과 그 인식 구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중요한 시각 매체로 작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본격적인 연구는 관련 자료의 희소성과 접근성의 제약으로 인해 본격적인 학술적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팸플릿의 구성 요소 중 ‘표지’에 주목하여 그 시각적 특성과 그 안에 담긴 사회적·문화적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팸플릿은 이미지와 텍스트가 결합된 통합적 매체로서, 식민 권력의 이데올로기적 기획과 경성 도시의 상징적 재현을 동시에 담아내는 복합적인 의미 구조를 형성한다. 그중에서도 표지는 팸플릿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요약함과 동시에, 광고 및 홍보의 목적을 시각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장치로 작동한다. 이에 본고는 1930년대 경성에서 제작된 팸플릿 표지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역사학과 디자인학의 학제적 접근을 통해 해당 시각언어가 당시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구성되고 의미화되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 2) 연구 범위와 방법

1930년대는 경성 관광의 전성기로 평가되며, 이 시기에는 관광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인 변화 또한 뚜렷하게 나타난다. 본고에서는 국내에서 일제강점기 팸플릿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소장하고 있는 역사인문이미지연구소<sup>9)</sup>의 1930년대 발행 자료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경성’, ‘경성관광’, ‘경성안내’, ‘경성유람’ 등의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경성을 근대 도시로 상품화하고 시각적으로 재현한 팸플릿 가운데 총 31종의 표지 이미지를 분석 범위로 선정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자료의 목록은 아래의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경성 팸플릿 표지 연구 대상

번호	발행년도	자료 제목	발행처	자료 형태
1	1933	경성-인천, 수원, 성환(成歡), 개성	조선총독부 철도국	리플릿
2	1935	경성-인천, 수원, 개성	조선총독부 철도국	리플릿
3	1937	경성-인천, 수원, 개성	조선총독부 철도국	리플릿

김선정(2017) 「관광 안내도로 본 근대도시 경성-19020~30년대 도해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김상원(2021) 「1930년대 경성 관광안내서 연구-조선요리·연석안내서(朝鮮料理·宴席の案内)를 중심으로-」 『교방문화연구』, 서기재(2005) 「일본 근대 여행 관련 미디어와 식민지 조선」 『일본문화연구』 14집.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일제강점기 경성의 관광과 시각 자료에 주목하고 있으나, 다수의 팸플릿 표지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분석은 미비한 실정이다.

- 9) 역사인문이미지연구소는 2019년 설립 이래 일제강점기 결핵 예방 썸, 근대 한국 관련 사진첩, 일제 침략기 시기 제작된 사진 및 그림엽서, 일제강점기 한국 관련 선전 팸플릿 등 수만 점에 이르는 시각 이미지를 체계적으로 수집·소장하고 있다. 수집된 이미지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있으며, 이를 토대로 다양한 주제의 총서를 간행하여 관련 연구자들에게 1차 자료로서 중요한 연구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팸플릿을 펼치다, 경성을 만나다

4	1936	경성-인천, 수원, 개성	조선총독부 철도국	리플릿
5	1933	경성안내	경성관광협회	리플릿
6	1933	경성안내	경성관광협회	리플릿
7	1937~1940	경성	경성전기주식회사	리플릿
8	1939년 10월 이후 추정	경성명승 관광안내	경성 자동차 교통 주식회사	리플릿
9	1920년 후반~1930년대	경성명승 유람안내	경성 택시 유람버스계	리플릿
10	1937년 추정	경성관광안내서	경성관광협회 경성관광안내소	리플릿
11	1940년	경성안내	경성부 경성관광협회	리플릿
12	1933년	경성관광안내도	경성관광협회 경성관광안내소	리플릿
13	1938년 이후 추정	경성관광안내도	경성관광협회 경성관광안내소	리플릿
14	1936년 이후 추정	경성관광안내서	경성관광협회 경성관광안내소	리플릿
15	1933년 이후	경성관광안내도	경성관광협회 경성관광안내소	리플릿
16	1939년 10월 이후	경성관광안내서	경성관광협회 경성관광안내소	리플릿
17	1938년 이후	경성안내	경성 본정 기념품 우미이치(海市)	리플릿
18	1932년~1936년 추정	경성 명소 유람버스 운영안내	경성자동차 유람 버스과	리플릿
19	1930년대	경성 유람 승합자동차	경성자동차 유람 버스과	리플릿
20	1930년대 중후반	경성관광안내도	경성관광협회 안내소	리플릿
21	1930년대 중반	경성 명소 유람버스	경성 자동차 유람 버스과	리플릿
22	1930년	경성-개성, 인천, 수원	조선총독부 철도국	소책자
23	1936년	경성안내	경성관광협회 일본여행협회	소책자
24	1936년	경성정서	경성관광협회	소책자
25	1934년	경성정서	경성관광협회	소책자

26	1936년	경성안내	경성관광협회 일본여행협회	소책자
27	1937년	관광의 경성	경성관광협회 일본여행협회	소책자
28	1938년	경성의 관광	경성관광협회 일본여행협회	소책자
29	1935년	경성안내-근교, 온천	경성관광협회	소책자
30	1934년	경성안내-인천, 개성	경성관광협회	소책자
31	1939년	경성-인천, 수원, 개성	조선철도국	소책자

본고는 팸플릿 표지를 하나의 ‘시각언어 체계’로 간주하여 그 주요 구성 요소인 이미지와 타이포그래피의 표현 방식을 중심으로, 시각 요소가 어떠한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지를 역사적 사실과 맥락에 기반하여 해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시각적 재현 방식에 내재된 표현상의 특징과 차이를 도출하고, 발행 주체에 따라 어떠한 시각적 전략이 선택되고 활용되었는지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분석 대상의 발행 주체는 조선총독부 산하 철도국, 경성관광협회, 민간 상업 단체로 구분한다. 조선총독부 철도국과 경성관광협회는 식민지 통치 권력의 하위 기관으로서, 국가 주도의 관광 정책과 도시 이미지 형성 전략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이들이 제작한 시각 자료는 정책 홍보와 식민 지배의 정당화를 위한 시각적 도구로 활용되었다. 반면, 민간 상업 업체 발행물은 상대적으로 상업적 목적에 기반하여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국가 주도의 기획과는 차별화된 시각적 표현과 전략을 드러낼 여지가 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경성의 도시 이미지는 단일한 시각적 해석이 아닌, 발행 주체에 따라 서로 다른 표현 양상을 띠는 복합적인 재현의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2. 경성 팸플릿 표지의 특성

팸플릿 표지는 지역의 명소, 새로운 관광지, 문물을 소개하고 소비하게 하는 데 활용되는 시각적 매체이다. 이러한 시각 매체의 활용은 근대 인쇄 · 출판문화의 발달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당시의 시각문화 형성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일본에서는 1920년대 중반 이후 국정교과서와 지도 등의 인쇄가 전국적으로 가능해지면서, 관동 및 관서 지역을 중심으로 상업 미술 분야가 급속히 확장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시각 매체의 대중적 활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인쇄 기술의 발달은 정교하게 구성된 디자인 도안과 광고적 기능을 지닌 타이포그래피의 활용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 결과, 경성 관광을 홍보하기 위한 그림엽서 및 각종 인쇄물의 제작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시각적 경쟁력이 강화되는 한편, 관광 자원으로서의 도시 이미지가 적극적으로 구축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sup>10)</sup>

1930년대 경성에서 발행된 팸플릿은 이러한 근대적 인쇄 기술의 확산과 시각문화의 발전에

10) 김경리(2017B), 위의 논문 p.293.

힘입어, 미술·디자인·광고 등의 영역에서 다양한 미적 표현 기법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고 보여진다. 이 시각적 기법들은 단순한 장식적 요소를 넘어, 다양한 서체와 이미지로 표지를 효과적으로 구성하여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매개체로 작용하였다. 즉, ‘경성’이라는 도시의 표상을 대중적인 이미지로 각인시키면서, 식민지 근대성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고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시각적 기법들은 팸플릿 표지에서 도시의 풍경, 근대적 시설물, 문화 공간 등을 상징적으로 재현함으로써, 경성이 식민지 근대화의 중심지이자 관광 자원으로서 가치 있는 장소임을 시각적으로 설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팸플릿 표지는 【표 2】와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시각 이미지, 제목, 발행처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경우에 따라 발행 연도, 발행처의 주소 및 전화번호, 간략한 광고 문구 등이 추가되기도 한다. 또한 표지 도안의 일부는 아니지만, 기념 스탬프가 인쇄된 사례도 확인된다. 이러한 구성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는 기능을 수행한다. 즉, 시각 이미지와 텍스트의 결합은 하나의 통합된 시각언어로 작용하여 수용자에게 특정한 인식과 감각적 반응을 유도하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기능한다. 나아가, 이러한 시각적 장치는 팸플릿의 목적에 따라 수용자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특정 관광지나 관광 자원에 대한 이미지와 가치를 효과적으로 구축하는 데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 1) 시각언어의 개념과 특성

헝가리 출신의 케페슈 제르지(Kepes Gyorgy)<sup>11)</sup>는 그의 저서 『시각언어(Language of Vision)』에서 시각언어를 시각적 요소를 통해 감각에 호소하고 의미를 전달하는 소통의 수단으로 정의하였다. 시각언어의 표현 방식은 직접적 표현과 은유적 표현으로 구분된다. 직접적 표현의 언어는 수용자에게 정보가 명확하게 전달된다는 장점을 가지는 반면, 은유적 표현의 언어는 다양한 시각언어 요소가 개입되기 때문에 표현 방식에서 개성은 나타나지만, 수용자나 맥락에 따라 정보의 해석과 수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sup>12)</sup>

1930년대 경성에서 제작된 팸플릿의 시각언어에는 직접적 표현과 은유적 표현이 병존하는 양상이 확인된다. 일부 팸플릿은 직접적인 언어와 이미지로 정보를 명확히 전달하는 전략을 취하는 반면, 또 다른 일부는 도시의 분위기, 정서, 상징성을 간접적으로 환기시키기 위해 은유적 표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시각적 표현 전략은 전술한 대로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수용자의 감각적 반응과 해석을 유도함으로써 경성을 근대 도시이자 역사적·문화적 체험의 공간으로 인식하게 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시각언어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이미지로만 구성된 형태로, 시각적 요소의 상징적 표현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한다. 둘째, 텍스트로 구성된 형태로, 타이포그래피를 이미지처럼 활용하여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삼는다. 셋째, 텍스트와 이미지가 결합한 형태로, 전체적인 구조를 이미지로 제시하고 각 요소에 대한 설명을 텍스트로 보완함으로써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한다.<sup>13)</sup> 팸플릿의 표지는 일반적으로 세 번째 유형에 해당하며,

11) 케페슈 제르지(Kepes Gyorgy:1906.10.4.~2001.12.29.)는 헝가리 출신의 화가이면서 디자이너, 미술 교육가로 나줄로 모홀리 나기(Laszlo Moholy Nagy)가 주재하는 시카고의 디자인 연구에서 빛과 색채부 부장으로 있었으며 주요저서로는 『시각언어(Language of Vision)』(1944), 『시각과 가치(Vision&Value)』(1958) 등이 있다. 주치수(2016) 「의사소통행위 이론에 따른 시각언어의 사회문화적 가치」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연구』, 한국커뮤니케이션디자인협회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회, p.298.

12) 김진경, 남호정(2016) 「시각언어의 디자인적 생산성과 효용성」, 『상품문화디자인학연구』, 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 p.164.



이러한 복합적 시각언어의 특성은 특정 지식에 대한 경험적 발견이나 이론적 맥락을 요약하거나 통합적으로 제시하는 데 유용하다. 이는 인지적 접근(cognitive approach)을 촉진하여 이해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시각적 흥미와 주의를 유도함으로써 메시지의 인지적 각인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sup>14)</sup>

시각언어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팸플릿의 표지는 단순한 기능적 요소나 시각적 장식에 국한되지 않으며, 그 자체로 의미 생산의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팸플릿 표지는 이미지와 함께 해석의 방향성과 틀을 제시하는 제목, 그리고 발행 주체의 시각과 입장을 반영하는 발행처 표기를 포함하는 기본 구성을 갖춘다. 이를 통해 팸플릿은 제작 의도와 핵심 메시지를 직설적 혹은 함축적으로 드러내는 기능을 수행한다.

더 나아가 이미지와 언어적 요소는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단순히 외연적이거나 지시적인 의미를 넘어서, 연상적이고 정서적인 의미를 함께 전달하는 사고의 도구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수용자가 특정한 의미를 자연스럽게 형성하도록 유도하며, 메시지에 대한 인지적 이해와 정서적 반응을 동시에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 2) 이미지의 시각적 표현 기법

본고에서 분석 대상이 된 팸플릿의 이미지 표현 방식은 주로 사진과 판화로 구분된다. 이러한 구분은 당대의 일반적인 인쇄 기술에 기반한 것이며, 아울러 문화적 · 역사적 맥락을 시각적으로 환기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표현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사진과 판화는 각각 상이한 미적 특성과 상징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당시 사회의 정서와 인식을 효과적으로 매개하는 시각적 매체로서 기능하였다.

전체 31종의 자료 가운데, [그림1] ~ [그림12]에 해당하는 사례들은 사진으로 구성되었거나, 판화와 사진이 혼합된 형태를 보인다. 이 중 [그림2], [그림8], [그림12]는 표지 전체를 사진 이미지로 구성하여, 사진 매체 특유의 사실성과 역사성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킨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해당 사진들은 경성의 대표적 명소들이나 일본과의 역사적 관련성을 지닌 장소를 배경으로 삼고 있으며, 그 위에 자연 풍경이나 인물 이미지를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식민지 도시로서의 경성이 지닌 기록성과 공간적 현실성은 물론, 감성적 분위기까지 함께 환기시키는 시각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사진을 표지 이미지로 활용한 일부 팸플릿은 근대 도시 경관 속에서 조선의 전통성과 식민지적 근대성이 어떻게 교차하는지를 시각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예를 들어, [그림9]와 [그림10]은 동일한 사진을 사용하고 있는데, 전통성과 근대성이 혼재된 시각적 구성을 통해 상징적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두 사례 모두 복수의 여성이 전통 복식인 한복을 착용한 모습을 통해 조선 고유의 문화와 정체성을 부각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만, 이들이 손에 들고 있는 파우치(pouch)는 근대 소비문화와 서구 문명의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적 이중성은 문화적 전환기 속에서 형성된 당시 사회의 양가적(兩價的) 정체성, 즉 상반된 문화적 가치가 병존하는 이중적인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또한 [그림3]과 [그림4], [그림9]와 [그림10]은 각각 동일한 사진 이미지를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두 1933년 경성관광협회 설립과 함께 협회의 주도로 제작된 『경성』, 『경성관광안내서』라는 팸플릿에 수록되었다는

13) 주치수(2016) 위의 논문, p.164.

14) 박혜진(2014) 「시각언어에 나타난 모호성이 시각디자인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브랜드디자인학회』 31, 한국브랜드디자인학회, p.139.

팜플릿을 펼치다, 경성을 만나다

공통점을 지닌다. 이들 팜플릿은 대체로 연 2회 이상 발행되었으며, 동일한 이미지의 반복적 활용은 시각적 연속성을 유지하고 일관된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려는 홍보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그림7]과 [그림12]에 등장하는 해태상(カイダ)<sup>15)</sup>은 본래 광화문에 위치해 있던 조각물이 조선총독부 건물 앞으로 이전된 것으로, 중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시각적 요소로 해석될 수 있다. 해태는 전통적으로 화재를 막는 수호신적 존재로 인식되어 왔으나, ‘가이다(カイダ)’가 당시 고급 담배 브랜드<sup>16)</sup>의 명칭으로도 사용되었음을 고려할 때, 해당 이미지는 전통성과 근대성, 그리고 상업성이 중첩되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이러한 이미지는 식민지 근대화 정책과 소비문화의 맥락 속에서 재해석되며 자본주의적 기호로도 기능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는 시각언어가 지닌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의미 구조를 잘 드러내는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살펴볼 사례는 사진과 판화가 혼합된 형태이다. 이 유형은 밝고 다양한 색채를 활용함으로써 시각적으로 화려한 인상을 주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그림3]과 [그림4]는 동일한 사진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으나, 배경색의 차이를 통해 서로 다른 정서적 분위기를 자아낸다. 전자는 차분하고 우아한 느낌을, 후자는 상쾌하고 청량한 인상을 유도함으로써 시각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다. 한편, 이미지 상·하단에 조선의 명소나 조선총독부 건물 등이 삽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구성은 여전히 식민지적 맥락을 환기시키는 시각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그림5]~[그림6]과 [그림11]의 표지들은 인물 사진이 아닌 자연경관이나 명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촬영 구도는 정면이 아닌 약 45도의 측면 각도를 택하고 있다. 이러한 구도는 화면에 공간적 깊이나 입체감을 부여하여 시각적 흡인력을 높이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더불어 사진 외의 배경이나 여백에는 붉은색, 노란색, 파란색 등 원색 계열의 강렬한 색상이 사용되어 이미지 전반에 활력을 부여함과 동시에 시선의 집중을 분산시키는 시각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표 2】 연구 대상의 팜플릿 - 사진 표지<sup>17)</sup>

마지막으로 판화로 구성된 형태이다. 판화는 회화적 요소, 풍부한 표현력, 상징적 재현을 포함하는 시각 예술의 한 형태로, 제작자의 주관적 시각과 해석이 강하게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sup>18)</sup> 이러한 특성은 판화가 단순한 사실적 묘사보다는 감성적이고 상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

15) 해태 혹은 해치라 불리는 이 상상의 동물은 선악을 구별하고 정의를 지키는 존재로 알려졌고, 특히 불(火)의 산인 관악산의 화기를 막기 위해 궁궐 문앞을 지키는 것이라는 속설이 정설처럼 퍼져있다. ‘고종실록’에는 말을 타고 궐 앞까지 도착한 신하들이 해치 앞에서 내려했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고, 해태상이 지키고 선 그 안쪽에서는 말을 타고 다닐 수도 없었다. 중요한 상징성을 가진 이 해태상을 일제의 조선총독부는 교통 방해를 이유로 치워버렸고 공교롭게도 1924년 10월 불이 나 곤욕을 치른다. 화재사건 이후 일제는 처박아 둔 해태상을 조선총독부 뜰 앞으로 옮겨왔다. 서울경제(2018.4.13.)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RY8O3M4CC>. 검색일 : 2025. 05.10)

16) 일제강점기에 많이 팔린 담배로 <가이다> 라는 상표가 있었는데 그 모델이 바로 해태이다. 가이다는 海駝의 일본식 발음이다. 가장 싸구려 담배인 마코(Macaw)보다 한 등급 높은 담배로 종종 등장하기도 하였다.

17) 【표2】와 【표3】은 역사인문이미지 소장 자료를 시대별로 편집하여 구성하였다.

는 데 보다 적합한 매체임을 시사한다. 특히 팸플릿 표지 디자인에서는 특정 장소나 인물, 문화적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방식의 표현 수단으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판화에 해당되는 [그림13]~[그림31]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경회루나 남대문 등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장소들이 표지 이미지의 중심에 배치된 경우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팸플릿이 해당 장소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강조하고 상징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음을 보여준다.

판화에서는 특정 명소나 인물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조선의 전통성과 일본의 근대화를 함께 담으려는 시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특히 [그림15]를 비롯해 [그림17]~[그림19], 그리고 [그림25], [그림27]의 자료들은 조선의 전통 건축물, 복식, 자연경관 등의 이미지가 유람버스, 서양식 건축물, 신식 도로 등 근대화의 상징들과 한 화면에 나란히 배치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구성은 전통과 근대, 토착성과 외래성이 충돌하지 않고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으며, 근대성의 수용을 단절이나 갈등이 아닌 연속적이고 점진적인 변화의 과정으로 이해시키고자 하는 시각도 반영하고 있다. 전통성과 근대성이 공존하는 시각적 구성은 복합적 문화 정체성을 드러내려는 시도로도 해석될 수 있으며, 다양한 색채의 활용과 화면 구도의 조화를 통해 감각적이고 현대적인 미적 감수성을 반영하려는 경향 또한 나타난다. 이는 단순한 사실 기록을 넘어, 미적·문화적 함의를 전달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판화 매체가 지닌 표현의 다양성과 상징을 통한 의미 전달 능력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적 병치는 판화가 단순한 사실의 재현에 그치지 않고, 식민지 사회 내에서 변화하는 문화적 정체성과 근대성에 대한 인식을 조율하려는 시도로 기능했음도 짐작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해당 판화들은 식민지 조선의 근대화 과정을 시각적으로 가시화하는 동시에, 일본 제국주의가 추진한 문화적 지배를 자연스럽고 정당한 것으로 인식하게 하려는 시각적 전략의 일환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1930년대는 조선의 관광 산업이 활발히 전개되던 시기였던 만큼, 팸플릿의 표지 이미지에서도 다양한 시각적 실험과 표현 방식이 시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연구 대상의 팸플릿 - 판화 표지

### 3) 타이포그래피(Typography)의 표현 기법

타이포그래피<sup>19)</sup>는 시각언어의 한 범주로, 이미지와의 조화를 통해 수용자와 소통하고 흥미를 유발하는 매개로 기능한다.<sup>20)</sup> 1930년대 제작된 경성 팸플릿의 표지 디자인은 단순한 시각적 장식을 넘어, ‘경성’이라는 관광 상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선전 도구로 활용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이미지와 함께 중요한 시각적 요소로 사용된 것이 바로 ‘서체’, 즉 타이포그

18) 송대섭, 박예신(2017) 「판화와 다양한 매체와의 결합으로 얻어지는 새로운 작품에 관한 고찰」 『만화 애니메이션연구』 통권 제46호,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pp.209~223.

19) 타이포그래피는 텍스트로 구성된 시각언어로, 본고에서는 제목, 발행처, 연락처 등 텍스트로만 구성된 영역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20) 김진경, 남호정(2016), 위의 논문, p.164.

팸플릿을 펼치다, 경성을 만나다

래피였다.

타이포그래피는 문자 유형뿐만 아니라 크기, 굵기, 직선과 곡선의 활용, 가로쓰기와 세로쓰기의 병용 등 다양한 형태적 변화를 통해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시각적 요소로 기능한다. 이는 단순히 문자의 의미를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 수용자의 감정 및 정서에 영향을 미치고 시각적 조형미를 형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상업미술가협회가 발족된 1926년 이후부터 상업 그래픽 디자인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팸플릿뿐 아니라 그림엽서, 포스터, 광고지 등 다양한 인쇄매체에서 타이포그래피의 적극적 활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sup>21)</sup> 이 타이포그래피는 정보 전달 기능뿐만 아니라, 문자 자체의 형태적 특성을 활용하여 리듬감과 운동성, 시각적 율동감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 【표 4】 연구 대상 서체의 종류

분석 대상인 31종의 팸플릿 표지에 나타난 사진 및 판화 이미지에서는 장르적 특성과 관계없이 타이포그래피가 공통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시각적 조형성과 정보 전달이라는 이중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타이포그래피의 활용은 표지 디자인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나는 특징으로, 시각적 요소와 언어적 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관광 홍보물의 전달력을 제고(提高)하고자 하는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제명과 발행처 등 주요 정보는 글자의 굵기, 크기, 색채의 변화를 통해 시각적 위계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제목만을 분리하여 제시한 【표 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해서체, 예서체, 초서체 등 다양한 서체의 변화를 활용함으로써 시각적 리듬감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독자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정보 전달의 효과를 높이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서체의 선택은 단순한 조형적 장치를 넘어 독자의 주의를 특정 정보에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표지 전체의 시각적 흐름을 유도해 주요 메시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한다. 표지 하단에 기재된 발행처나 연락처의 서체는 제목과 동일한 서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 서체의 종류, 색상, 글자 크기를 달리하여 디자인적 변화를 주기도 한다. 이를 통해 제목과 시각적으로 구분되는 효과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한편 [그림11]의 사례에서는 일본어 제목 『観光の京城』 아래에 한글로 ‘관광경성’이 함께 표기되어, 시각적 구성에서 언어적 병치를 통해 다층적인 의미 전달을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표지가 일본인 관광객을 주요 대상으로 하면서도 조선어 사용자를 일정 부분 고려했음을 시사하며, 일본어와 한국어의 혼용을 통해 식민지 조선의 복합적인 언어 현실과 문화적 경계를 시각적으로 드러낸 사례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서체의 선택과 구성은 독자의 시선을 효과적으로 유도하여 주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함<sup>22)</sup>과 동시에, 전체적으로 시각적 인상을 조형적으로 완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당시 관광 홍보물에서 텍스트와 이미지의 유기적 결합이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1) 김경리(2017B) 앞의 논문, p.299.

22) 김경리(2017B) 앞의 논문, p.300.

특히 제목은 대개 이미지의 중심에 배치되어 시각적 주목도를 확보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좌우 세로쓰기를 병용해 이미지와의 조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는 시각 이미지와 문자 요소가 서로 경쟁하지 않도록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정보의 효율적 전달과 시각적 통일감을 동시에 추구한 당시 디자인의 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서체의 색상도 단일 색상에 한정되지 않고, 배경색에 따라 다양한 색조를 활용하고 있으며, 제목과 하단 발행 주체의 서체 색상을 달리해 시각적 강조와 정보의 위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문자가 단순한 정보 전달의 수단을 넘어 이미지적 요소로도 기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색채를 통해 수용자의 심리적 반응과 정서적 몰입을 유도하는 시각적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23)</sup> 다시 말해, 팸플릿 표지에 사용된 타이포그래피는 단순히 의미를 전달하는 도구에 그치지 않고, 색상과 형태, 배치의 조화 속에서 이미지 전체의 조형성을 강화하며, 수용자에게 보다 인상 깊은 시각적 경험을 제공하는 능동적인 시각언어로 기능하였음을 알 수 있다.

### 3. 발행 주체별 표지 이미지 특성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제작·배포된 관광 및 홍보용 팸플릿은 일본 제국의 식민지 통치 이념과 목적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대표적인 문화적 산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팸플릿의 표지 이미지는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함과 동시에 정치적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팸플릿들은 조선에 대한 일본의 통치를 정당화하고 문화적 우위를 부각시키는 한편, 경제적 자본의 유치를 도모하는 시각적 도구로 기능하였다.

1930년대 팸플릿 제작은 조선총독부 산하 철도국, 경성관광협회, 그리고 민간 상업 단체 등 다양한 기관과 조직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들 각 발행 주체는 고유의 정책적 목적과 설정된 독자층에 부합하도록 차별화된 디자인 전략을 구사하였으며, 이를 통해 시각적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의 팸플릿의 기능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철도국과 같은 국가 주도의 행정기관이 제작한 팸플릿은 교통망의 확장을 강조함으로써 근대적 인프라의 구축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조선을 ‘근대 교통망을 갖춘 식민지’, ‘교통망을 통해 여행 가능한 식민지’로 인식하고 소비하도록 유도하였다. 반면, 반관반민(半官半民) 성격의 경성관광협회에서 제작한 팸플릿은 조선의 전통문화와 자연경관을 강조함으로써 조선을 ‘이국적이고 매력적인 여행지’로 상상하게 만들었다. 이는 일본 본국의 국민 및 외국인을 주요 수용자로 설정한 문화·관광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아울러, 사제(私制)에 해당하는 민간 상업 단체가 제작한 팸플릿은 국가나 공공기관의 공식 홍보물과는 구별되는 상업적 목적과 독자적인 시각 전략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대표적으로 해시장회(海市商會)나 경성자동차유람버스회사(京城自動車遊覽バス會社)에서 발행한 팸플릿은 자사의 상품 및 서비스를 홍보하는 데 초점을 두는 동시에, 관광지 소개나 경성의 도시 이미지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상업성과 정보성이 동시에 반영된 복합적 성격을 지닌다.

이에 본 장에서는 팸플릿의 시각적 구성과 조형적 표현 방식에 나타나는 양상을 발행 주체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조선총독부 산하 철도국, 경성관광협회, 그

23) 윤재성(2001) 「시각언어로서의 타이포그래피 이미지 표현에 관한 연구」 『디자인과학연구』 4권 1호, 한국디자인과학학회, pp.72~75.

리고 민간 상업 단체로 분류하여 각 집단이 추구한 시각적 전략과 표현 방식의 특성을 비교·분석할 것이다.

#### 1) 조선총독부 산하 철도국 발행물

조선총독부 산하 철도국<sup>24)</sup>은 일제강점기 동안 조선 내 교통망을 구축하고 철도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시각 홍보물을 제작하였다. 1920년대부터 시작된 팸플릿 발행은 1930년대에 접어들며 그 형태와 내용이 더욱 다양화되었는데, 이는 철도국의 홍보 전략이 본격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철도국에서 발행한 팸플릿은 철도망의 근대적이고 효율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철도, 기차역, 선로, 노선도 등 교통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표지 디자인을 주로 채택했을 것으로 쉽게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철도국이라는 발행 주체의 특성상 자사의 주요 운송 수단인 철도를 중심으로 관광지를 연결하고, 이를 통해 경성의 근대적 이동성과 교통의 진보를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고에서 분석한 31종의 팸플릿 표지 가운데 철도국 발행으로 확인된 [그림2], [그림8], [그림14], [그림29]에서는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시각적 구성과는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이들 팸플릿에서는 기차, 철도역, 철로 등 철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미지는 배제되고, 대신 조선의 명소, 전통 건축물, 자연 경관 등 지역의 문화적·자연적 요소에 초점을 맞춘 시각적 재현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구성은 철도망의 확충으로 인해 철도 자체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시기적 맥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철도국이 발행한 팸플릿은 ‘경성’을 중심 제목으로 하고, 철도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주요 관광지인 인천, 수원, 개성, 성환 등을 부제목으로 제시하여 각 지역의 관광적 매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부제목은 철도 교통망과의 연계성을 강조하며, 각 지역의 접근 용이성과 관광지로서의 정보를 간결하고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구성 방식은 새로운 관광지를 효과적으로 인식시키는 동시에, 철도를 통한 이동의 편리함을 부각시켜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접근 가능성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철도 이용을 촉진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철도라는 근대 기술의 상징을 전면에 부각하기보다는 조선의 자연과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 풍경 이미지를 강조하여, 관광지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한 것이다. 특히 일제강점기 일본인에게 알려진 경성의 8대 명소<sup>25)</sup>가 중심이 되고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이는 근대적 이동 수단을 통해 식민지 통치기구의 구조와 공간을 자연스럽게 인식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sup>26)</sup>

철도국에서 발행한 팸플릿은 단순한 교통 안내서의 기능을 넘어, 식민지 경관을 시각적으로 재현함으로써 조선에 대한 정서적 인식의 틀을 형성하는 중요한 문화적 매체로 작용하였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이들 팸플릿은 정보 전달의 기능에 더해 디자인의 ‘감성의 보충’ 원리에 따라 감각적이고 상징적인 요소를 활용함으로써 정보 이상의 감성적 연결을 강화하고, 조선에 대한 시각적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구축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sup>27)</sup>

24) 대한제국 시절 경부선, 경인선, 경의선 등 철도 부설권을 획득한 일본은 1906년 경인철도합자회사, 경부철도주식회사, 삼마철도, 경의철도 등 4개 철도회사를 국영화한 후 통합해 한국통감부 산하에 철도관리국에 두었다. 1909년 12월 일본제국 철도원으로 조직이 이관됐다가 1910년 8월 한일병합 이후 조선총독부가 설치되며 개편하여 ‘철도국’이 되었다.

25) 8대 명소에는 조선총독부, 경성부청, 조선신궁, 경성역, 용산역, 식물원, 남산공원, 남대문이 포함된다. 권혁희(2005) 『조선에서 온 사직엽서』, 민음사, pp.54~55.

26) 원종혜(2016) 위의 논문, p.149.

한편, 1920년대 철도국 발행의 팸플릿의 표지에서는 여성이 자주 등장하는 반면,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여성의 등장은 거의 사라지는 변화를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시대적·사회적 맥락의 변동에 따른 시각적 구성 방식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팸플릿이 담고 있는 문화적 인식과 메시지 전달 방식에서도 일정한 전환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sup>28)</sup>

## 2) 경성관광협회 발행물

경성관광협회<sup>29)</sup>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산하기관으로, 조선의 관광 자원을 홍보하고 일본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팸플릿과 안내 자료를 발행하였다. 이들 자료는 관광 안내 및 식민지 조선의 이미지를 구성하고 일본의 제국주의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경성부청에 있던 경성관광안내소를 경성역 구내로 이전하여 차별화된 관광 서비스는 물론 관광업자와 팸플릿, 안내기와 같은 홍보물도 제작하고 무료 배포하기도 하여<sup>30)</sup> 기능을 확장시켰다.

본고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경성관광협회가 관여하여 발행한 관광 팸플릿은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분류는 아래 【표 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반관반민의 성격을 지닌 협회는 팸플릿 제작 과정에서 관공서와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러한 발행 구조는 당시 관광 홍보 매체의 제작에서 협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협회 발행물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그림3]~[그림4], [그림9]~[그림10], [그림12], [그림16], [그림20]~[그림21], [그림27]에 해당하는 팸플릿 표지에 공통적으로 조선의 전통적 정취와 함께 기생이나 조선 여성의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여성 이미지의 반복적 활용은 주요 소비층이었던 일본 본국의 관광객 및 조선에 거주하는 재조일본인 남성을 겨냥해서 기획된 시각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이는 1920년대 철도국 발행물에 등장하던 여성 이미지가 1930년대에는 그 산하 기관인 경성관광협회 발행물의 표지로 전이되었음을 나타내며, 여성 이미지가 식민지 조선을 상징화하는 주요한 시각적 코드로 지속적으로 활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팸플릿이 수용자의 시선을 유도하는 감각적 도구로 기능함과 동시에, 조선의 전통적 이미지를 성별화된 방식으로 재현함으로써 식민지적 시선과 욕망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전략은 조선에 대한 흥미를 자극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었음을 나타낸다.<sup>31)</sup>

27) 디자인의 원리 중 '감성의 보충'은 설득적인 상징이 평범한 대상이나 인물에 부여될 때 긍정적 호감과 친밀감을 유발하는 이미지로 설명될 수 있다. 코니 말라메드(Connie Malamed)는 2011년에 출간한 『디자이너를 위한 시각언어』에서 디자인 원리를 여섯 가지로 구분하며, 이를 시각언어와의 관계 속에서 설명한 바 있다. 그는 디자인 원리를 지각의 조직화, 시선의 유도, 사실감의 생략,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명쾌한 복잡성, 감성의 보충으로 제시하였다. 김진경, 남호정(2016) 위의 논문, p.164.

28) 역사인문이미지연구소가 소장한 1920년대 철도국 발행의『경성-개성, 인천, 수원-』(1928), 『경성-개성, 인천, 수원-』(1929)을 참고하였다.

29) 경성관광협회는 관민이 협력하여 설립한 회원이 조직한 공익단체이다. 회장은 경성부윤 간자 요시쿠니(甘蕉義邦)를 추대하고 부회장은 경성 상공회의소 회장 가타 나오지(賀田直治), 조선생명보험주식회사 사장 한상류, 상무이사는 경성부 사회과 과장 김영상, 고문과 이사는 경성의 유명 인사와 유력자를 망라하였다. 협회는 역사, 상공업, 학술 등 각 방면의 경성을 소개하고 조선을 방문하는 여행객의 유람조사와 연구 등의 편의를 계획하였다. 모리 모토로(毛利元郎)(1934) 「京城情緒, 京城」 p.32. 京城觀光協會.

30) 김경리(2017A) 위의 논문, p.481.

31) 조경식(2019) 「일제 강점기 잡지에 내재된 식민지 조선인식-『모던일본 조선판(モダン日本 朝鮮版)』과 재조일본인의 조선 인식을 중심으로」 『일본근대학연구』 제63호, 한국일본근대학회, p.83.

【표 5】경성관광협회 발행 팸플릿 분류표

유형	발행 주체	팸플릿 제목 및 도판 번호
①	경성관광협회	『경성 정서』 [그림16], [그림21] 『경성안내』 [그림2], [그림4] 『경성안내-인천, 개성』 [그림6] 『경성안내-근교, 온천』 [그림7]
②	경성관광협회 + 경성부	『경성안내』 [그림31]
③	경성관광협회 + 경성관광안내소	『경성관광안내서』 [그림9], [그림10], [그림12] 『경성관광안내도』 [그림1], [그림5]
④	경성관광협회 + 일본관광협회(ジャパン・ツーリスト ・ビューロー) <sup>32)</sup>	『경성안내』 [그림6], [그림7], [그림20], [그림23] 『관광의 경성』 [그림11], [그림24]
⑤	경성관광안내소	『경성관광안내도』 [그림26], [그림28]

이러한 시각적 재현은 일본이 근대 이후 유럽에서 자포니즘(Japonisme)<sup>33)</sup> 열풍을 일으킨 맥락과도 유사한 구조를 지닌다. 당시 유럽에 소개된 다수의 우키요에(浮世絵) 판화는 오이란(花魁)과 야쿠샤(役者)와 같은 테마를 중심으로, 일본을 남성의 환상과 욕망이 투영된 ‘이국적 낙원’으로 재현하였다.<sup>34)</sup> 이는 일본이라는 국가의 이미지가 서구 남성의 시선에 의해 성적화 되고 문화적으로 대상화되었던 방식이다.

한편, [그림31]은 표지 도안의 구성 요소는 아니지만, 표지에 스탬프 자국이 남아 있는 유일한 사례로 주목할 만하다. ‘시찰 기념’ 및 ‘경성관광협회’라는 문구는 식별 가능하나, 구체적인 날짜는 확인되지 않는다. 1920년대 일본에서 명소 기념 스탬프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이후, 1930년대 조선에서도 이러한 스탬프 문화가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다.<sup>35)</sup> 해당 사례는 협회 역시 이러한 시대적 유행에 동참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팸플릿 표지가 관광 경험을 물리적으로 표식화하는 기념 스탬프를 찍는 공간으로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32) 일본관광협회(ジャパン・ツーリスト・ビューロー)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1912년에 설립되었다. 『일본교통공사 70년사』(1982)에 따르면, 1912년 설립 당시 이미 대련, 조선, 타이베이에 지부가 설치되었고, 유럽과 미국의 주요 도시에 안내소도 개설되었다. 또한 1913년에는 일본을 해외에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문과 일본 병기의 기관지 『투어리스트』가 창간되었다. 荒山正彦(2012)『旅程と費用概算』(1920年～1940年)にみるツーリズム空間－樺太・台湾・朝鮮・満洲への旅程, 関西学院大学 先端社会研究所紀要 第8号, p.3.

33) ‘자포니즘’은 일본풍의 미술 사조를 뜻하는 개념으로, 필립 부르트(Philippe Burty, 1830-1890)가 최초로 사용하여 이후 유럽 문화계 전반에 확산되고 보편화되었다. 19세기 중반에 일본이 서구와 교류를 시작하면서부터 대량의 일본미술품이 서구로 유입되었고, 당시 인간 중심의 자유와 개성을 추구하던 유럽 화단은 일본 미술에 크게 매혹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유럽의 화가들과 미술 애호가들은 단순한 이국적 취미에 그치지 않고, 일본의 문화와 정신, 일본미술의 전통적인 표현법과 제작법을 연구하여 유럽 예술과의 접목을 통해 새로운 창작 동력을 획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자포니즘’이라는 새로운 미술 사조를 탄생시켰다. 정희연(2022) 「구스타프 클림트와 자포니즘-우키요에(浮世絵)를 중심으로-」 석사논문 p.12.

34) 이미림(2016) 「니시키에(錦絵) 발명과 그 영향 관계에 대한 일고찰」 『일본연구』 제43집, 중앙대학교 일본연구소, p.124.

35) 김경리(2019C) 「스탬프의 식민정치학-식민지 조선의 명소기념스탬프의 장소성」 『아시아문화연구』 vol. 50, 아시아문화연구소, pp.7~12.



그 외 협회와 관련된 총 18종의 발행물을 분석한 결과, 특정한 형식에 편중되지 않고 사진과 판화가 비교적 균형 있게 활용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특히 경회루, 남대문, 근정전 등 조선을 대표하는 주요 명소와 그 정취만으로 표지를 구성한 사례로는 [그림1], [그림5], [그림6], [그림11], [그림23], [그림24], [그림26], [그림28], [그림30], [그림31]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팸플릿은 전통적인 건축물과 경관을 강조함으로써 조선의 고유한 역사성과 미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낸다. 반면, 조선의 정서와 일본의 상징성이 동시에 시각화된 표지는 [그림7]과 [그림12]로, 이는 양국의 문화적 상징 요소가 혼합된 복합적인 시각 구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구성은 일제강점기 시각 매체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병치와 이질적 요소의 통합이라는 시각 전략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 3) 민간 상업 단체 발행물

민간 상업 단체가 발행한 팸플릿 역시 관광이 활발했던 시기의 흐름에 맞춰 지역적 특색을 기반으로 경제적·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제작되었다. 이들 팸플릿은 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업 발전을 목표로 발행되었으며, 표지 이미지 또한 지역의 특산물이나 주요 산업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았다.

본고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민간 상업 단체가 발행한 여러 기업 및 기관의 홍보물은 각각 고유한 시각적 요소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철도국이나 경성관광협회 발행물과 달리, 표지에 여러 이미지를 함께 배치해 시각적 초점이 분산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sup>36)</sup> 연구대상에 포함된 단체로는 경성전기 주식회사<sup>37)</sup>[그림22], 경성자동차 교통주식회사<sup>38)</sup>[그림30], 경성택시유람버스계<sup>39)</sup>[그림13], 해시장회(海市場會)<sup>40)</sup>[그림27], 경성자동차유람버스과 [그림15], [그림17], [그림18] 등이 있으며, 이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자사의 활동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우선, 경성전기주식회사와 경성택시 유람버스계가 발행한 팸플릿의 경우, 경회루와 같은 전통적 이미지를 표지에 사용하였으나, 이는 해당 기업들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드러내기보다는 경성의 상징적 장소를 배경 요소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성자동차유람버스에서 발행한 팸플릿은 유람버스의 이미지를 명확히 삽입하여 자사의 관광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경성자동차주식회사의 건물이 함께 등장하여

36) 다양한 시각적 정보가 풍부하게 담겨 있는 것은 요소들의 패턴, 형태, 텍스트, 색채 등 다양한 이미지가 복합적으로 구성된 결과로, 이는 디자인의 원리 중 '명쾌한 복잡성'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37) 1897년(고종 34) 대한제국이 성립한 후 근대산업 육성책의 하나로 전력 개발을 중시하면서 이를 담당할 황실 기업으로 한성전기회사를 설립하였다. 공사대금 체불이 빈번해져 콜브란이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였고, 1904년(고종 41) 7월 미국 코네티컷 주 하트포드(Hartford)에서 한미전기회사를 설립했다.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전력 사업을 장악하기 위해 시부사와 에이이치(澁澤榮一)를 중심으로 하여 일한와사(日韓瓦斯)를 설립하고, 1909년(순종 2) 7월에는 한미전기를 인수하며 일한와사전기로 상호를 바꾸었다. 1915년 9월에는 다시 회사명을 경성전기주식회사로 바꾸어 1961년까지 존속했다.

38) 1929년 조선박람회 때 당시 시내 각소 유람자동차를 운행했던것을 효시로 1931년 경성자동차주식회사를 운행했던 노노무라 겐조(野野村兼一)는 경성유람버스 허가원을 내고 본격적인 운행에 들어갔다. 이경민(2012) 『경성, 카메라 산책: 사진으로 읽은 경성사람, 경성풍경』, 아카이브북스, pp.165~177.

39) 1928년에 설립된 경성자동차주식회사는 1936년에 경성택시주식회사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서울역사 아카이브. [https://museum.seoul.go.kr/archive/NR\\_index.do](https://museum.seoul.go.kr/archive/NR_index.do)

40) 해시장회에서는 기념품을 직접 제작하는 경우가 많았고, 조선의 물산을 제작, 판매를 장려했던 상공장려관에서 개최한 가정공예품 품평회에서 수상했다는 기록을 1930년~1935년까지 동아일보 기사에서도 찾을 수 있다. 김경리(2017A) 위의 논문, p.478.

도시적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한편 해시상회(海市商會)는 조선 관광 기념품을 제작하고 판매한 주요 업체로, 조선의 물산을 홍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해시상회는 다양한 홍보물에서 가장 활발하게 광고를 진행했으며, 광화문을 배경으로 해태상 한 쌍, 물독을 머리에 인 여성, 짚신을 신은 소년 등을 전면 배치한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시각적 요소는 조선의 전통적 이미지를 강조하고, 표지의 테두리를 전통적인 창살 문양으로 장식하여 조선의 고유한 정취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이는 일본인 관광객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조선의 문화적 특수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민간 상업 업체가 발행한 팸플릿에서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특징은, 표지의 시각적 요소들이 모두 판화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판화는 특정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전달하는 데 효과적인 매체로, 조선의 문화적 특색이나 자연경관을 강조하고 그것을 실제보다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표현하는 데 적합하다. 이러한 시각적 표현은 식민지적 시선과 결합되어, 일본인 관광객의 눈에 조선을 더욱 인상 깊고 향수를 자아내는 공간으로 인식시키려는 전략적 수단으로 작용하였다. 이를 통해, 민간 상업 출판물 또한 당대 식민 권력이 만들어낸 조선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와 인식의 틀에서 자유롭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4. 나오며

## 「1930년대 경성(京城) 팸플릿 표지 연구 : 시각언어 관점으로」

한현석(국립한국해양대학교)

본 발표는 1930년대 ‘경성’을 주제로 한 팸플릿 31종의 표지를 중심으로, 대표 이미지와 타이포그래피의 표현 방식 그리고 발행 주체를 분석한 연구입니다. 일제강점기 팸플릿에 대한 연구는 관련 자료의 희소성과 접근성의 제약으로 인해 활발히 이루어지기 어려웠습니다. 본 발표의 성과는 학문적 기여에 그치지 않고, 시민사회와 대중문화의 영역에도 의미 있는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토론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질문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 본 연구는 주로 경성 관광을 목적으로 제작된 팸플릿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본 연구의 제목은 「1930년대 경성 관광 팸플릿 표지 연구」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경성 관광 팸플릿’이 아닌 ‘경성 팸플릿’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표현을 선택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근대 도시를 선전하는 인쇄물에서는 파노라마적 시각으로 제작된 도시 이미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소개한 팸플릿 표지 디자인 중에서는 파노라마 시각이 담긴 이미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 [표1] ‘경성 팸플릿 표지 연구 대상’의 1~4번 자료 제목에는 경성 외에도 인천, 수원, 성환, 개성 등 타지역명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 자료는 [표3]의 그림 14, 19, 25, 29에 해당하며, 발행 주체는 조선총독부 철도국입니다. 이에 관해 드리고 싶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성’이라는 제목으로 제작된 팸플릿이 경성 외 지역의 정보를 함께 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구성은 해당 팸플릿의 발행 주체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4. 발표자는 1920년대 조선총독부 철도국이 발행한 팸플릿에서 기생 등 조선 여성의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경향이 나타나며, 1930년대 이후에는 이러한 이미지가 철도국 산하기관인 경성관광협회에서 제작한 팸플릿의 표지로 “전이”되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가 “전이”되었다는 분석이 보다 설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분석 대상으로 삼은 자료 외에도 이 분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 자료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조선총독부 철도국이 1930년대를 전후하여 팸플릿 표지 디자인에서 조선 여성의 이미지를 점차 사용하지 않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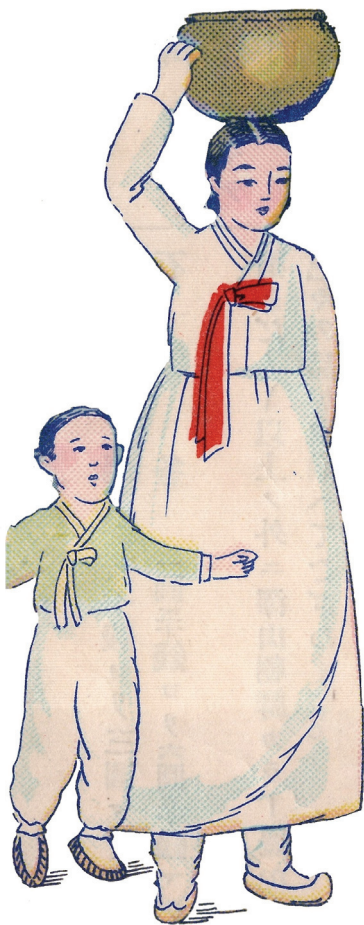


제2부 - 발표 4

# 1920~30년대 관광팸플릿

## 경성지도 속 토포스

조선총독부 철도국 발행자료를 중심으로



발표: 최은경(동아대)

토론: 하지영(동아대)



## 1920~30년대 관광팸플릿 경성지도 속 토포스

- 조선총독부 철도국 발행 자료를 중심으로 -

최은경(동아대학교)\*

### 【 목 차 】

1. 들어가는 말
2. 선행연구 검토
3. 남북 혹은 좌우-선(線)과 역(驛)
4. 동서 혹은 상하-장(場)과 소(所)
5. 나오는 말

### 1. 들어가는 말

관광(觀光)이라는 용어는 원래 중국 『역경(易經)』의 “관국지광(觀國之光)”이 어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나라의 풍광(風光), 문물, 풍속 등을 잘 관찰하고, 그것을 외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관광의 사전적 의미 역시 “다른 지방이나 나라의 명승고적과 풍속 등을 돌아다니며 구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특정한 지역을 관찰하고 구경한다는 것에는 공통한다. 단, 근대 이전의 관광은 이동에 많은 제약이 동반되었기에 일반화되어 통용되는 용어는 아니었을 것이다.

철학자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1926~84)는 “철도가 등장하면서 공간과 권력의 관계가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었다고 말한다. 또한 철도로 인해 여러 “사회현상”이 생겨났으며, “민족들간의 친밀성”과 함께 “전쟁”의 가능성도 증가했다<sup>1)</sup>고 지적한다. 주지하다시피 근대관광은 철도 부설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관광이 본격적으로 국외로까지 확장되기 시작한 것은 제국에 의한 식민지라는 새로운 영역이 생기고 나서라고 하겠다. 요컨대 우리나라에 있어서 대중화된 관광, 관광의 근대화도 일제에 의해 또 일제를 위해 근대적 인프라가 정비되어 갔던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것이며, 그 시대의 산물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특히 1920~30년대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조선으로의 관광은 조선총독부 철도국<sup>2)</sup>이 주도해 갔다. 철도국은 구한말 철도부설권을 장악한 일제가 1910년 이후 총독부 소속의 관청으로 설치한 것으로, 철도의 관리 운영은 물론, 관광자원 발굴 및 관리도 담당했다. 일제는 1900년 경인선을 시작으로 1905년 경부선, 1906년 경의선, 이후 전국 각지로 철도망을 부설해 갔다.







\*역사인문이미지연구소 선임연구원.

1) 미셸 푸코/이상길 역(2014) 『헤테로토피아』 문학과 지성사 74쪽.

2) 철도국은 한국병합 후 1910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 소속 관청으로 설치되었다. 1917년 7월 31일 조선의 철도가 남만주철도(南滿洲鐵道)에 위탁되면서 조선총독부 총독관방(總督官房)에 철도국으로 설치되었다가, 1919년 8월 20일 ‘조선총독부관제개정(칙령 제386호)’에 의해 철도부(鐵道部)로 개칭되었다. 1925년 3월에 남만주철도의 위탁운영이 해제되면서 다시 조선총독부 철도국이 신설되었고, 4월 1일에 ‘조선총독부철도국 관제(칙령 제84호)’가 시행되었다. 1943년 12월 1일에 조선총독부 관제 개정에 따라 철도국이 폐지되고 교통국(交通局)이 설치되기에 이른다.

조선의 철도는 자원 수탈과 대륙병참기지화 통로의 역할이 필수였지만, 한편으로는 관광을 적극 장려하는 토대로도 이용되었다.

본 발표에서는 일제강점기 근대적 관광지로 부상해 온 경성에 초점을 맞춰 당시 철도국이 발행한 관광팸플릿의 경성지도 속 특정한 공간, 장소로서 토포스(topos)<sup>3)</sup>를 살펴보겠다. 일제가 식민지 경성을 어떤 방식으로 공간화, 가시화하였는지, 지배 권력이 어떻게 내장되어 있는지를 변화해 가는 관광 지도를 통해 고찰하겠다. 구체적 연구 대상으로는 조선총독부 철도국 발행의 1925, 28, 29, 30년의 『경성-개성·인천·수원』이라는 제목의 소책자와, 1933, 35년 『경성-인천·수원·성환·개성』, 36, 37년 『경성-인천·수원·개성』의 리플릿, 이상 경성을 주제로 한 한 시리즈 팸플릿 속 경성지도 8장 【사진1~8】로 한다<sup>4)</sup>.

【사진1】 1925년 「경성시가전도」	【사진2】 1928년 「경성시가전도」
	
【사진3】 1929년 「경성시가전도」	【사진4】 1930년 「경성시가전도」
	
【사진5】 1933년 「경성시가도」	【사진6】 1935년 「경성부 및 부근약도」
	

- 3) 토포스란 공간을 포섭한 상징적 장소의 개념으로, 본 발표에서는 특별한 의미, 상징성이 부여된 지도 속 공간(장소)을 가리키는 용어로 차용한다.
- 4) 본 연구소는 『일제강점기 한국 관련 팸플릿의 분석·해제·이미지·DB 구축』 과제로 약 560여 개의 팸플릿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중에서 조선총독부 철도국 발행의 『경성』을 주제로 한 시리즈는 본 발표에서 다룬 8개의 팸플릿 외에도 1939년 『경성-인천·수원·개성』(조선철도국 발행으로 되어 있음)이라는 소책자도 있다. 단, 이 자료에는 ‘경성지도’ 대신에 ‘경기지방약도’가 게재되어 있어서 본 발표의 연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2. 선행연구 검토

한국에서 일제강점기 관광에 관련된 연구는 근래 20여 년간 한일관계 역사학을 비롯하여 문화학, 지리학, 미술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가 행해지며 양질면에서 성장해 왔다. 최근에는 당시의 사진그림엽서<sup>5)</sup>, 관광(여행)안내서<sup>6)</sup>, 신문, 잡지<sup>7)</sup> 등의 자료를 중심으로 한 이미지 연구가 주목된다. 여기서는 관련 선행연구를 개괄한 뒤, 본 발표의 의의와 필요성을 명확히 하겠다.

먼저 본 발표의 키워드인 조선총독부와 조선(경성) 관광에 관해서는 일제에 의한 “조선총독부의 관광정책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는 것이 일종의 정론에 가깝다. 즉, 관광이 “식민지 지배 정책의 일환”으로서 “동화정책의 주요한 수단으로” 이용되었으며 “식민지 조선의 관광은 ‘근대(성)’ 혹은 ‘식민지 근대’에 대한 보다 입체적인 이해를 가능하게”<sup>8)</sup>한다는 의견은 본 발표의 목적과 일맥상통한다.

- 5) 조정민(2017)「식민지시기 사진엽서『경성백경』의 공간과 서사 전략」『일본문화연구』 제63집 동아시아 일본학회, 김선희(2018)「사진그림엽서를 통해 본 근대 서울의 관광 이미지와 표상」『대한지리학회지』 제53권, 신동규(2018)「일제침략기 한국 사진그림엽서의 탄생과 엽서의 분류 및 시대구분법에 대한 소고」『일본문화연구』 제71집 동아시아일본학회, 김경리(2021)「경성의 시대가 만든 사진그림엽서 경희루의 서사와 표상 -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까지」『서울과 역사』 서울역사편찬원, 이외 다수.
- 6) 정치영(2018)「여행안내서 『旅程と費用概算』으로 본 식민지조선의 관광공간」『대한지리학회지』 제53권, 최현식(2024)「제국과 식민지 풍속 표상의 문제성 -한·일·만 ‘향토’ 재현 사진엽서의 경우-」『만주연구』 제37권 만주학회, 이외 다수.
- 7) 서기재(2013)「식민지 ‘문화 전시의 장’으로서 『관광조선』-여성과 경성을 중심으로-」『일본어문학』 제62집, 일본어문학회, 박은영(2016)「1920~1930년대 경성의 쇼윈도: 신문·잡지 자료를 중심으로」『미술사논단』 제43집, 한국미술연구소, 박선영(2022)「착종(錯綜)과 혼재(混在), 근대잡지와 경성(京城)의 공간문화」『한국문예비평연구』 제76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등 다수.

또한 일제의 관광정책의 근본에는 “전쟁 수행을 위해 경제적 기반을 깊어지게 할 것을 목표로 한 대륙병참기지화”<sup>9)</sup>에 있다는 요지는 식민지 관광의 기본 핵심을 짚고 있다.

한편, 일제강점기 발행된 여행안내서와 관련하여 일제는 “제국주의 의식과 근대의 시각성”을 “출판물을 통해 이미지와 글로써 반복적으로 재생산”<sup>10)</sup>하고 고착화해 갔다고 하는 분석은 본 발표의 방향성과도 부합한다. 또한 경성을 배경으로 한 사진그림엽서 연구에서는 “역사 경관은 ‘조선적인 것’으로서 해체, 개조 파괴, 변용의 대상이자 전근대적이고 쇠락한 정체된 전통으로 표상”하고 반면, “도시경관은 ‘일본적인 것’으로서 근대문명을 상징하는 발전상으로 표상”되었다는 고찰은 일제강점기 민족적 하이라키(hierarchy)의 단면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는 “지배와 피지배의 구조에서 차별적인 시선 대비를 통한 공간의 식민화, 식민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원된 표상”<sup>11)</sup>이라는 해석과 중첩되는 것으로, 이미지 연구에 있어서는 전형적이지만 또한 정형화된 전개라고 할 수 있다.

관광안내서의 도해, 지도를 통한 경성 이미지 연구에 있어서는 다수의 논문에서 “관광이라는 경험을 통해 일본 제국의 위상을 실감케 하는 동시에 미개한 식민지에 대한 지배의 정당성을 주입시키려 한 것”<sup>12)</sup>이라는 등의 흡사한 분석이 행해지며, 더불어 유사한 결론으로 수렴하고 있다. 즉, 일제가 조선(경성)의 관광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홍보한 것은 식민지정책 및 제국주의정당화의 선전을 위한 것으로, 이는 일제강점기 한국 관련 연구의 대체적인 출발과 도착 지점의 주소로 설명되고 있다. 본 발표도 이러한 지점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반면, “식민지인의 자아”를 긍정하며 “관광을 식민 통치의 선전과 계몽이라고 국한해 보는 시각”<sup>13)</sup>에 반론을 제기하는 논고도 있다. 덧붙여 1920~30년대 관광 지도는 제공된 정보를 확인하는 하나의 “홍보 방법”<sup>14)</sup>이라고 정의한 연구도 있다. 이들은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주체성과 관광이라는 산업구조에 집중한 것으로, 안이한 접근의 단편적 해석일 수 있으나, 일률적인 시선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는 또 다른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상과 같이 일제강점기 경성 관광, 정책, 콘텐츠의 관련 연구는 성과를 보이며 발전해 가고 있지만, 대부분이 소수의 (비)문자 텍스트에 의존한 부분적이며 단면적 분석에 그치고 있다. 그렇기에 본 발표에서 1920~30년대 조선총독부 철도국이 발행한 다수의 팜플릿 속 경성 지도를 통시적 접근으로 이미지 양상을 고찰하는 작업은 자료의 구체성과 다양성을 확보함으로써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발행 주체가 지도에 이식한 함의를 추적하여, 식민도시 경성에 내재하는 특정한 토포스의 성격을 정의해 가는 것은 일제강점기 조선 관련 관광팜플릿을 연구함에 있어서 하나의 참신한 시도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3. 남북 혹은 좌우-선(線)과 역(驛)

8) 조성운(2009) 「일제하 조선총독부의 관광정책」 『동아시아문화연구』 제46집 41쪽.

9) 森田智恵(2020) 「戦時期植民地朝鮮における帝国日本の観光政策-雑誌『観光朝鮮』の創刊背景を中心に」 『観光学術学会研究報告要旨集』 75쪽.

10) 전수연(2010) 「근대관광을 통해 드러난 일본의 제국주의:1900년대 이후 일본의 조선관광과 여행안내서를 중심으로」 『미술사학보』 제35집 334쪽.

11) 김선희(2018) 「사진그림엽서를 통해 본 근대 서울의 관광 이미지와 표상」 『대한지리학회지』 제53권, 569, 581쪽.

12) 김선정(2017) 「관광 안내도로 본 근대도시 경성-1920~30년대 도해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33) 한국문화연구원 35쪽.

13) 원종혜(2016) 「일제시대 觀光地圖에 조명된 京城 관광의 이미지」 『역사와 경계』(100) 부산경남사학회 166쪽.

14) 김경리(2017) 「경성관광협회의 관광문화산업과 관광지도의 연구」 『외국학연구』 제42집 481쪽.

관광팸플릿에는 사적 및 문화유산의 위치와 교통편, 숙박 및 유흥시설, 그리고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 등, 관광에 필요한 제반 시설의 자료가 실려있다. 또한 형식과 구도의 차이는 있을 지언정 대부분 한눈에 특정 지역을 파악할 수 있는 지도를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서 지도는 지리적, 지형적 정보제공을 근본 목적으로 하기에 정확성과 객관성이 요구된다. 또한, 관광 지도의 경우는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혹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제작되는 것이므로, 실재성에 기초하지만, 발행자와 작성자의 의도에 따라 어떠한 공간을 어떻게 부각하고 어디까지 명기할 것인지가 기법화, 시각화되어 나타난다. 그것이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지도일 경우는 지리의 사실적 표기 속 의도된 메시지를 은폐, 혹은 표명하며 제국의 이데올로기와 식민 지배의 정당성 확보에 적극 이용했으리라 쉬이 추측할 수 있다. 하물며 조선총독부 철도국에서 발행된 자료라면 제국주의 질서와 논리를 지도 속 공간, 장소의 이미지에 적극 반영해 갔을 것이다. 본 발표에서는 이러한 논지를 구체적 자료를 통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표1】

연도	자료명/ 지도명/ 범례	표시된 지역/ 경성인구(일본인수) *비고
1925	『경성-개성·인천·수원』 / 「경성시가전도(京城市街全圖)」 / 시내전차, 1:32,000 축척도	경성역 주변 및 성곽 안, 용산지역/ 27만여명 (7만3,000여명)
1928	『경성-개성·인천·수원』 / 「경성시가전도(京城市街全圖)」 / 시내전차, 1:32,000 축척도	경성역 주변 및 성곽 안, 용산지역/ 31만여명 (10만여명)
1929	『경성-개성·인천·수원』 / 「경성시가전도(京城市街全圖)」 / 시내전차, 1:32,000 축척도	경성역 주변 및 성곽 안, 용산지역/ 32만1,848명 (8만6,548명)
1930	『경성-개성·인천·수원』 / 「경성시가전도(京城市街全圖)」 / 시내전차, 1:32,000 축척도	경성역 주변 및 성곽 안, 용산지역/ 34만290명 (9만 3,272명)
1933	『경성-인천·수원·성환·개성』 / 「경성시가도(京城市街圖)」 / 주요 건조물, 관광도로, 전차선로, 버스선로, 성벽,	경성역 주변 및 성곽 안, 용산, 고양군 포함. / 37만4,909명 (10만4,656명) *주요 건물의 형태 본떠서 그려 넣음. (33년 이후 지도 공통사항)
1935	『경성-인천·수원·성환·개성』 / 「경성부 및 부근약도(京城府及附近略圖)」 / 명소건조물, 도로, 전차선로, 버스선로, 철도선, 성벽, 산악, 하천, 신사, 사원.	경성역 주변 및 성곽 안, 용산, 여의도, 영등포, 노량진 등 포함./ 37만4,909명 (10만4,656명)
1936	『경성-인천·수원·개성』 / 「경성부 및 부근약도(京城府及附近略圖)」 / 명소건조물, 도로, 전차선로, 버스선로, 철도선, 성벽, 산악, 하천, 신사, 사원.	경성역 주변 및 성곽 안, 용산, 여의도, 영등포, 노량진 등 포함./ 63만6,854명 (12만1,309명)
1937	『경성-인천·수원·개성』 / 「경성부 시가약도(京城府市街略圖)」 / 명소건조물, 도로, 전차선로, 버스노선, 철도선, 경성궐도선, 성벽, 산악, 하천, 신사, 사원	경성역 주변 및 성곽 안, 용산, 여의도, 고양군, 시흥군, 광주군 등 포함./ 67만7,241명(12만 6,735명) *洞이 町으로 개칭 표기 <sup>15)</sup>

1920~30년대 경성 관광용으로 제작된 지도<sup>15)</sup> 중에서도 조선총독부 철도국이 관광팸플릿에 게재한 지도는 대부분이 시내의 기본 도로망과 철도선 및 전차 노선, 동(洞), 정(町)과 통(通)의 행정구역, 명소와 구적(舊蹟) 등을 표시한 그야말로 경성을 압축하여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구도로 되어 있다. 【표1】에서 보듯이 1925년부터 30년까지의 소책자에 첨부된 지도는 “경성시가전도”로 제목이 동일하다. 지도 구도 역시 대체로 흡사하며, 연도별 세부적 사항과 표기에 수정을 가하여 차이와 변화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경성 전체를 축소한 형태의 구도는 상단의 경성역을 중앙에 두고 좌로는 용산지역을, 우로는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는 사대문 안 구역이 그려져 있어서, 실제 남북 방위가 좌우로 위치한다. 이는 대칭 구도를 통해 균형 잡힌, 안정감 있는 이미지의 경성을 부각시키고자 한 의도로 이해된다.

지도에는 도로와 철도선, 전차선을 중심으로 행정구역명, 주요 명소와 건조물이 간략하게 표기되어 있다. 또한 29년 이후의 지도에서는 시내전차선을 시작으로, 육지와 하천, 명소, 사원 등을 컬러화하여 가독성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1933년부터 37년까지는 리플릿으로 제작되어, 내지면에 지도를 싣고 있다. 특히 20년 대와는 달리 컬러와 범례 다양한 픽토그램 등이 제시되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 명소와 철도선을 비롯하여 정비된 도로와 전차, 버스선은 물론이고 37년도에는 경성궐도선<sup>17)</sup>까지 파악하기 쉽게 표기하고 있다. 전체 구도는 중앙에 경성역을 두고 있는 것에 공통하며, 발행 연도에 따라서 “경성(부)시가도”, “경성부 및 부근약도”로 제목하여 한강 아래의 여의도, 노량진, 고양군, 광주군 등을 표기하며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경성 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소책자와는 달리 방위가 실제적이어서 각 지역의 위치와 간격을 이해하기 수월하다.

이처럼 1925~30년까지의 지도에서는 용산과 관광 중심지, 두 구역만이 좌우로 제시되어 협소하고 다소 빈약한 지역으로서의 경성을 이미지한다. 반면, 1933~37년까지의 지도에서는 한강의 상하, 좌우로, 보다 확장되고 복잡한 구도를 제공함으로써 근대적 도시로서의 경성을 선보인다.

한국병합 이후 일제는 경성을 조선총독부의 소재지로 하고 조선 지배 권력의 구심지(球心地)로 삼았다. 근대적 인프라가 정비되어 가는 경성은 대내외적으로 매력적인 도시로 여필되며 조선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부상하게 되는 것이다. 조선총독부 철도국이 발행한 관광팸플릿은 내지인(일본인)을 우선으로 한 것으로, 당시의 조선 관광은 대부분이 관부연락선(關釜連絡船)으로 들어와서 철도를 통해 조선 각지를 일주하고 멀리로는 만주 등으로까지 이동하는 긴 여정이었다. 다수의 관련 팸플릿에서 보듯이 조선 관광에서 경성은 지나칠 수 없는 장소였으나, 일정상 거의 하루 코스(반나절 코스도 있음)로 안내되고 있음을 아래 【표2】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15) 1936년 3월 23일, 조선총독부 경기도 고시 제32호에 따라 경성부 행정구역의 명칭이 기존의 동(洞)에서 정(町)으로 개칭되었다. 예컨대 36년 지도에도 효자동으로 표기된 것이 37년에는 효자정으로 바뀌어, 그 내용이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같은 해 4월 1일에는 경기도 고양군 용강, 연희, 한지면, 시흥군, 영등포읍, 북면, 김포군, 양동면, 양화리 등이 경성부로 편입되어, 37년 지도에 일부 드러난다.

16) 김경리(2017) 「경성관광협회의 관광문화산업과 관광지도의 연구」 『외국학연구』 제42집 471,475쪽. 이 논문에서는 경성관광협회가 발행한 지도를 중심으로 “첫째 기본 도로망과 동과 정 표시, 각종 교통 노선, 관광명소와 구적을 표시한 지도, 둘째 명소와 구적 외, 숙박업체, 백화점, 음식점 등을 표시한 지도, 셋째 경성의 주요 기념품 상품 네 곳의 각자 상점 홍보용으로 자체 제작한 지도”로 구분하여 “경성 관광을 명소탐방과 유흥관광으로 이분화”하여 협회가 “철저하게 관광문화의 소비용 지도”로 활용했다고 분석한다.

17) 경성궐도선은 1930년 왕십리-동독도(東纛島) 개통을 시작으로 자료가 발행된 37년에는 동대문-서독도 간의 전철이 개통되어 지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지도상에도 이들 관광코스의 동선은 대략 추적할 수 있다. 여기서는 주요 관광코스와는 달리 경성지도에 반복적으로 부각되는 요소, 장소를 살펴보고 그것의 함의까지 추론해 보겠다.

【표2】

연도	하루 관광 코스(전차 이용 경우)	비고
1925	정거장-(도보)→남대문-(도보)→조선신사-(도보)→남산공원-(도보)→(영락정)→(전차)→창덕궁,창경원(중식)→(전차)→파고다공원-(전차)→경복궁-(도보)→미술품제작소-(도보)→조선은행 앞(석식 후 본정 야경)	1925 조선신사 완공, 神宮으로 격상
1928	정거장-(도보)→남대문-(도보)→조선신궁-(도보)→남산공원-(도보)→(영락정)→(전차)→창덕궁,창경원(중식)→(전차)→파고다공원-(전차)→경복궁-(도보)→미술품제작소-(도보)→조선은행 앞(석식 후 본정 야경)	1926 조선총독부 완공 1927.9 광화문 이전
1929	정거장-(도보)→상공장려관→남대문-(도보)→조선신궁-(도보)→남산공원-(도보)→은사과학관→(영락정)→(전차)→창덕궁,창경원(중식)→(전차)→파고다공원-(전차)→총독부→경복궁-(도보)→미술품제작소-(도보)→조선은행 앞(석식 후 본정 야경)	1929.9.12.~ 10.31. 조선박람회 개최
1930	정거장-(도보)→상공장려관→남대문-(도보)→조선신궁-(도보)→남산공원-(도보)→은사과학관→(영락정)→(전차)→창덕궁,창경원(중식)→(전차)→파고다공원-(전차)→총독부→경복궁-(도보)→미술품제작소-(도보)→조선은행 앞(석식 후 본정 야경)	1929.12 상공장려관으로 개칭
1933	정거장-(도보)→상공장려관→남대문-(도보)→조선신궁-(도보)→남산공원-(도보)→은사과학관→(영락정)→(전차)→창덕궁,창경원(중식)→(전차)→파고다공원-(전차)→총독부→경복궁-(도보)→미술품제작소-(도보)→조선은행 앞(석식 후 본정 야경)	
1935	정거장-(도보)→상공장려관→남대문-(도보)→조선신궁-(도보)→남산공원-(도보)→은사과학관→(영락정)→(전차)→창덕궁,창경원(중식)→(전차)→파고다공원-(전차)→총독부→경복궁-(도보)→미술품제작소-(도보)→조선은행 앞(석식 후 본정 야경)	
1936	역→(전차)→남대문,상공장려관→(버스)→조선신궁-(도보)→남산공원→경성신사→은사과학관→(도보)→영락정→(전차)→장충단공원,박문사(전차)→동대문→(전차)→종로4정목→(버스)→경학원→(버스)→창경원(동·식물원,비원)→(버스)→조선총독부→(도보)→경복궁·박물관→(전차)→덕수궁→(도보)→미쓰코시→(도보)→본정→여관	1930.미쓰코시백 화점 개막식 1932.박문사창건 1936.경성신사 (1898)국폐소사로 승격
1937	역→(전차)→남대문,상공장려관→(버스)→조선신궁→(도보)→남산공원→경성신사→은사과학관→(도보)→영락정→(전차)→장충단공원·박문사→(전차)→동대문→(전차)→종로4정목→(버스)→경학원→(버스)→창경원(동·식물원,비원)→(버스)→조선총독부→(도보)→경복궁·박물관→(전차)→덕수궁→(도보)→미쓰코시→(도보)→본정→여관	1936.3 행정구역 변화 1937.7 중일전쟁 발발

【표2】의 관광코스를 살펴보면 1925년부터 35년까지의 코스는 (경성역 근처)정거장에서 출발하여 조선은행, 본정(本町)이 마지막 장소가 된다. 이후의 36, 37년의 코스 역시 (경성)역에서 출발하여 본정에서 관광을 마친다. 시내 전차 및 버스노선의 개통과 증설로 관광 스폿이 점차적으로 늘어나서 1925년의 11곳 정도에서 29년 14곳, 37년에는 19곳이나 되었다. 특히 1928년 10월 17일에 개통된 남대문, 광화문 간의 전차선으로 경복궁까지 노선이 완성되면서



29년 지도부터는 전차선이 주요 관광코스를 순환하듯 이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9년에는 일제가 조선 통치 20주년을 기념하고 선전하기 위해 경복궁 일대에서 조선박람회(9.12~10.31)를 개최한 해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관람객의 수송과 원활한 이동에 대응하려 노선 증설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각 지도에는 도로와 각종 선로가 중복 교차하고 있어서 점점 근대 도시화 되어 가는 경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지도에서 당연히 표기된 것은 경인선(1900), 용산선(1905), 경부선(1905), 경의선(1906), 경원선(1914) 등의 철도망과 시내 전차선로 등이다. 물론 관광은 동선과 이동이 가장 중요하기에 이를 중심으로 지도 역시 작성됨이 당연하며, 사람들은 지도 속 선을 쫓아서 이동 경로를 상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경성 관광을 위한 것인데도 지도상에는 철도의 경우(만주)봉천, 신의주, 원산, 부산까지로 각 노선의 종착역까지 표기하고 있다. 이것은 관광객의 이해를 도우려는 배려일 수도 있으나, 지도를 읽는 사람에게 일본과 한반도, 그리고 대륙으로까지 달아있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제국 일본의 위세를 각인하는 효과도 의식했을 것이다.

요컨대 한반도에 부설된 철도는 일제에 의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기능과 이익을 위한 시설이라는 것을 전경화한다면, 지도상의 철도선은 관광 편의 시설 이전에 식민지 지배의 장악선, 대륙으로의 연장선으로도 해석되는 것이다.

지도상 선들은 동서남북으로 경성을 관통하는 구도로 되어 있다. 특히 1929년 이후 컬러가 가미된 지도에서는 철도선과 전차선로를 각각 검정과 붉은색으로 표기하며, 마치 신체의 뼈대와 동맥을 상징하듯 지도 전체에 뻗어있다. 앞선 연구에서는 이들 교통선의 “기하학적이고 직선적인 선로의 등장이 전통과 사회로부터 탈맥락화 시켰”으며 그것은 “제국주의 욕망과 깊이 연관”<sup>18)</sup>되어 있다고 고찰한다. 말하자면, 일제에 의한 교통인프라의 정비는 식민지 통치의 효율성 강화와 대륙진출을 위한 것이라는 근본적 배경을 짚은 것으로 대략 타당할 것이다. 그렇기에 지도상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선로들은 경성의 근대화를 표상하지만, 그것은 조선의 번영이 아닌 일제 번영의 상징이고, 제국적 야욕을 시각적으로 설득해 가는 장치라고 하겠다.

지도상의 선로는 발행 연도에 따라 길어지거나 복잡해지는 양상을 보이며 근대적 교통수단 기차, 전차의 노선과 그 영역까지도 확인된다. 한편, 전차와는 달리 기차, 철도는 다양한 역할과 기능이 기대되었다. 본 발표의 지도에서도 특히 중심점이 되는 곳은 경성역과 용산역이다. 소책자 지도에서는 두 역이 좌우 양분된 구성으로(방위로는 경성역 남쪽에 용산역 위치), 이후 리플릿 지도에서도 상하 구도를 형성하며, 역을 중심으로 버스노선과 여러 철도선이 한데 모여있는 곳으로 표기되어 자연스레 부각된다.

【표3】

	경성역	용산역
	경성 바깥의 현관	경성 남쪽의 현관
영업 개시	1900.07.08.(07.05 한강철교 완공)	1900.07.08.(경인선 개통일)
(역,지역) 명칭	남대문정거장→남대문역→경성역 <sup>19)</sup> 1923.01.01부터 경성역 개칭 <sup>20)</sup>	용산은 조선시대 둔지방(屯之坊) <sup>21)</sup> , 둔지미 혹은 둔지산으로 불림
개축 역사 (驛舍)	1925.09.30. 완공, 10.12. 영업개시 1,750여평, 르네상스식 (일부 3층)	1906.11. 480평, 한국 최초의 서구식 대형(일부 3층) 목조건축물

18) 전수연(2010) 「근대관광을 통해 드러난 일본의 제국주의:1900년대 이후 일본의 조선관광과 여행안내서를 중심으로」 미술사학보 제35집 333~334쪽.

	철근콘크리트 건물	1932.05. 330평, 벽돌조 3층 슬래브
노선	경인선, 경부선, 경의선, 등.	경부선, 경원선, 경의선, 용산선 등.
근처	남대문, 조선신궁, 남산공원, 총독부 등	철도국, 총독관저, 군사령부, 병영 등

【표3】에서도 알 수 있듯이, 두 역은 한반도를 종횡하는 철도노선의 시발(종착)역 내지는 경유지로서 주요역이자, 핵심 거점임을 짐작할 수 있다. 경성역과 용산역은 같은 시기에 영업을 개시하여, 각각 경성의 현관을 자부하였다. 또한 역사(驛舍)도 서구식의 화려한 대형 건물로, 당시의 경성 8대 명소<sup>22)</sup> 에도 포함될 정도로 이목을 끌었다고 알려진다. 앞선 연구에서도 경성역 등 일제에 의한 건축물에 관하여 “당시 주변 환경보다 압도적인 도시 건축물”임을 지적하고, 이는 “시각적 지배를 통해서 피식민 주체의 마음에 자연스럽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의도”가 있다고 해석한다. 아울러 “상징 경관을 통해서 동화의 정치이념이 확산되었다”<sup>23)</sup>고 덧붙인다. 즉, 경성역, 용산역이라는 선진문물의 시설은 외관상 강렬하게 각인됨으로써 제국 경성의 중심 시가지와 용산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의 역할을 하며 근대도시 경성에서 존재감을 과시한다.

먼저, 경성역은 식민수도 “경성의 관문이 되는 중앙역을 만들 필요성”에 의해 건축되어, “일본-조선-만주를 연결하는 국제 열차가 발착하는 역에 어울리는 국제적인 수준의 역사”<sup>24)</sup>로 준공된 것이었다. 경성역은 각 팸플릿 본문에도 빠짐없이 소개되고 있어서 그 자체로 관광 명소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유명 관광지로의 접근성이 좋은 이유로 지도의 중앙에는 어김없이 경성역이 위치한다. 대부분 지도에서는 경성 중심지는 크게 성벽으로 둘러싸여 하나의 특별한 구역을 이미지하고 있다. 특히 그 속에서도 제국 권력의 상징인 조선총독부는 【사진9】의 소책자 지도에서는 우측 가장자리, 【사진10】 리플릿 지도에서는 상단부 끝에 위치하여 마치 요새와 같은 자리를 점하고 있어서, 위압적이고 권위적인 인상을 주며 주의를 끈다.

19) 경성역의 이름을 처음 사용한 것은 1900년 경부선과 경인선의 종착역이었던 서대문역이었다. 1904년 경성역에서 서대문역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1919년 폐지되었다. 이후 확장공사 이후 남대문역이 경성역으로 개칭되었다. 최인택 외 (2023)『이미지로 읽는 근대 서울 2-사대문 안 한국인들의 공간과 일제의 침투』 서울역사편찬원, 214쪽. 참조.

20) 총독부 고시(1922년 12월 29일자)로 공식적으로 1923년 1월 1일부터 남대문역이 아닌 경성역으로 불리게 된다. 1923년 1월 1일 「매일신보」 3면 기사에도 “오늘부터 경성역이 된 남대문역의 새 간판”이라는 제목으로 사진이 실려 있다.

21)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둔지산 일대를 강제수용하여 ‘용산’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이후 1914년 경성부가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경성부 용산으로 공식 명칭화했다. 둔지산 혹은 둔지미라 불리던 마을이 있던 지역은 조선시대에 한성부 남부 둔지방(屯之坊)이라는 행정구역이었다고 알려진다. 1906년 제작된 ‘한국 용산 군용 수용지 명세도’를 보면, 남산 아래 이태원, 둔지산, 서빙고 일대가 그려져 있는데 지도 명칭을 ‘용산’이라고 표기했다.

<https://news.kbs.co.kr>, <https://gonggam.korea.kr>, <https://archives.seoul.go.kr/exhibition/yongsan/1/2>  
서울특별시 서울기록원 등 참조.

22) 권혁희(2005) 『조선에서 온 사진엽서』 민음사, 54~55쪽. 경성의 8대 명소를 “조선총독부, 경성부청, 조선신궁, 경성역, 용산역, 식물원, 남산공원, 남대문”으로 적고 있다. 실상 이들 명소가 당시의 사진엽서에 단골로 실리기도 했다. 용산역은 일본인들이 덕수궁 석조전 등과 더불어 조선의 4대 건축물로 꼽았을 정도라고 알려진다.

23) 주창윤(2023) 「일제의 공간 재현을 통한 동화의 서사 논리-조선신궁, 경성역, 경성운동장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31권 2호 20쪽.

24) 최인택 외 (2023)『이미지로 읽는 근대 서울 2-사대문 안 한국인들의 공간과 일제의 침투』 서울역사편찬원, 214쪽.

<p>【사진9】 1930년 「경성시가전도」 소책자 지도 ○용산역 □경성역 △충독부</p>	<p>【사진10】 1935년 「경성부 및 부근약도」 리플릿 지도 ○용산역 □경성역 △충독부</p>
	

주지하듯이 경성은 한국병합 이후 조선의 왕도(王都)에서 식민지 근대도시로 개조되어 갔다. 일제는 1912년부터 경성지구개정사업을 실시하며 경복궁 중심의 도성을 가로지르는 전통적 구조에서 도로와 교량, 하천 등을 정비하며 통치에 용이한 도시로 재편해 간다. 각 지도상에서도 경성역에서 시작되는 도로와 선로가 격자형으로 확장되고 구획되어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특히 1929, 30년 지도에서는 중심지를 관통하는 시내전차선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경성역을 시작으로 곧게 직선으로 뻗어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1929년에는 앞서 언급했듯이 조선 박람회 개최된 해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지도를 통해서도 이전보다는 선명한 식민 통치의 질서와 제국 권위의 시각화를 도모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경성역 중심의 지역은 행정구역명(町, 洞, 里)<sup>25)</sup>이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표시되어 근대화된 식민지로서의 경성을 부조한다. 그중에서도 인프라가 발달한 본정통, 태평통, 남대문통 등은 일본인 관광객의 주된 동선이자, 소위 일본인 거류지로 불리는 곳으로, 주변과는 구별되는 특권적 공간을 형성한다. 일제의 집중된 개발과 투자로 조성된 공간은 일본인들에게 “조선 내의 일본”<sup>26)</sup>을 관광하는 듯한 친근감을 부여한다. 그 배경에 경성역이 자리하는 것이다.

한편, 용산역은 각 지도에서 역을 기점으로 철도국과 철도공원(운동장) 등 철도 관련 시설<sup>27)</sup>이 운집해 있으며, 33, 37년 지도에는 철도공장<sup>28)</sup>도 표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조선의 외교권을 장악한 일제는 통감부 안에 철도관리국을 만들고,

25) 본 발표의 1925~37년까지 관광팜플릿의 지도에서 교통망 이외 가장 중요하게 표시된 것은 명소나 편의시설의 위치, 지역 등이다. 각 지도에서 구체성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공통적으로 행정구역명(町, 洞, 里), 도로명(通), 그리고 명소 등이 표기되어 있다. 전술했듯이 일제는 이른바 창지개명(創地改名)을 통해 조선의 지명도 일본식으로 개칭해 갔다. 특히 1935년 이후 지도부터는 한자와 일본식 명칭(永登浦-えいとうぼ, 龍山-りゅうざん 등)의 히라가나 표현의 지명이 병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일제가 자행한 민족말살정책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 지점이다.

26) 정치영(2018)『여행안내서 『旅程と費用概算』으로 본 식민지조선의 관광공간』『대한지리학회지』 제53호 731쪽.

27) 25년 지도에는 철도국, 철도관사, 철도공원, 철도학교, 28년에는 철도국, 철도관사, 철도공원, 29년에는 철도국, 철도관사, 철도그라운드, 철도공원, 30년에는 철도국, 철도관사, 철도그라운드, 철도공원, 33년에는 철도국, 철도공장, 철도관사, 철도병원, 철도운동장, 철도공원, 철도원양성소, 35, 36년은 철도국, 철도운동장, 철도공원, 37년에는 철도국, 철도그라운드, 철도공장이 각각 표기되어 있다.

28) 철도공장은 1905년 6월 24일 임시 군용철도감부(臨時軍用鐵道監府)에서 용산공장반으로 설립되어, 1906년 용산공장으로, 1923년 경성공장으로 공식적으로 개칭되었다. 그러나 이를 용산철도공장이라 불렀기에 지도에는 철도공장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 한반도 최대의 철도공장이라 불리었다.



같은 해 용산에 임시군용철도 수리공장을 설치하는 등, 점차 역 주변으로 철도기지화를 진행해 갔다. 이후 용산역은 러일전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경의선과 경원선(1914)의 기점으로 설정됨에 따라 철도 운행의 요충지라는 위상을 차지하며 지역 환경도 변해 갔다<sup>29)</sup>.

아울러 역 주변은 철도 관련 시설 이외, 일본군사령부(1907년 설치)를 비롯하여 포(砲), 기(騎), 공(工), 보병영(步兵營), 육군관사, 사격장 등이 지역 전체에 포진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발행 연도에 따라 시설이 증가, 확장되거나 혹은 이전되거나 하는 다소 변화된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일제는 러일전쟁 중에 체결한 한일의정서(1904.2.23)에 근거해 일본군 주둔을 위한 대상지로 용산을 선정하고, 러일전쟁이 끝난 후 1906년 4월부터 13년까지 8년에 걸쳐 본격적으로 군사기지를 축조해 간다<sup>30)</sup>. 조선 침략의 발판이자 무력 거점으로 사용되었던 용산 기지는 이후 “1915년부터 1922년까지 확장공사를 거쳐, 1923년부터 1945년까지는 대륙침략의 전진기지로 사용”<sup>31)</sup>되었던 것이다. 이런 조성 과정에서 일제는 기지 좌우측에 용산에서 도심부로 향하는 도로와, 중앙부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도로를 정비했다. 역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뻗은 도로는 이동의 편리성과 함께 문명화된 경성을 선명하게 부각하고 있다. 반면, 용산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은 행정구역명<sup>32)</sup>과 명소의 표기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 그렇기에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직선의 도로와 철도, 군사 관련 시설명이 오히려 시각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당시 거침없는 제국의 권력과 위용의 표상으로 다가온다.

이상과 같이 경성역은 관광의 출발점이자, 그 자체로 하나의 관광명소로서 역할이 기대되었지만, 용산역은 관광보다는 오히려 역의 기능적, 실질적 성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철도와 일본군이 결합함으로써, 군대의 이동, 징용병,<sup>33)</sup> 군수물자, 물류의 수송 및 수탈 등을 실행한 곳으로 일종의 군사시설로서의 기능도 겸비했다고 하겠다.

29) 최남선이 1908년에 발표한 창가 『경부철도가』에 “용산역 다달았도다. 새로 이룬 저자는 모두 일본 집. 이천여 명 일인(日人)이 여기 산다네. 서관(西關) 가는 경의선, 예서 갈라져”라는 구절이 있다. 1905년 개통된 경의선은 당시 용산이 기점이었다는 것과, 1910년경 재조일본인이 약 17만 명으로 파악되며, 그중 약 7만명 가량이 철도 연선에 집중해서 거주했던 사실을 『경부철도가』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30) 을사늑약 이후 수립된 ‘영구병영계획’에 따라 조성된 용산기지는 대륙침략을 위해 보병부대를 강화해 간다. 용산병영은 약 300만 평에 이르는 넓은 공간이어서 보병뿐만 아니라 포병, 기마병, 수송병 등 당시 일본군의 거의 모든 병과의 부대들이 주둔했다고 알려진다. 또한 부대 근처에는 일본인이 경영하는 민간 시설이 많았기에 자연스럽게 기지 주변으로 일본인들의 거주지가 형성되었다. 덧붙여 33년 지도에는 확장된 용산을 의미하듯 新/舊 용산으로 지역이 구분된다. 용산역의 철도선로를 기준으로 동쪽(지도상으로는 아래쪽)이 신용산으로, 말하자면 일본인들이 거주하게 되면서 생겨난 신시가지라고 하겠다.

김천수(2014)「일제시기 용산기지 형성 과정에 대한 기초 연구」『서울과 역사』 87호, 163~210쪽.

서민교(2018)「일제강점기 용산기지의 군사전략적 기능에 대하여-1904년 러일전쟁에서 1930년대 만주 사변기의 ‘조선군’의 역할과 기능」『서울과 역사』 98호, 233~261쪽, 등 참조.

31) 정시구(2017)「일제강점기의 조선통감부와 조선총독부의 역할 연구」『한국행정사학지』 제41집 198쪽.

32) 행정구역명은 드물게 표기하고 있기도 한데, 이태원의 경우는 각 지도(33년 지도에는 표기 없음)에 명기하고 있다. 예컨대 발행 연도에 1925, 28년 梨大院, 29, 30년 梨泰院, 35, 36년 梨泰院里, 38년 梨泰院町으로 적고 있다. 이태원은 조선 초기에는 ‘李泰院’이었고, 임진왜란 이후에는 ‘異胎院’이라고 적었다고 하며, 효종 이후 현재까지는 ‘梨泰院’으로 쓰고 있다. 즉, 지도 속 ‘梨大院’의 표기는 조선 지명을 일본식 발음의 한자로 표기할 때 나타나는 오기로 보인다. 일제는 조선 지명을 한자와 오십음도로 표기하고 있어서 우리 발음과는 다른, 낯선 표기의 경우가 종종 있다.

33) 2017년 8월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용산역 앞에 세워진 이유는 당시 강제 징집된 조선인 노동자들을 이곳에 집결시켜 열차에 태워 떠났던 참혹한 역사의 장소이기 때문이다. 징집 되어온 노동자들은 일본은 물론, 사할린, 남양군도, 쿠릴열도 등의 광산, 농장, 군수공장, 토목공사 현장에 끌려가 착취당했다.

팜플릿을 펼치다, 경성을 만나다

즉, 지도상에서 좌우, 실제 방위상으로 남북에 위치하며 선으로 연결된 용산역과 경성역은 제국철도망의 중심으로서 각각 식민 통치와 대륙진출의 교두보, 혹은 관광 관문의 역할을 담당한다. 일제가 작성한 1920~30년대 경성지도는 문명화된 식민수도, 제국 권력의 상징 공간 등 다양한 이미지가 착종하는 속에서 제국의 질서와 권위가 정돈된 구성으로 재편되어 제공되고 있다.

#### 4. 동서 혹은 상하-장(場)과 소(所)

앞서 경성지도를 관통하는 선과, 남북 혹은 좌우에 위치하며 지역의 중심적 역할을 표상해 온 역에 관해서 설명했다. 여기서는 방위상 동과 서, 혹은 상하의 끝단에 위치하면서 각 지도에 등장하고 있는 경성운동장(京城運動場)과 형무소(刑務所)에 관하여 살펴보겠다.

【표4】

연도	스포츠의 장(場)	형무소 명칭
1925		(서대문)형무소
1928	경성부영그라운드	(서대문)형무소
1929	경성부영그라운드	(서대문)형무소
1930	경성부영그라운드	(서대문)형무소
1933	경성그라운드	경성형무소
1935	경성그라운드, 철도운동장, 경마장	경성형무소
1936	경성그라운드, 철도운동장, 경마장, 뚝섬골프링크스	경성형무소
1937	경성그라운드, 철도그라운드, 경마장, (돈암정)골프장, 군자리골프장	서대문형무소, 경성형무소

일본에서는 1차 세계대전 이후 스포츠에 관심이 높아져 재조일본인 사이에서도 야구와 테니스 등이 성행하였다. 그러나 총독부는 조선인의 스포츠 활동이 민족의식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금지해 왔다. 하지만, 1920년대에 들어서는 내선융화(內鮮融和)의 전략으로 장려하는 정책을 취한다. 그렇기에 “국민체육의 발달과 국민건강 진흥에 기여”<sup>34)</sup>한다는 포장된 취지의 실제적 장소도 필요했을 것이다. 1920년대에는 스포츠와 근대를 상징이라도 하듯 경성골프구락부(京城ゴルフ俱樂部), 조선경마구락부(朝鮮競馬俱樂部) 등이 설립되며 경성을 비롯하여 타 도시에 도 골프장<sup>35)</sup>, 경마장<sup>36)</sup>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이들은 대중적 스포츠라고 하기에는 어렵지만,

34) 「경성일보」 1924년 1월 28일자 1면 “意義深遠な新設さる、大グラウンド” 제목의 기사.

35) 지도에 표기된 뚝섬(군자리)골프장은 1929년에 완공된 곳으로, 당시 동양 제일의 규모로 알려진다. 그보다 앞서 효창원(1921~24)과 청량리(1924~29)에도 골프장이 있었다. 원래 조선왕조의 능자리에만 들어져 문화재 훼손은 물론, 조선왕조의 권위와 위엄을 훼손하였다. 골프장은 경성뿐만 아니라 대구(1923), 평양(1928), 원산(1929), 부산(1932)순으로 골프구락부가 개장하였다. 1937년에는 조선골프연맹이 발족하고 각종 골프대회가 개최되는 등 골프의 인기가 상승했다고 알려진다. 그러나 태평양전쟁을 계기로 이들 골프장은 군용시설 및 활주로로 이용되는 등 역사의 영욕을 겪었다. 佐伯若夏ほか(2020)「韓国におけるゴルフ導入期に関する一考察」広島国際大学総合教育センター紀要 第5巻 106쪽 참조.

36) 한반도 최초의 경마장은 1922년 5월에 개장한 용산의 조선경마구락부이고, 25년 수해로 시설물이

장소가 함유하는 상징성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있다.

【표4】에서 보듯이 1935년 지도부터는 다양한 체육시설이 보인다. 경성을 관광하는 이들이 스포츠 체험도 시도했는지 모르지만, 관광안내서에 이들을 게시함으로써 경성의 발전상을 어필할 심산은 있었을 것이다. 그중에서도 ‘경성운동장’<sup>37)</sup>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도에서 동대문 근처에 위치하는 경성운동장은 앞서 1925년 9월 30일에 준공된 경성역에 이어서, 10월 15일 창건된 조선신궁<sup>38)</sup>과 같은 날에 개장된 한반도 최초의 근대 체육시설이자, 국제경기장이다. 경성운동장은 완공된 해(1925년)를 제외하고 1928년부터 37년 지도까지 경성(부영,府營) ‘그라운드’라는 가타카나 표기의 명칭으로 등장한다. 일본에서는 다이쇼기부터 외래어가 한창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쇼와기에는 일반인들에게도 일상적으로 통용되던 시기<sup>39)</sup>였기에 ‘경성그라운드’라는 명칭은 ‘경성’의 이국적인 정서와 ‘그라운드’의 선진적 이미지로 수용되었을 것이다. 이런 근대적 이미지의 경성운동장은 약 2만 5,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육상경기장 외에 야구장, 정구장(庭球場), 수영장<sup>40)</sup>과 씨름장, 마장(馬場)까지 갖춘 종합체육 시설이었다.

일제는 1907년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시키고, 조선시대 군사를 담당하던 관청 훈련원(訓練院)<sup>41)</sup>과 무기 제작을 담당하던 하도감(下都監)이 자리했던 터에 도성 성벽을 허물고 운동장을 지었다. 조선을 수호하던 군사시설에서 오락적 체육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제국의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경성운동장의 건립은 훗날 쇼와천황(昭和天皇)이 되는 황태자 동궁 히로히토(裕仁)의 결혼을 기념하여 추진한 행사였다. 당초 결혼식은 1923년 가을로 예정되었으나, 그해 9월 관동대지진(關東大震災)이 발생한 탓에 24년 1월 26일에 거행되었다. 결혼식 이틀 후 「경성일보」에는 “뜻깊은 신설되는 대그라운드”라는 제목으로 “예상액 16만원을 계상”하고 “어성혼(御成婚)의 기념사업으로 일대운동장(一大運動場)을 건설”하여 “30만 부민(府民)의 숙원을 이루게 되어 기쁘다”<sup>42)</sup>라는 기사가 실렸다. 경성운동장의 원래 명칭이 “동궁전하 어성혼기념(東宮殿下御成

유실되면서 이후 수해 우려가 적고 교통이 편리한 동대문 인근에 동대문경마장(1928~54)이 생겼다. 지도에서 경마장이란 이곳을 말한다. 1933년에는 과천에 ‘경성경마장’도 개장했다. 일제강점기 경마장은 주로 일본 상류층과 친일파를 위한 사교장으로 인식되었다. 한편으로는 도박으로 활용되어 조선인들의 돈을 착취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경마장도 30년대 접어들어 일제의 군사력 증강을 위해 군마 확보가 필요하여 경마구락부를 조정, 통제하는 정책이 시행된다. 즉, 경마정책은 “군사적 필요성, 세수의 확보, 지배 이데올로기의 강화”에 근본 목적이 있었다. 김정(1999)「일제하 식민지 경마정책의 성격」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 석사논문 43쪽, 참조.

37) 경성운동장은 총면적 2만 2,700평으로 당시 동양 최대 규모 고시엔(甲子園)에 버금가는 큰 운동장이었다. 약 5개월간의 공사로 1925년 10월 15일에 개장하였고, 정식 준공일은 이듬해인 1926년 3월 31일이었다. 지도상 ‘경성그라운드’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본 발표에서는 편의상 ‘경성운동장’으로 한다. 이곳은 1925~45년까지는 경성운동장, 1945~84년까지는 서울운동장, 1984~2007년까지는 동대문운동장으로 불리었다. 2008년 철거된 후 현재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동대문역사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38) 조선신궁은 1919년(大正8)에 설계되어 경성운동장이 완성된 1925년에 신궁으로 격상된 곳으로 아마 테라스오카미(天照大神)와 메이지천황(明治天皇)을 제신으로 모신 곳이다. 일본 본토 외에 유일한 칙제사(勅祭社)로, 당시 조선 전체의 신사를 대표하는 곳이었다.

39) 橋本和佳(2010)「現代日本語における外来語の量的推移に関する研究」『ひつじ研究叢書〈言語編〉』第86巻、ひつじ書房、75쪽.

40) 수영장은 개장 당시 설계도에는 있었지만, 예산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었다가, 1933년 7월에 착공하여 34년 6월 30일에 준공되었다. 개장하자마자 입장객이 쇄도하여 7,000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매일신보」 1934년 8월 9일자 7면 기사 참조.

41) 지도상에서 훈련원은 1925년 지도에서 35년까지 등장한다. 하지만, 1907년 일제 통감부에 의해 군대가 해산되면서 함께 폐지되었다. 그러므로 지도상의 훈련원은 공간의 명목상으로 잔존했다.

42) 주34)과 같음.

婚記念) 훈련원 그라운드”<sup>43)</sup>였다는 사실은 이러한 건립 배경과 권위를 짐작하게 한다. 일본내에서도 본격적인 운동장이 건립된 것은 1924(大正13)년의 도쿄 메이지신궁 외원경기장(明治神宮外苑競技場, 국립경기장의 전신)이 처음이며, 이듬해 조선에서도 거의 같은 규모의 운동장이 건설되었던 것이다<sup>44)</sup>.

경성운동장이 완성되자 조선체육협회(1919년 창립)는 “메이지신궁 경기대회”<sup>45)</sup>를 본떠 “조선신궁 경기대회”를 개최했으며 이 대회 우승자는 조선 대표로 도쿄대회에 출전하였다. 이처럼 총독부 통제의 공식 행사장, 혹은 조선신궁 참배 후 체육대회장으로서 경성운동장에 관해 “천황에 대한 헌신을 위해 신체를 훈육하는 곳”이자 “집단 공동체를 형성하는 국가주의 이념과 충군 애국을 복돋는 장소”<sup>46)</sup>로 규정하기도 한다. 즉, 정신적 지배와 동화(同化)의 상징이었던 신궁과 육체적 단련과 군국주의 체화의 장<sup>47)</sup>으로서 운동장의 결합, 또한 일본 본토의 로컬로서 존재하는 조선의 위상은 식민 통치 전략의 일면을 엿보게 한다.

아래 【사진11,12】에서 보듯이 관광 지도에서 경성운동장은 다른 명소나 이정표가 되는 건물처럼 등장하지만, 관광코스에도 들어가 있지 않으며 팜플릿에서도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경성운동장은 마치 동쪽을 대표하는 상징물처럼, 일제 식민 지배를 표징하는 조형물처럼 그 존재감을 나타낸다.

이처럼 일제는 개방적이며 활동적인 이미지의 근대 운동장을 건축하면서 황국신민을 육성하는, 동화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공간으로 조성해 갔다. 한편으로 “일제가 그려낸 식민제국의 유토피아적 실천 의도로 가공”<sup>48)</sup>되었다는 분석은 경성운동장의 함의를 엿보게 한다. 바꿔 말하면, 질서정연한 제국체제 강화를 위해 규율을 강조하고 “완벽한 통치가 가능한 도시”<sup>49)</sup>를 유토피아라고 한다면 일제가 지향한 것은 그것일 것이다. 또한 일제가 의도한 “완벽한 통치”란 내선일체를 이루고 황국신민을 양성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경성운동장은 내선화합을 표상하며, 피식민자의 신체를 훈육하는 곳, 이른바 식민 권력의 공간화를 구현한 토포스로 치환되는 것이다.

동대문에 경성운동장이 있다고 한다면, 지도에서 반대편 서쪽 독립문 근처, 마포 공덕리쪽에 형무소 표기가 보인다. 관광명소도 유적지도 아니며, 중심지에서 약간 떨어진 이곳은 각 지도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며 마치 주요 기관처럼 표시되고 있다. 각 지도에는 형무소 이외에도 총독부를 비롯하여 경찰서, 재판소, 군사시설 등을 명기하며 곳곳에 배치된 통치기관을 시각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한국병합을 기점으로 생겨난 건축물로, 근대적인 외관과 설비 등이 특징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43) 「경성일보」 1925년 9월 17일자 1면 기사.

44) 조선의 스포츠시설은 1934년까지 전국 13도에 288개의 각종 경기장이 조성되었다고 한다. 손환(2003) 「일제하 한국근대스포츠시설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제42권 4호, 34쪽, 유근필외(2014) 논문에서 재인용.

45) 메이지신궁 외원경기장이 완성되자 이후 매년, 혹은 2년에 한 번 내무성 주최로 종합스포츠 대회인 “메이지신궁 경기대회”가 개최되어 1943년까지 이어졌다.

46) 주창윤(2023) 「일제의 공간 재현을 통한 동화의 서사 논리-조선신궁, 경성역, 경성운동장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31권 2호 5쪽, 32쪽.

47) 유근필 외(2014) 「일제강점기 동아일보 기사를 통해 본 경성운동장의 장소성」 『기초조형학연구』 제15권 2호 한국기초조형학회, 340쪽. 이 논문에서는 경성운동장의 장소성을 “민족감정 표출의 장, 체육을 통한 군국주의 체화의 장, 행사를 통한 체제 과시의 장, 세계와의 교류의 장, 경성의 일상적 상징물”로 그 특징을 정리하고 있다.

48) 공현진 외(2019) 「헤테로토피아적 장소연구-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제20권2호 한국기초조형학회, 11쪽.

49) 미셸 푸코, 오생근 역(2018) 『감시와 처벌』 나남, 365쪽.

한반도에 근대 감옥, 형무소가 건축된 것은 1907년 경이다.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일제 통감부가 식민 통치에 저항하고 불복종하는 인물들을 가둬두기 위해 만든 것이 1908년 10월 21일 문을 연 경성감옥<sup>50)</sup>이다. 경성감옥은 1912년 서대문감옥으로, 23년에는 서대문형무소<sup>51)</sup>로 불리면서 일제강점기 내내 대규모의 감옥(형무소)으로 운영되었다. 1925~30년에 걸쳐 소책자 지도에는 ‘형무소’로만 표기되어 있다. 또 한 곳은 1912년에 경성감옥(마포)으로 신설되어 23년 경성형무소로 개칭된 곳으로 1933년 리플릿 지도부터는 ‘경성형무소’로 적혀있다. 즉, 서대문형무소는 지명이 형무소와 동일시된 까닭인지 굳이 ‘서대문’을 붙이지 않고 표기한다. 반면, 경성형무소는 명칭이 오히려 도시를 대표하는 이미지를 내포하는 이유에서인지 ‘경성’을 붙여 쓰고 있다. 단, 1937년 지도에는 주변의 관광명소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뉘앙스의 서대문, 경성형무소 두 곳 모두 표시되어 있다. 37년은 중일전쟁의 발발로 전쟁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국가총동원체제를 구축하던 시기였다. 그렇기에 일제는 효과적 통제로 질서 있는 식민 사회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사진12】의 37년 지도에 두 형무소는 중앙에 위치하면서 총독부에 버금가는 존재감을 표한다. 이는 강력한 식민 권력을 행사하던 총독부와 더불어 주요 통치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시사하는 것으로, 엄격한 규율이 저류하고 있는 경성을 표상한다.

<p>【사진11】 1930년 「경성시가전도」 소책자 지도 □형무소 ○경성부영그라운드</p>	<p>【사진12】 1937년 「경성부시가약도」 리플릿 지도 □(위)서대문형무소, (아래)경성형무소 ○경성그라운드</p>
	

이처럼 경성에서는 1908년~12년, 불과 4년 사이에 2개의 감옥(형무소)이 생겨났다. 1912년의 신문에는 “조선의 모범 감옥이 될 마포감옥(경성형무소)은 (중략) 12월 11일에는 준공할 터이며, 1,500여 명을 수용한다고 하고 또 수감자는 전부 조선인을 수용한다”는 기사가<sup>52)</sup> 실려

50) 경성감옥은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전국에서 일어난 의병을 붙잡아서 가두고 고문할 장소가 필요했기 만들어진 사실상 의병감옥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1910년 일제에 의한 한국병합 때까지 수십 명의 의병장들이 처형되거나 옥사했다. 「조선총독부관보」 등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1908~45년 8월까지 사형 집행 인원은 493명 이상이라고 전해진다. 이승윤(2021) 「1908~1945년 서대문형무소 사형 집행의 실재와 성격」 『서울과 역사』 108호, 서울역사편찬원 153~207쪽, 참조.

51) 서대문형무소는 1946년에는 서울형무소로 바뀌어 반민족행위자와 친일세력들이 수용되었다. 1961년에는 서울교도소로, 1967년에는 서울구치소로 바뀌어 주로 정치적 시국사범들이 수감되었다. 1988년에 사적지로 지정되었다. 초기는 목재 건물로, 면적도 480여 평, 수용인원 500여 명의 규모였으나, 이후 증축과 개축을 거듭하며 붉은 벽돌 건물로 변모하며 규모와 수용인원이 늘어났다. 1937년 기준 총면적 약 1만 6,500여평, 수용인원 2,500여 명, 운영 인력 343명으로 알려졌다. 박경목(2014) 「기록으로 보는 일제강점기 서대문형무소 일상」 『기록의 발견』 27호, 76쪽 참조.

52) 「매일신보」 11월 5일 2면 “마포감옥준성(麻浦監獄竣成)” 제목의 기사 참조.

팜플렛을 펼치다, 경성을 만나다

있다. 즉, 수감자의 급증이 형무소 신설로 이어진 것으로, 이는 당시 식민 정권에 불복종한 무수한 조선인들의 활약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이들 형무소 옥사는 당시 유행한 붉은 벽돌로 지어졌다. 특히 서대문형무소인 경우는 수감자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방사형 감옥 형태인 판옵티콘(Panopticon)건축 양식으로 만들어졌다. 소수의 감시자가 일률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판옵티콘의 구조는 푸코에 의해 근대 사회에서 은밀하고 정교하게 작동하는 권력과, 감시 사회의 상징으로 해석되며, 감옥은 ‘권력의 공간화’의 대표적 예로 설명되고 있다<sup>53)</sup>. 이처럼 권력이 지배력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효과를 증대하여, 자발적이고 내면화된 복종을 유도하는 구도는 식민지 정권과 피식민자와의 관계로도 번역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일제의 형무소는 “강압적 식민지 통치가 제도적으로 완성되고 운영”되는 곳으로, 이것을 수단으로 “사회에 대한 통제력과 지배력을 강화해 나갔다”<sup>54)</sup>고 분석하면서 일제의 억압, 감금과 통제의 상징체, 규율 권력의 총합체로서 형무소를 설명한다.

일제강점기 형무소는 표면적으로는 근대화된 외관과 구조를 선보이며, 야만적 형벌을 폐지하고 문명화된 처벌을 집행하는 듯 치장했지만, 이면에는 식민 정권에 저항하는 세력을 사회와 격리하기 위한 탄압과 공포의 장소로 기능했다. 이는 일제가 조선을 통제하는 방식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지도상의 형무소라는 토포스 역시 식민 지배원리의 표식처럼 각인되고 있다.

이와 같이 경성 동쪽의 경성운동장은 근대화된 개방적인 장(場)의 상징물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항국신민화를 지향한 식민지 국민의 신체를 통제하고 규율하는, 일종의 식민 정책 실현을 위한 장소였다. 한편, 반대쪽에 위치한 서대문, 혹은 경성형무소는 근대적 설비를 통해 처벌의 문명화를 대표하지만, 원래의 폐쇄적 이미지와 더불어 실제로도 식민 정부의 정책에 순종하지 않는 피식민자의 신체를 구속하는 통치기관(所)으로 위치했다. 즉, 이러한 장소(場所)는 관광지도 아니면서, 당시의 관광 지도를 통해 반복적으로 노출되며 경성을 관광하는 이들에게 일제 식민 통치의 합리화, 과시용의 상징물로, 혹은 제국의 위엄을 표상하는 토포스로 자리매김되어 갔던 것이다.

## 5. 나오는 말

주지하는 대로 일제는 대한제국을 조선으로, 500여 년 한반도의 수도(首都)였던 한성(한양)을 경기도<sup>55)</sup> 소속의 ‘경성(京城, けいじょう)’으로 격하된 위상으로 개칭하며 일제강점기 식민지 도시로 전락시켰다. 그런 한편으로, 일본은 식민지 개발과 수탈, 나아가 제국 확장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경성을 시작으로 철도와 도로망 등 근대적 인프라를 조성해 갔다. 일제는 전통 유적지와 근대적 도시의 면모를 두루 갖춘 경성을 관광산업에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일제강점기 다양한 경성관련 관광안내서는 그것을 방증한다. 조선총독부에 의해 식민 정

53) 판옵티콘이란 ‘한눈에 전체를 다 본다’는 의미로, 제러미 벤담(1748~1832)이 1791년에 제안한 감옥 형태이다. 중앙의 감시자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모든 수감자를 감시할 수 있는 이 구조에 관해 푸코는 이런 감옥의 원리가 근대 이후 사회 일반화되었다고 말한다. 미셸 푸코, 오생근 역(2018) 『감시와 처벌』 나남, 359쪽 참조. 또한 푸코에 의하면 “통과, 변형, 갇힘의 노고와 관련”된 감옥은 “일탈된 행동을 하는 개인들에게 마련해 놓은 장소”로 하나의 헤테로토피아라고 정의한다. 미셸 푸코/이상길 역(2014) 『헤테로토피아』 문학과 지성사, 22쪽.

54) 김항기(2014) 「서평-‘제도화’, ‘합법화’된 폭력 ‘식민지 감옥’-박경목 『식민지 근대감옥 서대문형무소』 일빛, 2019」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75집, 216쪽.

55) 현재의 경기도, 서울, 인천, 개성 주변까지를 포함한 지역.

책 일환으로 조직된 조선 관광은 “일제 통치의 정당성과 일본제국의 우월성을 보여줄 수 있는”<sup>56)</sup> 가장 유효한 수단이었으며, 그중에서도 경성은 “살아있는 박물관이자 살아있는 식민 통치의 전시관”<sup>57)</sup>으로 전시되고 활용되었다.

본 발표에서는 조선총독부 철도국이 발행한 1920~30년대의 관광팸플릿의 경성지도를 대상으로 당시 일제가 배치한 특정 토포스를 살펴보았다. 먼저 각 지도에서는 공통적으로 철도와 도로망이 강조되어 근대화된 조선(경성)으로 인식하게 하고, 일본어 표기의 지명, 행정구역명은 제국의 공간 질서를 선명히 시각화하고 있다. 지도를 읽는 시선은 일본 본토와의 근접성과 연결성을 의식하며 변방으로서의 경성을 자리매김하고, 또 한편으로 만주 대륙으로 이어지는 철도망을 통해 제국 확장의 교두보로서의 경성으로 수용하는 등, 하나의 심상지리를 형성하게 된다.

또한 본 발표에서는 경성의 동서남북, 각 방위에 주목되는 토포스의 성격을 파악했다. 남북에는 각각 용산역과 경성역을, 동서에는 경성운동장과 형무소를 고찰하면서 그것들이 대칭적 위치에서 대조적 속성을 표상하고 있으나, 제국의 논리에 기반한 경성의 근대화와 문명화의 상징물임에는 공통한다고 분석했다.

요컨대, 일본은 경성지도의 사방에 자신들의 존재감을 증거하는 공간(장소)을 배치하면서, 제국에 편입된 도시 경성을 도식화하며, 식민 지배의 정당성을 이식해 갔던 것이다.

앞서 언급되었던 푸코는 “현실적 장소를 자신만의 환상, 상상에 입각해 새롭게 구성, 창조하는 방식”의 예로 “식민지”를 들고 있다. 그는 식민지라는 현실 공간을, 모든 배치를, 지배 권력이 사회 질서의 형성과 유지를 위해 조직화해 간다고 설명한다. 1920~30대의 경성지도를 통해서도 권력이 작동하는 공간의 조직화는 엿볼 수 있었다. 아울러 현실 공간이 지도 속 공간으로 재편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절대적으로 현실적인 동시에 절대적으로 비현실적인 것”<sup>58)</sup>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 분명히 지도를 통해 실제적 조선의 경성이 가시화되지만, 그것은 일제에 의해 조성된 일부의 경성이 제시되는 것으로, 오로지 제국의 도시 경성으로서 이미 지되고 오해되어 간다. 물론 ‘관광’이라는 비밀상성이 전제되어, 일정 부분 일상성의 소거를 감수해야 한다 해도 결론적으로는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팸플릿 속 지도가 식민지 통치를 시각적으로 구현하고 선전하는 도구와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사실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56) 정치영(2018)「여행안내서 『旅程と費用概算』으로 본 식민지조선의 관광공간」『대한지리학회지』 제53호 731쪽.

57) 정재정(2013)「일제하 동북아시아의 철도교통과 경성」『서울학연구』 제52집 200~208쪽.

58) 미셸 푸코/이상길 역(2014)『헤테로토피아』 문학과 지성사, 52쪽, 60~62쪽.

【참고문헌】

- 공현진 외(2019) 「헤테로토피아적 장소연구-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중심으로」『기초조형학연구』 제20권2호 한국기초조형학회, 11쪽.
- 김경리(2017) 「경성관광협회의 관광문화산업과 관광지도의 연구」『외국학연구』 제42집, 471쪽, 475쪽, 481쪽.
- 김선정(2017) 「관광 안내도로 본 근대도시 경성-1920~30년대 도해 이미지를 중심으로-」『한국문화연구』 (33) 한국문화연구원 35쪽.
- 김선희(2018) 「사진그림엽서를 통해 본 근대 서울의 관광 이미지와 표상」『대한지리학회지』 제53권, 569쪽, 581쪽.
- 김정(1999) 「일제하 식민지 경마정책의 성격」제주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 석사논문 43쪽.
- 김천수(2014) 「일제시기 용산기지 형성 과정에 대한 기초 연구」『서울과 역사』 87호, 163~210쪽.
- 김항기(2014) 「서평-‘제도화’, ‘합법화’된 폭력 ‘식민지 감옥’-박경목 『식민지 근대감옥 서대문형무소』 일빛, 2019」『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75집, 216쪽.
- 권혁희(2005) 『조선에서 온 사진엽서』 민음사, 54~55쪽.
- 미셸 푸코/이상길 역(2014) 『헤테로토피아』 문학과 지성사, 22쪽, 52쪽, 60~62쪽, 74쪽.
- 미셸 푸코/오생근 역(2018) 『감시와 처벌』 나남, 359쪽, 365쪽.
- 박경목(2014) 「기록으로 보는 일제강점기 서대문형무소 일상」『기록의 발견』 27호, 76쪽.
- 서민교(2018) 「일제강점기 용산기지의 군사전략적 기능에 대하여-1904년 러일전쟁에서 1930년대 만주사변기의 ‘조선군’의 역할과 기능」『서울과 역사』 98호, 233~261쪽.
- 손환(2003) 「일제하 한국근대스포츠시설에 관한 연구」『한국체육학회지』제42권 4호, 34쪽.
- 유근필 외(2014) 「일제강점기 동아일보 기사를 통해 본 경성운동장의 장소성」『기초조형학연구』 제15권 2호 한국기초조형학회, 340쪽.
- 이승윤(2021) 「1908~1945년 서대문형무소 사형 집행의 실제와 성격」『서울과 역사』 108호, 서울역사편찬원 153~207쪽.
- 원종혜(2016) 「일제시대 觀光地圖에 조명된 京城 관광의 이미지」『역사와 경계』(100) 부산경남사학회 166쪽.
- 정시구(2017) 「일제강점기의 조선통감부와 조선총독부의 역할 연구」『한국행정사학지』 제41집, 198쪽.
- 정재정(2013) 「일제하 동북아시아의 철도교통과 경성」『서울학연구』제52집, 200~208쪽.
- 정치영(2018) 「여행안내서 『旅程と費用概算』으로 본 식민지조선의 관광공간」『대한지리학회지』 제53호 731쪽.
- 전수연(2010) 「근대관광을 통해 드러난 일본의 제국주의:1900년대 이후 일본의 조선관광과 여행안내서를 중심으로」 미술사학보 제35집 333~334쪽.
- 조성운(2009) 「일제하 조선총독부의 관광정책」『동아시아문화연구』 제46집, 41쪽.
- 주창윤(2023) 「일제의 공간 재현을 통한 동화의 서사 논리-조선신궁, 경성역, 경성운동장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31권 2호, 5쪽, 20쪽, 32쪽.
- 최인택 외 (2023) 『이미지로 읽는 근대 서울 2-사대문 안 한국인들의 공간과 일제의 침투』 서울역사편찬원, 214쪽.
- 佐伯若夏ほか(2020) 「韓国におけるゴルフ導入期に関する一考察」広島国際大学総合教育セン



ター紀要 第5巻 106쪽.

森田智恵(2020)「戦時期植民地朝鮮における帝国日本の観光政策-雑誌『観光朝鮮』の創刊背景を中心に」観光学術学会研究報告要旨集, 75쪽.

橋本和佳(2010)「現代日本語における外来語の量的推移に関する研究」『ひつじ研究叢書〈言語編〉』第86巻、ひつじ書房、75쪽.

「경성일보」1924년 1월 28일자 1면, 1925년 9월 17일자 1면 기사.

「매일신보」1912년 11월 5일자 2면, 1923년 1월 1일 3면, 1934년 8월 9일자 7면 기사.

<https://archives.seoul.go.kr/exhibition/yongsan/1/2> 서울특별시 서울기록원(검색일 2025년4월20일)

## 「1920~30년대 관광팸플릿 경성지도 속 토포스」 토론문

하지영(동아대학교)

1. 본 논문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철도국에서 발행한 관광팸플릿 속 경성지도를 분석한 연구로, 당시 조선의 대표적 관광도시로 성장한 '경성'을 소개하는 관광지도가 조선총독부의 식민지배정책을 선전하는 도구였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1920·30년대 조선총독부 철도국이 발행한 8개의 지도를 비교·분석하였고, 지도의 시계열적 변화상을 보여주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도 밝히고 있지만 일제가 조선에서 근대관광을 장려한 것은 식민지 지배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전근대성을 강조한 조선의 전통적 모습과 근대화된 조선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일제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은 그간의 축적된 연구성과들을 통해 대략적으로 밝혀졌습니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본 연구의 결론이 기존의 토론을 '지도'라는 시각적 자료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데에 머물고 있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2. 1920년대 중반 이후 조선총독부 철도국이 간행한 지도를 시계열적으로 비교·분석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그 변화를 크게 언급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동서남북 방위의 변화라든가 컬러화와 픽토그램의 추가, 그리고 철도 혹은 전차 등 교통망의 확대, 여의도와 영등포, 노량진 등 도시공간의 확장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는 지도 자체의 변화라기보다는 경성이라는 도시의 변화가 그대로 지도에 반영된 측면이 더 커보이는데, 예컨대 1934년 <조선시기지계획령> 시행과 함께 경성의 도시공간이 영등포, 노량진 등으로 확장된 것과 같은 부분입니다. 동서남북 방위의 변화 이외에 지도 자체의 변화는 크게 없는 것인지 궁금하며, 민간에서 발행한 관광지도와 비교하면 그 특징이 더 크게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 전체적으로 지도가 잘 보이지 않아 드는 의문이기는 하나, 본 논문에서는 주요 관광코스보다는 '반복적으로 부각되는 요소나 장소', 곧 '토포스'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 지도의 시계열적 변화보다는 오히려 각 지도의 공통점을 더 강조하게 되는 듯합니다. 또한 본 논문에서 선정한 '토포스'는 조선총독부의 정치적 의도를 부각시킨다는 목적을 전제한 가운데 선택한 측면은 없는가 합니다. 사대문 안 한성의 도시공간을 식민지배에 적합한 도시로 만드는 과정에서 경복궁 내에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고, 서대문 밖에 경성감옥(서대문형무소)을, 동대문 군사시설 터에 경성운동장을 조성한 것 등이 일제가 조선왕실의 권위를 훼손하고 신성함을 벗겨내려 한 정치적 의도에서 기인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논문에서는 각 지도가 이러한 장소를 시각적으로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보다는 장소 자체의 의미에 대한 설명에 집중하고 있는데, 지도가 이들 장소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에 대한 부연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공간이 포함된 지도의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방식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4. 본 논문에서 관광지도는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며, 당시 관광객의 대다수는 본

토의 일본인이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은 제시한 8개의 지도에서 조선총독부의 정치적 의도를 읽어내는 데에 치중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광지도가 본토의 일본인 관광객 유치에 어떠한 효과가 있었을까?

5. 지엽적인 질문이기는 하지만 발표문 10쪽에서 ‘1912년 시구개정사업(시구개수사업으로 수정 要)’으로 전통적 구조의 경성이 근대도시로 크게 변화한 것처럼 서술하고 있으나, 1912년 시구개수사업의 성과는 재정 등의 문제로 인해 크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도시 한성이 근대 식민도시 경성으로 변화해 가는 과정에서 1912년 시구개수사업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재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